

谷城樓亭錄

谷城文化院

·表題글씨: 雲菴·趙 鏞 敏

발 간 사



김길영
(곡성문화원장)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라고 한다면 그 현재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바탕이 되어준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란 우리들의 자취인 동시에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산자 수명한 우리고장의 심산 유곡마다 고고(高孤)히 산재해 있는 120여개소의 누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히 경탄을 금치 못하게하며 이는 누대에 걸쳐 형성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삶의 예지(叡智)인 것이므로 이 기회에 재 조명해 보고 이 귀중한 업적을 후손에게 널리 알리고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재 음미 할 수 있도록 예리한 판단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누정들을 기록으로나마 보존함으로써 오늘의 젊은이들이 현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귀감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비롯 되었으며 선조의 위훈이 어떠하다는 것을 새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본원에서는 누정집 발간의 대역사(大役事)를 1994년에 착수하여 2개여 성상이 홀렸습시다만 오늘에야 비로소 누정록의 대미(大尾)를 장식하게 되었으며 이 작업의 정상(精詳)을 기하기 위해 모래속에 흐트러진 금짜라기를 하나 하나 주워 모으듯 군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수집 사실(史實)을 사실(事實)대로 수록하는데 심혈을 경주한 값진 소산임을 부언하면서 끝으로 이 한편의 누정록이 문헌으로 집대성 하기까지 몰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형래 군수님과 오형금 군의회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目次

□ 谷城邑

- | | | |
|--------|-------|----|
| 1. 東山亭 | | 9 |
| 2. 南陽亭 | | 14 |
| 3. 玉壺亭 | | 18 |
| 4. 反求亭 | | 21 |
| 5. 景思亭 | | 34 |
| 6. 晚翠亭 | | 34 |
| 7. 清溪亭 | | 35 |
| 8. 月華樓 | | 36 |
| 9. 晚學亭 | | 37 |

□ 梧谷面

- | | | |
|----------|-------|----|
| 10. 永守亭 | | 39 |
| 11. 浣溪精舍 | | 59 |
| 12. 忘憂亭 | | 60 |
| 13. 二樂亭 | | 61 |
| 14. 白鷺亭 | | 63 |
| 15. 一草亭 | | 67 |

□ 三岐面

- | | | |
|---------|-------|----|
| 16. 梧石亭 | | 68 |
| 17. 清涼亭 | | 81 |
| 18. 連海亭 | | 83 |
| 19. 映波亭 | | 84 |

□ 石谷面

20. 萬石亭(詩友亭)86
 21. 伴 鷗 亭88
 22. 月 峯 亭91
 23. 相 宜 亭92
 24. 敬 老 亭97
 25. 愛 蓮 亭101
 26. 凌 波 亭103

□ 木寺洞面

27. 茂 林 亭104

□ 竹谷面

28. 金 蘭 亭105
 29. 永 山 亭107
 30. 蓮 花 亭117
 31. 天 德 亭118
 32. 秋 溪 亭119
 33. 永 矣 亭120
 34. 木 澗 亭123

□ 古達面

35. 樂 水 亭124
 36. 橫 灘 亭138
 37. 輔 仁 亭141
 38. 翠 雲 亭146
 39. 南 愚 亭147
 40. 鰲 戴 亭152

□ 玉果面

41. 晚 翠 亭161
 42. 觀 政 樓162
 43. 椅 雲 樓162
 44. 合 江 亭163

□ 立 面

45. 涵 虛 亭165
 46. 杜 菴 亭171
 47. 寒 碧 亭175
 48. 月 巖 亭176
 49. 學 古 堂177
 50. 雪 亭181
 51. 松 石 亭183

□ 兼 面

52. 大 還 亭184
 53. 天 淵 亭186
 54. 雪 岩 亭187
 55. 不 倚 亭188
 56. 翠 松 亭189

□ 梧山面

57. 三 九 亭190
 58. 花 樹 亭193

- ≡ 谷城 樓亭錄 索引194

1. 東山亭



곡성읍 동산리에 있으며 1949년경 金圭泰氏가 建立.

1) 記

東山亭善山金氏賢祖菟裘也年間重建焉帶方韻士韓信之爲之詩若序信之老而筆不老凡亭之故實以至四圍拱損之偉麗冬夏昏明之異候菟括無遺旋又策驢百五十里託其友人奇正鎮曰心曠神怡寵辱俱忘吾嘗聞其語矣未見其樓也乃今始見之不知身之在巴陵萬里外也所恨獨賞近鑿竊欲雙手拱獻於長者以供一餉開眼而畫中景非生絹一幅終非雙所可搬運也若之何吾素知信之眼光不草草聽未既不覺歆艷動情徐謂信之公欲引我一出清溪洞門耶吾朽而臭矣遊賞已歸先天多謝公不葉老物信之曰非敢然也得長者一語留之壁間此與長者親臨何異是之軒耳余啞然笑曰吾

初謂子將以江山豁余乃欲以我塵穢江山耶世間自有一副風流好事不如是豈云韓信之也雖然公亦沒商量矣東山亭四面八方公之序已占據使我步磨驢之跡則吾不爲也捨此而爲言則所謂白戰不許持寸鐵奈亭何信之曰否否今日一場談話後此何人道得膽之紙面以爲東山亭之記足矣

<蘆沙 奇正鎮>

□ 해설

東山亭은 善山金氏의 賢祖님들께서 거처한 건물인데 최근에 다시 세운 것이다. 帶方고을 선비인 韓信之가 동산정을 위해 詩와 序文을 썼는데 信之의 몸은 늙었지만 그 문장력은 늙지않아 정자에 관계된 사실과 사방으로 둘러 쌓인 수려한 경치와 춘하추동 밤낮으로 달라지는 기후까지도 빠짐없이 찾아 담았다. 또 곧바로 당나귀를 채찍질하며 백오십리길을 달려와 그 벗 기정진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心神이 평화로워 寵辱을 잊을 정도라는 그 소문을 내가 일찌기 들었지만 그 樓閣은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비로소 보니 내 몸이 巴陵(岳陽縣 서남쪽에 있는 산) 산 萬里밖에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아쉬운 것은 나홀로 경치를 탐낸듯 한것이기에 두손으로 풍경을 안아다가 長者에게 드러 눈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경치를 생명주 한쪽에 담을 수가 없었으며 마침내 두손으로 운반할 수도 없었으니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였다. 나 正鎮은 본래 信之의 눈빛이 황급하지 않았고 그 설명을 들으니 부러워하는 심정을 깨달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서히 信之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나를 유인하여 淸溪洞門 밖으로 함께 나가고 싶어하는 것이지 나는 늙은 냄새가 풍기니 명승지를 유람하는 것도 이미 옛날 일이었네 하지만 그대가 늙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많은 감사를 느낄뿐일세 라고 하였다. 信之가 가로되 김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長者의 글 한편을 얻어 벽사이에 둔다면 이는 長者가 친히 臨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내 가슴에 모신것입니다 라고 하기에 내가 빙그레 웃으며 가로되 내가 처음에 이르기를 그대가 장차 江山으로써 나의 회포를 트이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이리하여 나같은 塵人으로써 江山을 더럽히게 하려 하는가 세상에

저절로 風流의 좋은것이 이것과는 같지않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韓信之를 이름이겠는가 비록 그러나 그대 역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야 東山亭의 아름다운 四面八方 경치는 그대가 序文에서 이미 차지하고서 나로 하여금 뒤를 따라오면서 남아있는 것을 차지하라고 한다면 나도 하지않을 것이다. 이를 놓아두고 말을 한다면 이른바 白日戰(깨끗이 싸움)에서 寸鐵 가진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亭記 무어라고 쓸것인가 라고 하자 信之가 가로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신 말씀을 뒤에 어느사람이 언급할 것입니까 長者의 말씀을 紙面에 써서 東山記로 하여도 만족하겠습니다.

<蘆沙 기정진 지음>

2) 記

夫亭也者古之賢哲擇勝而作寓意而名者也惟我先祖白巖公有蹈 東海之我遷巖公有築洛東之亭甲山公擇東山之勝相宅世居焉取東宇之義至矣暨于處士公文行著世而晚構草堂於茲山之上以揭東山之額者承先寓意而名者也箇中別有清意味居然川石可尚晦翁之幽趣安於吠畝賣挹歐公之豐樂以爲暮年杖屨之所年代屢更棟宇盡頽荒涼遺址只爲後孫之帳慕久矣何幸今春若箇孱孫詢謀齊力因作小亭二間於山之頂江之上因其舊額刻今人詩賦於其上嗚呼江山依舊烟景不殊杞酒臨風自不覺曠感之懷遂忘拙陋略舉顛末而記之繼而 詩曰

永慕草堂修小亭 東山春色古今青 滄江皓月磨塵鏡 遠岫層雲活畫屏
遊客臨欄飄化明 文章滿壁映奎星 風烟萬家無△味 渾入盃中任醉醒

<辛未四月日 後孫 圭緝 謹記>

□ 해설

대범 亭이란 것은 옛날에 현철한 분들이 명승지를 선택하여 정자를 짓고 뜻을 담아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 선조 白巖公께서는 東海에 몸을 던진 魯仲建과 같은 뜻이

있었고 우리 遯巖公께서는 洛東에 정자가 있었으며 甲山公께서는 東山에 명승지를 선택하여 집을 지어 대대로 거주하였으니 東字를 취택한 뜻이 지극하였다. 處士公께서는 문학과 덕행이 세상에 알려진 분으로 만년에 草堂을 이 산위에 세우고 東山이라 이름한 것은 선조의 얼을 계승하는 뜻을 담아 이름을 부른 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한 맑은 意味가 있어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川石이라고 하였으니 朱晦翁의 깊은 취지를 숭상하였으며 발걸음을 편안히 하여 歐陽公의 풍족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만년을 보내는 곳으로 삼았다. 年代가 바뀌면서 건물은 모두 무너지고 터는 황량한 폐허가 되었으니 후손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사모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금년 봄에 몇몇 자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재력을 모아 山 정상과 강물 위쪽에 三間정자를 세우고 옛 이름을 인용하여 東山亭이라 세웠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詩句를 그 위에서 읊조렸다.

아~ 江山은 옛모습을 유지하였고 풍경도 달라지지 않아 술을 마시며 바람을 쏘일적에 자신의 감회가 광대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드디어 자신의 웅졸함을 잊고 정자에 관한 이모저모를 기록하고 이어 다음과 같이 詩를 지었다.

영원히 草堂을 사모하여 조그마한 정자를 세웠으니,

東山의 봄빛은 예나 지금이나 푸르누나.

물결속에 밝은 달은 먼지긴 거울을 닦아 놓은듯

먼산에 층층난 구름은 그림 병풍이 펼쳐있고

노니는 손님 난간에 臨하니 飄化가 밝았으니

文章이 벽에 가득하니 奎星이 비치나봐.

풍연에 쌓인 초막집에 별미가 없을 손가

술잔가운데 풍덩빠져 취하고 게임을 마음대로 할거야

<辛未년 4월에 후손 규진 삼가 기록함>

3) 重修記

浴川之陽東山之上因作小亭二間稱地名而揭額東山亭也去辛未肇夏

吾先子諱圭憲四從祖諱圭泰諱圭衫三祖之所初建而亦致諸宗之意也迄今七十有九年上而傍尾床床屋△而脚未絕懼爲亭之不壽是歲之秋七月門議更發重口符同亟舉重修棟樑完成此非但爲吾宗一家之榮揮抒亦爲詩客韻士之△風庶可有助豈不美哉豈不壯哉△其董役則俊述丁述泰保泰炯△△賢△有司丙述

<惟己丑 月上澣 後孫 泰佐 謹誌>

□ 해설

浴川남쪽 東山の 정상에 조그마한 정자 二間을 세우고 地名을 담아 東山亭이라고 이름을 하였다. 지나간 辛未년 초여름에 내 할아버지 圭憲님과 四從祖이신 圭泰님 圭衫님 세분이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 역시 모든 종친들과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제 79년이 되어 석가래 끝과 기둥이 노후해 이 정자가 머지않아 무너질 것을 두려워 하여 이해 가을 7월에 門中이 다시 발의한 결과 종친 모두가 입을 같이하여 속히 重修를 서둘러 기둥과 들보가 완성되었으니 다만 우리 한 가문에 광영일 뿐아니라 또한 詩客韻士들이 風月을 읊는데도 도움이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여 어찌 웅장하다 않을 것인가. 이번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은 俊述, 丁述과 泰保, 泰炯 등이고 (都有司) 총책임자는 丙述이었다.

<己丑 1949년에 후손 泰佐는 삼가 기록하다>

2. 南陽亭



谷城邑 東山里 동산부락 좌측에 있다. 단층의 골기와 팔작지붕에 정면2칸 측면1칸의 대청형 건물이다. 亭의 記文에 의하면 善山人 東岡 金泰有의 7世祖인 處士公이 東山の 山上에 東山亭을 세웠는데 名賢들의 記 詩文이 後生들을 감동시켜, 1944년(甲申年)에 金泰有가 東山亭의 아래에 그러한 先子들의 유업을 추모하는 뜻으로 세웠다고 한다. 1989년에 중수하여 亭의 보존상태는 대단히 좋은 편이다.

1) 謹次

遊杖尋眞日載陽 新亭烟景望中長 好古諸葛躬耕地 更把青蓮晚酌觴
一帶晴江如佛界 千秋黃石證仙鄉 推知世世能承繼 寶樹庭前集衆芳

<前議官 蘭圃 梁吉永 稿>

지팡이 짚고 眞黑 찾아간 따스한 봄날씨에
 새 정자 풍경은 바라볼수록 아득해
 예 諸葛亮이 몸소 밭갈이 하던 땅을 좋아했고
 만년엔 靑蓮(이태백)의 술잔을 다시 잡았어
 온통 맑은 강은 부채의 지경 같았고
 천만년간 누린 돌빛은 仙鄉이라는 증거야
 대대로 잘 계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어
 寶樹(아들)와 衆芳(후손)들이 뜰앞에 모았으니까

<議官을 역임한 蘭圃 양길영 지음>

2)

東山亭屹又南陽 新舊閑庭白日長 暮讀朝耕修世業 秋霜春露感時觴
 善州四老賢門裔 聖苗三仁勝地鄉 風雨于今無恙△ 依然欄桷兩全芳

<晚松散人 徐鳳翔 謹稿>

동산정 높아높아 南陽亭도 좋고 좋아
 한가로운 뜰방앞에 햇별이 길고 길어
 밤엔 글 읽고 아침엔 밭갈이 하면서 世業을 닦았고
 봄 가을 서리와 이슬 내릴적엔 계절을 느낀다네
 善州에 네 늙은이는 어진 가문에 후손이요
 聖苗아래 三仁이 태어났으니 명승지 고을일세
 비바람 속에 지금까지 무사히 보존되었으니
 난간과 서까래가 그대로 온전하누나.
 晚松 서봉익 삼가 짓다.

3) 謹次

一室暄明直向陽 晚來斯築意深長 回瞻邱壑思親淚 笑指煙波勤客觴
 丹鼎異方貞却老 浴川華族世爲鄉 板頭題列文章句 △△春葩競衆芳

<晚回 吳汶植 謹稿>

온 집안에 밝은 태양이 비쳐주니
 만년에 와서 이 정자를 세운 의미가 깊은가 보다
 선산을 되돌아 보면서 아버이를 생각하는 눈물을 흘리고
 파도를 손짓하며 웃으면서 손님에게 술잔을 권했어
 丹鼎의 특이한 지방에 늙은이들 정직하고
 浴川은 화려한 씨족이 대대로 사는 고을일세
 좋은 글귀 차례로 쓰인 현판은 있는데
 봄날씨에 꽃송이들은 다투어 뿔내는구나

<晩回 오문식 삼가 짓다>

4) 謹次 南陽亭板上韻

結亭樓息碧江陽 不向時流較短長 春草依靡迎客路 香花浮動對人觴
 琴書溢架非塵界 魚鳥忘機是別鄉 上有先亭能△美 東山風物永遺芳

<一軒 趙敏植 謹稿>

정자를 세워 거처하는 푸른강 남쪽에
 시류를 向하여 길고 짧음을 비교하지 않았어.
 손님을 맞이하는 길목에 봄풀이 무성하고
 손님을 전하는 술잔에 꽃향기 떨구나
 琴書가 가득하니 속세가 아니며
 魚鳥들이 기를을 잊었으니 유별난 마을일세
 위에있는 선조의 정자 아름답게 지켜오니
 東山에 풍경이 영원히 꽃다워라

5)

隱如諸葛臥南陽 可惜君頭白髮長 少識仙方多製藥 老醒塵夢歎捐觴
 玩賞何須求異域 名區必是擅吾鄉 繼續家聲賢子得 庶幾不朽萬年芳

<欄圓 林圭 謹稿>

은둔한 諸葛亮이 남양초당에 누어있는것 같은데
 그대의 머리에 백발 긴것이 가엽구나
 젊어서는 仙方에서 많은 약을 재배할줄 알았고
 속세의 꿈을 켜 늙은 나이에 술잔들고 한탄했네
 구경할 것을 어찌 다른 곳에서 求할 것인가
 이곳이 명승지라고 우리고을에 알려졌어
 현명한 자손들이 가정의 얼 이어가니
 아마도 꽃다운 향기 천만년 없어지지 않을거야

6)

雙亭屹立一江陽 勝日登臨望眼長 門柳得眠元△夢 山縈流在李仙觴
 雲歸烟散明沙野 犬吠鐘聲兩地鄉 借問臥龍何世事 見今欄檻△副芳
 < 梧岡 鄭淵徹 謹稿 >

큰강 남쪽에 높이 서있는 두정자를
 좋은날 올라앉아 바라보는 눈 아득하다.
 문앞에 버들가지 우는 모습은 元氏의 꿈이요
 산경치 흘러내리니 이태백의 술잔일세
 구름과 연기 흩어지니 명사십리 들녘이요
 개는 짚고 종소리 울리니 양쪽에 마을이 있어
 물어보자 臥龍 선생은 어느 세상에서 일을 했을까
 난간가에 꽃다운 빛 이제야 보았구나

3. 玉壺亭



곡성군 곡성읍 描川里에 있다. 『谷城郡誌』에 의하면 申根, 丁日興, 丁日鈺, 丁舜泰, 梁元錫, 梁寅默, 曹相基, 丁日泳, 申正洙, 梁友錫 등 10인이 詩契를 조직하여 1895년에 정자를 지었고, 縣監 李文榮이 亭名을 지어졌으며 奇字萬이 記를 썼다고 한다. 곡성군지 石遇 丁日宅과 梧岡 金正昊의 詩가 한수씩 수록되어 있으며 『谷城鄉土誌』에는 金正昊의 또 다른 詩가 수록되어 있다.

1)

蒲綠榴紅正晚陽 晴郊纔出意先涼 屢回春戀松常暗 再度登臨麥己黃
風景徒垂衰世淚 盛名未飲早年香 繁陰細草元無主 隨處休辭共拂裳

亭與吾廬不監遙 小溪知路渡前橋 年豐野客仍相笑 境靜飛仙座可招

千葉般紅迎柚舞 萬松森處聽詩搖 景光流轉人催老 添酒回燈更卜宵
 <石遇 丁日宅>

창초 푸르고 석류빛 붉은 늦은 계절에
 들밖에 나가니 마음이 서늘해
 되돌아보며 그리니 소나무 항상 어른 거리고
 두번째 돌아보니 보리 이미 누렁구나
 세상풍경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건
 일찌기 큰 명성 듣지 못했기 때문일세
 녹음 방초는 원래 주인이 없는거야
 의복을 떨쳐입고 여기저기 구경하리

우리 집에서 정자까지 그리 멀지않아
 어린 종이 길을 알고 앞다리를 건너가네
 풍년이라 농부들 서로가 웃음 빛……
 고요한 이 지역에 신선을 초대할까
 붉은 빛 나무잎은 춤을추는 옷소매 같고
 우거진 소나무 사이로 시음는 소리 들리누나
 덧없는 경광은 늙음을 재촉하니
 밤새도록 등불 밝히고 술이나 마셔보세
 石愚 정일택 지음.

2)

野縣鏡秋景 多般在稻田 閑忙隨分異 聲氣不期然
 佳句輕千戶 秋涼抵萬金 暮歸猶帶醉 倒臥夜燈前
 <梧岡 金正吳>

들녘의 가을경치 참으로 풍요롭다.

벼 밭에 이렇게도 많으니
한가롭고 바쁜 건 분수를 따라 달라지고
소리와 기우는 기약도 없다.

아름다운 글귀는 천편으로도 부족하고
서늘한 가을 기분은 만금도 내던지게 해
날 저물재 술 취해 돌아가
등불 앞에 거꾸러져 누우리다

3)

不嫌衝露不嫌鹿 聞有風光厭後人 樂極於魚志我少 友求如鳥喚君頻
塵慮經心來反去 詩情和睡假成真 林外也應皆熱海 松欄姑合臥容身
〈梧岡 金正昊〉

이슬에 젖는 것도 싫지않아 사슴도 싫지 않아
풍광을 싫어한 사람있다고 들었던가
고기메와 매우 즐거워 하는 나를 아는이 적고
벗을 찾은 꾀꼬리처럼 그대를 자주 불렀어
때문음 생각때문에 글읽을 마음이 오려다가 되돌아 가고
시를 생각하다가 깊히 즐았으니 거짓 참을 이루었네
술밖에는 웅당 더위가 훗훗할 것이니
술 난간에 누워서 이몸 편히 쉬는게 좋겠어

4. 反求亭



곡성읍 학정리에 있으며 1961년에 鄉人들에 의해 建立.

1) 記

文本乎禮義則武之所由起也而每禮爲之節故君子之有事也重文而次武焉今夫射者足是不仁之具而文之以禮樂是孔子所以稱有禮而可淨也穀城之俗素崇文邑之射園廢久人不思其所以修復但戶以誦經史之書焉癸酉春郡之人士與論咨諏合謀建事始爲社射之所主於始終者族人錦夏專幹厥績至於財布鳩于衆也有堂室廳事之美足以講藝而爲儀也因名其所曰反求亭實取諸夫子之言也蓋尤嘉哉易曰弓矢者哭也射之者人也君子藏器於身待時而動此非曰藏利器于身而動也言講學修藝成君子之器而後可以出而當天下之事也若反求諸己而我無足以當于其道也當敬身

誠意而益修之其不達也將不休也其達之也必守之而毋失也是方可曰成器君子哉豈是射之一事爲君子之所可務而止也試視哉今天下不仁之具填躓陸海將耀及星斗之墟而不可量也以是藝謂之武也雖婦孺必笑其莫能有爲也謂之戲也此又決非君子之所可居也何不體乎其義踐乎其禮反其不仁以歸諸仁而求夫子之微意而事于宗旨也夫然後宜文宜武而君子之成器也凡此爲亭之義而余演爲之記

〈癸酉秋八月亭之落成二十五日 錦城 丁珍 識〉

□ 해설

文이란 禮義에 근본을 두는 것이고, 武는 그것을 말미암아 된것으로 매양 禮를 절제로 하기 까닭에 君子가 일이 있으면 文을 소중히 하고 武를 다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화살을 당기는 것은 不仁한 것이기에 禮樂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이르기 때문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의를 갖추고서 경기를 하라고 하였다.

곡성 고을에 풍속은 본래 文을 숭상한 고을이었기에 활을 당기는 단체가 폐지 되지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결속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經書와 史書만을 외었다. 그런데 금년 癸酉 1933년 봄에 곡성고을 유지들이 서로 더불어 논의한 끝에 계획을 같이하여 비로소 활쏘는 장소를 손질하였다.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자는 族人인 錦夏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그 일을 맡았고, 재정까지도 모두에게 거출하였다. 아름답게 준공된 이 집은 족히 써 武藝와 禮儀를 익힐만하다. 因하여 그 건물을 이름하여 가로되 反求亭이라고 한것은 孔夫子(공자)의 말씀을 취택한 것이니 더욱 아름답다. 周易에 가로되 화살이라는 것은 그릇인 것이요 시위를 당기는 것은 사람이니 君子가 그 무기를 몸에 소장하였다가 시기를 기다려 움직인다고 하였으니 이는 利器를 몸에 소장하고 움직인다는 것으로 학문을 강론하고 무예를 닦아 君子의 그릇을 완성한 뒤에 가히 출세하여 세상일을 감당한다는 말씀이다. 만일 자기에게 되돌려 求한 결과 나는 족히 써 그 道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몸가짐을 삼가히 하고 뜻을 성실히

여 그 통달하지 못한 바를 더욱 닦아 장차 계속하여 멈추지 않을 것이요 그 통달한 것을 반드시 지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릇을 이루는君子라고 할것이니 어찌 이것이 단순히 활을 당기는 한가지 일로君子가 노력하는 것에서 멈출 것인가 잘 살펴 보아야 할것이다. 이제 天下에 不仁한 도구(화살)가 육지와 바다를 뒤흔들어 그 빛이 장차 北斗星에까지 미치고 있으니 가히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것을 武藝라고 이른다. 비록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반드시 그것을 능히 할수가 없다는 것을 비웃으니 이를 희롱하는 것이다. 또 결코君子가居할 바가 아니라고 할것이니 어찌 그 義를 체득하여 그 禮를 실천하지 않을 것인가 그 不仁을 되돌려서 仁으로 되돌아 오게 하며 孔夫子(공자)의 미묘한 뜻을 求하여 큰 뜻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대범 그렇게 한뒤에야 文에도 적당하고 武에도 적당하여君子로서 그릇을 완성한 것이다. 이 정자를 세우게된 의의를 내 나름대로 설명하여 記文을 써보았다.

<癸酉 1933년 8월에 낙성식을 갖고 25일에 錦城 정 진은 기록한다>

2) 記

在昔聖王之御世文不可以無武猶武不可以無文故射居藝樂之亞上自澤宮下至州閭覺塾莫不躬行而實蹈非徒爲觀德而已至若旗鼓劍槊後人之所以爲輔者也蓋親上死長之義折衝禦侮之氣默寓於其中隆反叔季法度物事非不該備於方冊而懋實則漸不逮古弛而不張西北之開喜母乃是耶我東尚文則於斯爲盛而業武則反是萎茶不振以至于今日之掃地矣何幸去年春同郡諸章爾不謀同辭曰現今之可以學古者惟講武最先蓋相與勉旃遂治西百步之地建三楹屋背堰而面曠兼有眺矚之勝飲落之日取不怨勝己反求諸己之義扁之以反求洵一世盛舉也乃使俊茂子弟課日習藝矢繳有序禮無怒靄然如睹三英古事恨不能早圖如此也余竊思惟反求者內省也吾志未正耶吾體未直耶何爲以不中也志苟正矣體苟直矣而然猶不中者即力與巧之未臻也益正其志與體而蒸蒸不懈則力猶有所強巧猶有所透目不必注蝨臂不必待猿而何渠遜於古之善射者乎昔日之不中

不足追咎也決矣雖然使諸章甫若八於鬻相之圖則能不參於去者半之烈也歟此可以一思者也又在夾谷之會則能俱左右司馬以反汶陽之田也歟此可以再思者也余年既七旬不得從事於諸章甫之後祈嚮之深不敢不略於頌悉於規

<甲戌二月 日 竹里散人 丁來彥 記>

□ 해설

옛날에 聖王이 세상을 다스릴제 文을 숭상하면서도 武가 없지 않았으며 武를 숭상할때에도 文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활을 당기는 일을 藝와 樂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다. 위로는 泮宮(성균관)으로부터 아래로 고을과 마을에 있는 글방에 이르기까지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한 일이 없었으니 다만 德行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치창검을 익히는 무예에 이르기까지 後人들의 삶에 보탬이 되어왔다. 대개 윗분을 친히 섬기고 대장을 위해 죽는 義로움과 국가를 알보는 적국을 담판으로 꺾어 두려워하게 하는 기운을 그 가운데 묵묵히 담고 있는 것이다. 말세(叔季)를 당하여 법도와 物事가 책 가운데 모두 갖추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만 실지 노력하는 것이 점차 옛날에 미치지 않아 해이되어 세상에 실천되지 않아 西北의 사이에 교육적 혼란이 이와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文을 숭상한 것이 이처럼 융성하였고 武藝는 이와 반대로 예우하는 것이 위약해 振興되지 않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거의 불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거년(1933) 봄에 같은 郡에 사는 선비들이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여 가로되 현재를 사는 우리가 가히 옛날을 배우려면 오직 武藝를 강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일이니 서로 더불어 노력을 다짐하였다. 드디어 읍에서 서쪽으로 百步거리의 지점에 3칸 건물을 세웠는데 뒤에는 방죽이 있고 앞이 넓적하니 겸하여 바라볼만한 경치가 있다.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 「자기를 이긴자를 원망하지 않고 되돌려 자기 몸에서 부족함을 求한다」는 뜻을 담아 反求堂이라 扁額하였으니 한시대에 훌륭한 사업이었다. 이에 준수한 자제들로 하여금 日課삼아 화살을 당기기를 익히는데 차례가 분명히 있고 패자로서 원

망한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 三英古事를 어렵פות이 본것 같아서 일찌기 이와 같이 못한것이 아쉬웠다.

내가 곰곰 생각하니 자기에게 되돌려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성찰한다는 것이니 나의 뜻이 바르지 못한 것일가 나의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한 것일가 어찌하여 명중되지 않는가 뜻이 진실로 바르고 몸 자세가 진실로 올바른데도 명중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힘과 기교가 이르지못한 것이니 더욱 그 뜻과 몸자세를 바르게하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않는다면 힘은 오히려 강해질 것이고 기교는 오히려 투철하는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눈(目)은 기필코 이(蠡)를 注하지 않을 것이고 팔은 기필코 원숭이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니 어찌 옛날에 화살을 잘 당겼던 분들만 못하겠는가. 이전날에 명중하지 못했던 것이 결코 허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선비들로 하여금 만일 巒相(孔子가 활쏘던 곳)의 사단에 들어간다면 능력이 부족하여 그 반열에 끼지 못하고 탈락할자가 절반일 것이니 이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또 孔子의 도움으로 魯나라 定公과 齊나라 景公이 회합했던 夾谷모임에 있어 능히 左右에 있는 무관들을 두렵게 하여서 汶陽의 발을 되돌려 주는 일도 있었으니 이는 두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 나이가 이미 칠십이 되어 모든 젊은이들의 뒤를 따를 수는 없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깊기때문에 감히 법규를 섬실무루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甲戌 1934년 2월에 竹里散人 정내언은 기록함>

3) 顛末

亭之本義는 原記備矣 竊惟 兪대邑之東에 有射亭洞하고 其南에 有鄉射坪하니 古之六藝是尚에 射之有亭이 明矣 러니 歲久事弛하야 遂成陳迹者亦由於 後來所尚이 不同이라 挽近以來에 世道一轉하야 習射之舉가 處處振作일세 何幸 壬申夏에 同志 梁炳祖 金在 金諸君이 齊唱弓道復興하고 乃謂余曰 君既有意於斯道則請幹是事而勿辭焉 顧余素鶩劣하야 不堪當是務而 僉員之囑이 愈勤에 固辭不獲하야 時則參議하고 暇則習射일세 乃於 治西外比良堤堰之南 松林邊에 權設 蓆幕하야 時聞 弓絃之聲이나 所欠

者는揖讓升降이苦無其處러니越癸酉春에與林喆鎬梁炳旋君으로 詢謨於鄉邑僉君子하야多得同情而亭之築議가始定矣라但以相地適否로遲延數月矣러니歲日仍舊如之何오何必他求아基址則地主金君奎澤이許其使用하고貫革場則竹洞前之荒郊也라起工於同年五月十日하야落成於八月二十五日而乃行全鮮弓術大會三日하야與之衆樂하니於是焉反求亭之顔이始完이요且鄉中父老英俊이間友會合하야一時議事에一時講武하니亭之有助가亦可曰不無라有初克終에費心致力諸氏芳名과及經理方을左開鑣板하야以俟來者之嗣葺하고且備異日亭中故事云爾

<亭之成五年丁丑九月中旬 丁錦夏 誌>

□ 해설

정자가 지닌 본 뜻은 原記에 구비되어 있다. 조용히 생각하건대 읍 동쪽에는 射亭洞이 있고 그 남쪽에는 鄉射坪이 있으니 옛날 文藝를 숭상할때 이곳에 射亭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오랜 세월속에 무예를 닦은 일이 해이 되어 드디어 자취마저 없어졌으니 이는 역시 후세에 숭상한 것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상 인식이 바뀌어 활 쏘기를 익히는 일이 각처에서 振作되었다. 다행하게도 壬申 1932년 여름에 동지인 양병조, 김재금 등 諸君들이 弓道 부흥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일러가르되 그대가 이미 이 弓道를 일으키는 일에 뜻이 있다면 이 일에 주관할 것을 사양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나를 되돌아 볼때 본래부터 웅졸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여러 회원들의 위촉이 더욱 대단하기에 껏 사양하지 않았다. 이따금 의논하는데도 참여했고, 틈만 있으면 활쏘기를 익혔는데 읍 서쪽에 좋은 방죽이 있고 방죽 남쪽 松林가에 장막을 임시로 설치하여 이따금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상호간 읍(揖)을 하고 사양하며 올라서며 내려가는 곳이 없는 것이다. 지나간 癸酉 1933년 봄에 임철호, 양병선 군과 더불어 邑內 모든 선비들과 협의하여 많은 동정을 얻어 정자를 세우자는 논의가 비로소 결정되었다. 다만 적당한 지역을 선택하느라 몇개월이 지연되었는데 모두가 가로되 옛터에 세우는 것이 어떠하오.

어찌 꼭 다른곳에서만 찾느냐고 하였다. 옛터의 地主인 김규택군이 그땅 사용을 허락하였고 관혁은 죽동앞 들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同年 5월 10일에 기공하고 8월 25일에 낙성식을 겸한 전국 궁술대회를 3일간 거행하여 대중과 더불어 즐거워 하였다. 이리하여 反求亭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결정되었으며 鄉中에 원로와 영특한 젊은이들이 서로모여 회의하기도 하고 무술을 익히기도 하였으니 정자가 주는 도움이 역시 없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과 힘을 바친 모든 분들의 芳名과 경리방향은 원편에 개설된 板面에 새겨서 후배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 수리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날 反求亭의 역사자료로 삼고자 한다.

<정자가 완성된지 5년뒤 丁丑 1937년 9월 중순에 정금하 기록하다>

4) 重修記

亭之建後幾閱三十年하니破瓦相繼歲增하고付土散盡風雨하야滲漏日甚이라濕氣浸潤하야腐敗體木甚大하니苟或尋常置之인倒壞顛覆도未幾하야一則背馳先進之創意하고次則泯滅後進之斯道하야難免後人之嘲笑러니思至於此에心身悚然이라雖然이나己無獨擔之力하고兼無社會之望하야窮思之餘에呼訴于邑中諸彦矣러니料外에贊意爭至하야無難遂成重修之完璧이라諸彦之德이重코大矣로다依左鏤錄諸彦之芳名及次支決算하야以備後日參考之費하고△益謝 厚意之萬一云爾

<檀紀四二九四年九月·日 谷城壽星堂代表 丁璟夏 識>

記無順

金參千환 丁璟夏 金五千환 申台植 金參千환 林箕△ 金五千환 金奎澤
金五千환 鄭援朝 金參千환 丁奉翰 金參千환 金光永 金參千환 申宗雨

—이하 略—

□ 해설

정자를 세운 뒤 3십년을 지냈으니 기와가 깨지고 付土가 흩어져 빗물이 날로 새었다. 습기가 젖어들어 재목이 부패되었으니 만일 그대로 방치한다면 몇달이 못되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첫째는 정자를 세우신 선배들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후배들의 학문도장이 없어서 후인들의 조소를 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매 마음과 몸이 두렵기만 하였다. 그러나 나 혼자 감당할 힘은 없고 겸하여 社會의 협조 바랄 수 없어 곰곰 생각한 나머지 邑中에 모든 선비들에게 호소하였다. 생각 밖에 많은 협찬금이 모아져 어려움 없이 손질을 끝냈으니 선비들의 도움이 크다. 선비들의 芳名과 수지결산을 左와 같이 새겨 뒷날 참고 자료로 삼을 것이고 선비들의 厚意에 더욱 감사한다.

<단기 4294년(1961) 9월에 곡성 壽城堂 대표 정경하 기록하다>

5) 上梁文

兒郎偉湖下奧區海東中縣俗尚六藝可知君子地鄉志在四方用藏武夫之器嶽能靈水能氣人皆選物皆真反古于今求勝於昔迺營執射之圃亦關遊藝之場輪輿渠渠駿又迄迄進退周旋之禮揖讓升降之爭竊惟斯堂義切于世所以命厥秀特講懋人道之當行乘其燕閒馴習古儀於餘力亞技術乎德性先孝友與睦姻正己而用正鵠之志方可授弦射石而專虎之心足以飲羽穹廡欲翼多士如林成合簪采蘋之歡免綿蕤班荆之陋強筋雄柘競能力於穿楊丹楹綺甍鳴空響於飛鏑弦木剡木之利元取諸卦之義出半入半之盃盒慕夫夔相之圖增井閭之壯觀嗟匠石之優工期之遠深創之勤勉非愛鳥號之兮肅慎之矢洵美射社之儀始闢鳳樓之廡雲母之窓殆合觀德之所式頌梁木斯簡清詞遠近皆歡小大俱瞻兒郎偉拋樑東方丈翔如鳥出空記得荆南山澤語射時須用聖人兮兒郎偉拋樑西動樂山高掛偃蹇彎捉橫天如許物人間不忤稱男兒兒郎偉拋樑南一水天生徹底澹請看貓川形性直百年志氣那可貪兒郎偉拋樑北鷄子江來動冥極一讓一謙坎德存滿堂

風采可矜式兒郎偉拋樑上七曜循環垂現像戲具不須費居諸正論千古師
 王昶兒郎偉拋樑下后羿由基尤巧者燕再楚材何足爲丈夫成德唯文雅伏
 願上樑之後人彙絕品邑揚澄風因百發百中之才養一喜一懼之孝用張機
 省括之規作涉世檢躬之則崇山修水齊斯堂而入悠久傑士賢輩紹是事而
 享吉昌

<癸酉秋 七月十九日 錦城 丁珍 識>

□ 해설

어영차 호남지방 아래쪽 아늑한 마을이고
 해동 조선에서 중심되는 고을일세
 풍속은 六藝를 숭상하였으니 君子가 사는 고을이라는 것을 가히 알겠고,
 뜻은 四方에 있는 것이니 武夫가 될만한 그릇을 소장하였네
 산은 능히 신령하고 물은 능히 기운차게 흐르니
 사람은 모두다 선발될만 하고, 물건도 모두가 진실하누나.
 옛것을 오늘에 돌이키고, 승리는 옛것에서 찾아야 해
 이리하여 활을 잡는 건물을 경영하니 역시 六藝에서 노니는 장소로 관계
 가 있어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고, 씩씩한 사람들 모아들었네
 나가고 물러나며 두루도는 것이 예절이고, 읍을 하고 사양하며 오르내리
 면서 승리를 다룬다.
 꼼꼼히 생각하니 이 집은 세상에 간절한 뜻을 담고 있어
 연유인즉 그 특수한 인재를 命하여 당연히 행동할 人道에 힘쓰도록 하고
 그 한가로운 틈을 타서 餘力으로 옛 거동을 익히리라
 기술과 德性은 다음인 것이고, 효도 우애와 화목이 우선으로 해
 몸을 바르게 하여 따옥이 눈을 명중시킬 뜻이 확고하여야 바야흐로 시위
 를 잡을 것이고, 돌을 던져 오로지 호랑이를 명중한다는 마음이 안정되어야
 죽히 화살에 낀 것까지 깊이 들어갈 것이다.

활집은 새 날개와 같고자 하는데, 많은 선비는 숲과 같구나
 合簾하여 개구리밥을 캐는 기쁨을 이룰 것이요 본보기로 班荊에 서는 부
 끄러움을 면할 것이다.

힘줄이 강하고 산뿔나무처럼 웅장하여야 그 힘은 능히 버들나무를 뚫을
 것이고, 붉은 기둥과 꼭두선의 기와는 화살촉이 날아가는 소리에 속절없이
 울거야.

弦木과 剡木의 날카로움은 원래 卦의 뜻을 취택한 것이고, 절반은 나오고
 절반이 들어감은 대체로 孔子가 활을 쏘던 雙相땅과 합당해

井閭의 모습보다 더 장관이니, 아~ 匠人과 石工의 우월한 공법일세
 기대감이 멀고 깊으며, 창건하는데 무척이나 근면하였어.

새를 사랑함이 아니겠는가 화살을 삼가하고 엄숙히 함이 아름다움일 것이다.

활을 쏘는 거동은 비로소 鳳樓의 까닥지를 열어놓은듯, 돌 비늘(雲母)
 같은 창문은 觀德하는 장소와 합당하구나.

허리 굽혀 상냥식을 칭송하기 위해, 이 간단한 사연을 노래하니

遠近모두가 환호하고 어린아이 큰 사람 모두가 쳐다보누나.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밀어보세, 방장산 자락은 새가 공중에 나온것 같아

荊南山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활을 쏠때는 모름지기 聖人 다워야 해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밀어보세, 東樂山 높았으니 무지개 걸렸구나.

당진 화살은 하늘을 비껴가는 이와 같은 물건인데, 인간으로 사나이 답다는
 칭송을 듣지않을 손가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밀어보세, 하늘이 일차로 출생한 물 철저히 맑구나

貓川의 형체가 곧곧한 것을 보아라 한백년 기운을 어찌가히 탐낼손가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밀어보세, 動冥 끝에서 순자강물 흘러온다.

한번 사양하고 한번 겸손하는데 坎德이 있으니, 집에 가득한 풍채는 본보기
 로 삼을만 해

어영차 들보를 윗쪽으로 밀어보세, 七曜(해, 달, 水, 火, 木, 金, 土)가 순환하면
 서 형상을 보이누나.

희롱하며 모름지기 세월만 허비하지 말어. 正論이란 천만년 師王처럼 영원

하리라.

어영차 들보를 아랫쪽으로 밀어보세, 후예의 말미암은 터 더욱 교묘하누나.

燕再와 楚材를 어찌 족히 하잘것 있어. 장부의 成德은 오직 학문이 아름다워야 해

엎드려 바라노니 상양을 올린 뒤 훌륭한 사람 모여들어 상호간揖을 할제 맑은 바람 일어나네

백반 백중의 재주를 보여주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효심도 길러진다오

기틀을 벌려놓고 括弧의 법도를 살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을 검찰하는 원칙을 지었어.

높은 산과 길게 흐르는 물과 같이 이 건물 수명도 영원할 것이고, 호걸스런 선비들도 이 일을 바탕으로吉하고 창성하리라.

<癸酉 1933년 7월 19일에 錦城 정진은 기록함>

6) 記

谷之爲邑雅號巖僻其人氣多沈弱除耕稼外惟文學之是崇而昧於武事之竝用可欲也況事之盡禮樂而立德行者莫射之若者乎先進多講是而未果目今生存競爭武備滿天下邑中男子有志於其所有事者騰騰以是病焉去年秋丁君錦夏慨然謀同志鳩若干財物土於城西外比良偃之南爲亭三楹成之不月扁以反求蓋取諸射者仁之道也求正諸己正而後發發而不中不怨勝己反求諸己而已者之語也落之日數郡畢至設燕講射進退周旋遵先王之彝訓揖讓升降合君子之今儀蓋觀者如堵牆依然矍相之巖際矣丁君以諸君子之意屬余曰子亦先進之亞也益一言以記其未果之志也余作而歎曰噫噫悲夫臣焉而失臣鶴民焉而失民鶴士焉而失士鶴馴致今日之我邦者我輩人豈以草野藿食而必辭其責乎此之反求恐不在第二義仰又有一說焉今天下技巧日淫汽機走海陸槍砲蔽雲日雖破竹懸莎之巧拂蜻落雁之奇似不能角其技而逞其藝此古今兵情之異也學古而不知變是非越人射乎以諸君子之精於穀當推類以盡其餘矣此可以廢裘點而爲揭解

而語之一助否若夫射之爲義諸君子已良遂矣余何必訥訥然惟前言之是勑

<惟甲戌四月上泮 浮海 梁泰基 謹稿>

<癸未六月下泮 不肖孫 炳善 謹奉書>

□ 해설

곡성이라는 고을이 아름다우면서도 궁벽하기에 그 사람들의 기세가 연약한 분이 많아 발갈이하는 일밖에는 오직 문학을 숭상하였으므로 武事를 병용하는데는 어두운 편이었다. 더구나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 禮와 樂을 극진히 하고 德行을 확립하는 것이 활을 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까닭에 많은 선배님들이 이 일을 강론하였을 뿐 성과가 없었다. 생존경쟁을 하고있는 오늘날 무예가 세상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邑內 사내들이 이 사업에 뜻을 있었으나 날뛰고 설치니 이것이 병통이었다.

지나간 해 가을에 丁錦夏군이 힘을 내어 동지들과 모사를 하여 재물을 약간 모았다. 서쪽 밖 比良偃 남쪽에 3칸 정자를 한달도 못되어 완성을 하고 이름을 反求亭이라고 한것은 대개 활을 쏘는것은 仁者의 道인 것으로 바름을 求하는 것이니 자기를 바르게 한뒤에 발사하고 발사하여 명중을 못하였다 해도 승자를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에게서 求할 뿐이라는 말씀에서 뜻을 취택한 것이다. 낙성식을 거행하는날 두어고을 선비들이 모두 이르러 와서 잔치를 베풀고 활을 쏠제 나가고 물러오며 두루도는 예절을 先王의 교훈에 따랐으며 揖을 하고 사양하며 오르고 내려가는 것이 君子들의 거동에 부합하였으니 대개 바라보는자가 마치 담장과 같아 분명 孔子가 활을 쏘던 嬰相 땅에 응성한 모습이였다. 정금하군이 모든 君子들의 뜻으로써 나에게 당부하여 가로되 선생님께서는 역시 先進들의 다음가는 분이니 한마디 말씀을 더하여 그들이 결과를 못맺은 뜻을 기록하라고 하였다. 내가 한탄하여 가로되 아~ 슬프도다. 신하가 신하의 위치를 잃고 백성이 백성의 위치를 잃으며 선비가 선비의 위치를 잃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

들은 그대들이었는데 어찌하여 초야에 묻혀살면서 그 책임을 사양하였는가 이것도 자기에게 돌이켜 求하는 第二의 뜻이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뿐만아니라 또 하나 할말이 있으니 요즈음 세상이 기교가 날로 크게 발전되어 (蒸汽機関) 자동차와 배등이 바다와 육지를 달리고 기치창검이 구름과 태양을 가릴 정도였으니 비록 위세가 등등한 활숨씨의 교묘함과 잠자리와 기러기를 떨어뜨리는 기특한 숨씨이지만 능히 그 재주가 비교될 수 없으니 이는 옛날과 지금에 병사들의 감정과 연구가 특이함이다. 옛것을 배워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인간을 초월하는 활숨씨가 아닐 것이다. 모든 그대들은 더욱 정력을 쏟아 당연히 미루어 그 남아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이는 가히 藪點에 이어 禍鱗까지를 언급한 것이니 一助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대범 활을 쏜다는 의미는 모든 그대들이 이미 잘 설명하였으니 내가 어찌 반드시 더듬 더듬하여 말하겠는가 오직 이 말씀에서 끝낼 것이다.

<甲戌 1934년 4월 상순에 浮海 양태기 삼가 기록하다>

5. 景思亭

『全南大觀』·『곡성향토지』에 의하면 곡성읍 新基里에 徐永修가 先祖의 추모를 위해 세웠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浴川續志』(天)에 李舒의 詩가 한수 전한다.

1)

洞壑荒涼幾恟塵 後來粧點正須人 雲藏盤谷誰爭所 地秋靈源客問津
巖鳥低回仍上樹 林花的歷自留春 試看景思亭扁額 閭里皆知是孝親
〈知縣 李舒〉

마을이 쓸쓸해 몇번이나 난리를 겪었으니
뒷날 반드시 단정할 사람 기다릴거야
구름이 감춘 盤谷인데 누가 다룰 것인가?
땅이 비장한 靈源인데 손님이 물어보아
밀을 맴도는 巖鳥는 나무위로 올라가고
화려한 꽃나무는 봄을 멈추게 하구나
한번쯤 景思亭 扁額의 뜻을 새겨보아
마을사람 모두가 어버이께 효도할 것을 알거야

6. 晚翠亭

谷城읍 新基里 순강변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全南大觀』에 의하면 栗谷 李珣에 師事받았던 延安人 野隱 李賢이 宣祖 壬辰年에 이곳에 내려와 정자를 짓고 樓息之所로 삼았다고 한다. 『곡성향토지』와 『누정총람』에 창건자 李賢의 시가 전한다.

1)

大野東頭結小亭 一江如畫四山青 晚林濃碧風吹帽 漁火翻紅月滿汀
 老去劬經心自定 春來喚酒夢頻醒 幽居更有長吟地 蘭菊無塵兩洗庭
 <주인 野隱 李賢>

큰 들 동쪽에 조그마한 정자 세웠는데
 온 강물 그림같아 사방산천 푸르구나
 늦어가는 숲에 푸르름이 짙었는데 바람은 모자에 불고
 고기잡이 불은 번쩍인데 달은 물가에 가득해
 늙어가며 글 공부에 힘쓰니 마음 저절로 안정되고
 봄이오자 술을 부르며 꿈을 자주 깨었네
 깊숙히 살면서 시 읊은 건물을 다시 세웠는데
 난초와 국화에 먼지 없는건 뜰에 비를 뿌림일세

7. 淸溪亭

『곡성군지』에 의하면 玉果 동쪽 20리 지점, 곡성읍 新基里에 폭포가 있는데 그 源頭에 큰 盤石이 있어 이곳에 淸溪 梁大樸이 정자를 세웠다고 한다. 『浴川續志』(天)·『玉果縣志』에도 간단한 기록이 전하고, 『조선후남지』 『곡성향토지』에 詩가 한수씩 전한다.

1)

路入淸溪古洞天 短筇雋處碧蘿懸 一區雲物三清地 萬壑風雷百道泉
 山鬼夜窺金井火 水禽秋宿石磯煙 令人忽起凌虛思 不踏丹梯便是仙
 <梁大樸>

맑은 시내 옛 마을을 들어가는 길 찾아

지팡이 잡고 찾아간 곳에 푸른 다래 달렸구나
 이 한구역 雲物은 三清(玉清, 上清, 太清)의 지역이고
 일만 구룡에 風電은 百道の 샘이었는데
 山 귀신은 밤마다 金井에 불을 엿보고
 물새는 가을이면 石磻 연기에서 자는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허공을 날 생각을 일으키니
 丹梯(선정에 올라가는 새다리)를 밟지 않고도 이곳이 선경일세

2)

江到亭前一絕奇 梁公忠節水心知 隱身初若深山老 倡義曾於此地爲
 白彼石何無語立 清斯水亦有流時 精靈陟降今應在 醉我之杯聽我時

정자앞에 강물 흐르니 제일 좋은 절경이라
 梁公의 충절은 水心과 같다는 걸 알았어.
 몸을 숨긴 처음엔 깊은 산 늙은이와 같았는데
 일찌기 이땅에서 의병을 일으켰어
 저 白石은 어찌하여 말없이 서 있는고
 이 맑은 물도 역시 흐를때가 있구나
 오르내린 영혼이 지금도 웅당 있어서
 내 술잔에 취하시고 내 詩 읊는 소리도 들으실거야

(作者 없음)

8. 月華樓

客舍 북쪽에 있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조선후남지』(二)·『浴川續志』(天)·『읍지』(四·五)등에 樓名만 전하고, 『조선후남지』(二)·『곡성향토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 柳洵의 詩가 실려있다.

1)

樹陰交夏月華遲 風度高樓四座宜 萬壑浮嵐朝霽後 拂簷霏翠夕陽時
留連光景非無酒 陶冶心情最有詩 可笑一行拘忌甚 幾番深阻好襟期
〈左相 柳 洵〉

나무그늘은 여름을 만났는데 달빛은 더디는데
바람 스쳐간 높은 다락 앉아 놀기 사면으로 좋아
일만구룡에 안개는 아침 뒤에 떠있고
저녁때엔 푸르름이 처마를 떨치는 구나
광경속에 오래논건 술 아닌것이 없고
심정을 달래는 건 시 읊는게 가장 좋아
웃음구나 행동하는데 꺼림이 심해
몇번이나 좋은 마음을 깊이 막아버렸어

9. 晚學亭

谷城읍 竹洞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全南大觀』·『浴川續志』(天)에 의하면 곡성현감을 지낸 晚學 徐赫이 退官후 이곳에 移居하여 지은 것으로, 鄉土宗族들의 講學之所였다고 한다. 『浴川續志』(天)에 徐赫의 詩 두수가 전한다.

1)

因留茲土卜幽居 月夕風朝興有餘 京洛故人如問我 漁樵暇日臥看書
〈主人 徐 赫〉

이땅에 머물기로 하고 살터를 접지하니
달 밝은 밤 바람부는 아침마다 여흥이 있어

서울 친구가 만일 나를 묻는다면
고기잡고 뭍 나무하며 쉬는날에는 누어서 글을 보았다고 해

2) 又

溪岑隱吏欲何爲 耕織暇餘又讀詩 鄉夢穩成公退後 席香方爛客來時
大明山下清風細 智異峯頭皓月遲 美俗茲州三近古 官梅自落晝陰移
〈主人 徐赫〉

산수속에 은둔한 官吏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밭갈이 하고 남은 시간엔 詩文을 읽은거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꿈이 평온하고
방자리 향기 물씬 풍기니 손님이 오실때였네
대명산 아래 맑은 바람 살살 불고
지리산 봉우리엔 하얀달 살며시 뜨고
이땅 아름다운 풍속이 옛날에 가까워
광청에 매화 저절로 떨어질제 낮 그늘 옮겨 가네.

10. 永守亭



오곡면 오지7리에 있으며 1826년경 安濟遠氏가 建立.

1) 記

書曰慎厥身修思永傳曰守孰爲大守身爲大生人之所以永念厥德而克受其稟受之理者壹是皆以修身爲本修身之道原於正心推之齊家而自家而推則鄉黨矣一家之人各修其身則一鄉之家齊矣一鄉之人各齊其家則一國之鄉正而天下平矣所謂觀於鄉知王道之易易也粵自周官之法教而三物八刑之教無聞大學之道廢而三綱八條之法不明是而鄉無善俗士失操守駸駸然日趨於紊亂在宋藍田呂氏之所以特立鄉約而朱夫子增損其制爲一代之盛事泊吾東退陶李先生立溫溪契約而琴公蘭秀之夫浦里契皆其遺意也余之無似輒不自量竊嘗有志於斯而遷延玩愒未果而已老矣

歲壬戌春以洞事適參會席因念縱不行之於一鄉猶可施之於一里遂諭于衆曰吾儕幸生禮義之方尚猶及見先生長者之遺風而略知修身之方矣夫何世趨漸下鄉俗日敗眩於名利蔽於物慾甚至於普蔑行義浸淫術數者多有之若此不已則其不近於禽獸者無幾矣可不懼哉願與同志仰采古制俯合時宜設爲大同契糾正風俗興起禮讓如何僉曰唯唯於是立契索載百有餘員定約目凡十有二條亦不可無以時講會之所故遂構亭於村之東南麓顏之曰永守匪謂守其亭也所以守其契也守其契者所以守其身也凡我同約之人各守其身在家而永言孝思處鄉而守其操尚則匪獨斯亭之永久不朽吾鄉之俗其亦永有辭於後世而知所以遵守之方矣勗哉同盟盍相慥慥
修契新亭與衆同 斯文至樂在斯中 八條箕井涵遺澤 四目藍田挹古風
求友春山啼好鳥 來賓秋水漸高鴻 願言永守無他意 日月先華左海東
〈大統二百三十四季 壬戌春三月 德庵 安濟遠識〉

□ 해설

書經에 가로되 그 몸 닦는 것을 삼가하여 길이 지킬것을 생각하여라 하였고 孟子에 이르기를 지킨것 가운데 무엇이 큼이 될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큼이 된다고 하였다. 인생이란 길이 덕을 생각하여 하늘이 준 그 이치를 능히 받은 것이니 한결같이 모두다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몸을 닦는 道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근본하는 것이니 그것을 이루어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집안으로 부터 이룬다면 온 겨레를 다스릴 것이다. 한 집안에 사람들이 각각 그 몸을 닦는다면 한 마을에 가문을 가지런히 할 것이다. 한 마을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면 온 나라가 울바를 것이며 지구촌이 태평할 것이니 이른바 마을 풍속을 보면 王道가 쉽게 행하여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周나라 官制의 법이 무너지면서 부터 三物과 八刑의 가르침을 들을수가 없고 大學의 道가 폐지되면서부터 三綱과 八條目的의 법도가 밝지않아 마을에는 아름다운 풍속이 없고 선비들은 지켜야 할것을 잃어버려 날마다 빠른속도로 문란하게 되었다. 宋나라때 藍田呂氏가 특별히 鄉約을 세웠는데 朱

夫子께서 그 制度를 손질하여 한 시대에 盛事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退溪 이선생이 溫溪契約을 세웠고 琴蘭秀님이 夫浦里에서 契를 닦았으니 이 모두 그가 남긴 뜻이다.

인간답지 못한 내가 문득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찌기 이일에 뜻을 두고 서두르다가 지연이 되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미 늙었다.

戊戌 1862년 봄에 마을에 일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고 因하여 생각해 보았다. 비록 善行은 한 고을에 행하여지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한 마을에는 시행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우리들이 다행히 禮義가 있는 지방에 태어나 어른들이 남기신 풍속을 지켜보고 몸을 닦은 방향은 약간 알았다. 어찌하여 세상 民道가 날로 낮아지고 마을 풍속은 날로 무너져 명예와 이익에 눈이 어둡고 물욕에 가려 심지어는 의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술수에 빠진자들이 많이 있다. 이와같이 멈추지 아니한다면 새 짐승에 가깝지 아니한자 거의 없을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아니한가. 바라옵건대 同志들과 더불어 옛 제도를 발취하고 시대적 여건에 합당하게 하여 大同契를 창설해 풍속을 바로잡고 예의와 사양하는 풍속을 일으키는 것이 어떠하느냐고 하자 모두가 가로되 좋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契案을 확립하고 契員 일백여명을 기재했으며 約目을 결정하였으니 모두 12조목이 된다. 또한 계절 따라 모여 契事를 닦을 장소가 없어서는 아니되겠기에 드디어 마을 동남쪽 산자락에 정자를 세우고 이름하여 가로되 永守라 하였다. 이 뜻은 그 정자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 契를 지키자는 바이다. 그 契를 지키자는 것은 그 몸을 지키자는 것이니 나와 약속을 같이한 분들은 각자 그 몸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가정에 있어서는 영원히 효도 할것을 생각하고 마을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면 이 정자만은 오래도록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을 풍속 역시 영원한 후세까지 이어져 지켜갈 방향을 알것이니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나와 함께 맹세한 同志들이여 어찌 서로 힘쓰지 않을 것인가.

새 정자에서 契닦는 일 모두와 함께 하니,

우리들의 즐거움이 이 가운데 있구나

箕子가 남긴 八條目에 듬뿍 젖었고

藍田呂氏의 四條目은 옛풍속 끌어당겼어
 벗을 求한 봄산에 피꼬리 우는데
 손님으로 찾아온 가을 기러기 높이 날아
 말하자면 영원히 지키자는게 다른 뜻이 없어.
 해와 달이 왼쪽바다 동편에 먼저 빛났으면 해

<壬戌 1862년 봄 3월에 德庵 안재원 기록함>

2) 記

湖南以人物之盛當都會之間其俗輕△織嗇好巧趨利大較相類惟谷不然谷處于一區專方丈清淑之氣民淳而業文碩儒名官磊落輩出彬郁之風蔚然可觀矣世級日降趣向寢弛老師宿生凋零殆盡知縣者役役乎簿書約束之間不之暇顧舊俗漸醜以習爲常不爲巧利之歸者幾希後生末學不知有醇醜敦愿之美將於何可考述而勸勉焉安君濟遠晦軒先生之雲孫筋躬劬經一省之善士也慨然惟是之懼與二三同志謀遠慕白鹿院規藍田鄉約廼置一齋以爲講會修契之所設約條十二使鄉黨之人善者相勸於斯不善者相規於斯名其亭曰永守契曰大同其立法斯望之意厚且遠矣噫我東偏壤也羅麗之際彝倫之敦久矣惟晦軒先生崇尊夫子始倡吾道使東土含生之類得知綱常之正義利之辯於是乎典章文物倣擬中華其功大矣后孫今又扶植儒術砥礪禮俗一鄉之士俾免販夫工匠之賤其有補於世教豈小小哉嗚呼先生可謂有孫也夫余俗吏也何容贅說於其間然既嘉多士之出力勸學且以謂余知縣而屬筆辭不獲竊有所感於心者請以茲鄉之約卜之也好之如菽粟信之如金石薰陶厭飫漸摩成就則遠邇觀感必爲之則效矣用之于全省使織巧之俗一變爲敦愿脫然如△寐之得醒則其大同永守之多願何如也然則匪惟湖南而已勉乎哉

同學同居是大同 衣冠會坐一鄉中 樓成赤壁蘇仙歲 人有藍田呂氏風
 隣里觀聽多化蠹 俗生名利等輕鴻 縣官但識登臨美 翠竹明沙錦水東

<崇禎紀元後四 壬戌仲夏下泮 達城 徐箕輔識>

□ 해설

호남은 人物이 많은 고장인데 혼란시기를 당하여 그 풍속이 경박하고 인색하며 교묘한 것을 좋아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서로 같았다.

오직 곡성은 그렇지 않았다. 곡성은 오로지 방장산의 맑은 기운을 받아 민심이 순후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큰 선비와 유명한 관직이 계속하여 배출되었고 빛나는 풍속을 가히 느껴볼 수가 있었다. 최근 世道는 날로 낮아가고 백성들의 방향이 어둡기만 하며 훌륭한 스승들은 거의 다 죽었고 고을을 맡은 군수는 簿書에만 주력하며 약속한 사이에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옛 풍속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습관을 떳떳한 것으로 알아 기교와 이익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자 거의 더물다. 뒤늦게 태어나 배움이 없는 내가 수수하고 돈독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가히 참고 하여 후배들을 격려하며 권장할 것인가

安濟遠군은 晦軒先生의 후손으로 몸을 닦고 학문에 힘써 한 고을에 착한 선비로 알려졌다. 오직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두세사람 동지들과 더불어 먼 옛날 白鹿洞 書院 規約과 藍田呂氏 鄉約을 실천하기 위해 이에 건물 하나를 두고 모여서 학문도 강론하고契를 닦는 장소로 삼았으며 12條約을 실시하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善한자는 서로 이를 더 잘 지키도록 권면하고 不善한자는 서로 이 規約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 정자를 이름하여 가로되 永守라 하였고 그契는 大同契라 하였으니 그 법도를 세워 기대하는 뜻이 크고도 멀다.

아~ 우리나라는 지구 동쪽 한편에 있는 땅덩어리이다. 신라와 고려 때에는 인간의 떳떳한 倫理가 무너진지 오래되었다. 오직 晦軒선생이 孔夫子(공자)를 높이 받들어 우리 儒道를 비로소 주장해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三綱 五常의 올바름과 義와 利의 구분을 알게 하였다. 이리하여 법도와 문화가 중국에 버금가게 하였으니 그 공로가 크다. 그 후손이 이제 또 儒學을 붙들어 확립하고 예의와 풍속을 익히게 하니 온 고을 선비들이 工匠과 같은 미천한 신분을 모면하게 하였으니 그 역할이 세상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찌 적고적다고 하겠는가. 아~ 선생께서는 훌륭한 후손을 두었다고 하겠다. 나는 관리로써 이 정자에 무슨 말을 더 할 것인가 그러나 多士들이

힘을내어 학문을 권장하는 것을 이미 아름답게 여겼는가 하면 나를 군수(知縣)라 하여 記文을 써주라고 하기에 사양하다가 하는 수가 없었다. 조용히 마음속에 느낀바가 있으니 이 고을 鄉約은 菽粟과 같이 좋고 金石과 같이 믿음직하다. 이를 실증이 나도록 음미하여 점차 成就한다면 먼데서나 가까운데서나 보고 느끼며 반드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 鄉約을 全道內에 사용하여 오염된 풍속으로 하여금 돌아난 풍속으로 변하게 할것이고 잡자리에서 깨어난 것 같을 것이니 그 大同契와 永守亭의 많은 도움을 무어라고 설명하겠는가 그렇다면 오직 호남일뿐 아닐 것이니 大同契員들은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이어 시 한편을 읊는다.

함께 배우고 함께사는 이것이 대동단결
衣冠을 갖춘 선비들이 마을 가운데 모여 앉았네
蘇仙이 놀던 적벽같은 곳에 다락을 이루었고
사람들에겐 藍田呂氏의 바람이 있구나
이웃마을까지 보고듣고 감화된자 많아
명예와 이익을 가벼운 기러기털로 알았네
관원들은 登臨하여 아름다운 것만 알아
푸른 대나무와 명사십리 錦水 동쪽이랴오

<壬戌 1862년 5월 하순에 곡성군수 達城 徐箕輔 기록하다>

3) 記

凡亭觀臺榭△多△集游息之所其命名則固不一而足而亭以守名守在亭乎守在人乎曰守不守人也非亭之爲則其守之也有永有不永亦在乎人此永守亭之所以作也余按其圖亭在湖南穀城之錦溪之上其邦人安君濟遠慨然有志于古謀與同開趙洵吳章淳柳正摸盧錫彥洪有成高光臣安濟學柳廷植吳啓烈及近百諸章甫鳩得若干財而營度于斯亭既成具十有二條而詔之其勸德業而規過失交禮俗而救患難即呂之鄉約之繼也凡約中之事無大小一聽於都正都正非年德弗居擇里之賢者而副於正者爲二人

又有直月司貨之稱以之錄其善而治其簿每仲月之望觴于是亭而申講△蓋山水登臨之美花竹禽魚之樂視遠近諸名亭或相甲乙而若其與仁讓而敦風矯習可以裨補世教而有所持守又諸亭之所未覩也嗟乎彼翼然而檳梅者即不過十笏之事而其後來成毀之有關於一鄉盛衰者顧何如也抑又思之是亭也奚特有關於一鄉而止哉苟使遠近縉紳章甫之倫觀感於此各置一亭於所居而守之以此則是守之者家而守之之效愈博守之之道愈久而永矣豈少補云乎聊以是說遂爲之記聞是記者庶又相知茲鄉之多君子人也

〈癸亥 仲秋 醉箕 洪在詰撰〉

□ 해설

무릇 정자와 樓臺가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노니는 곳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실로 한결같지 않다. 정자 이름을 守로써 하니 지킨다는 것이 정자에 있는 것인가 지킨다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지키고 지키지 않는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지키는 것이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는것이 또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이 永守亭이 그러한 의미에서 지어진 것이다.

내가 그 도면을 살펴보니 정자가 호남땅 곡성고을 錦溪위에 있다. 그 지방 사람 安濟遠군이 옛날 풍속에 뜻을 두고 同志인 趙洄, 오장순, 유정모, 노석언, 홍유성, 고광신, 안제학, 유정식, 오계열 몇 인근에 사는 모든 선비들과 더불어 재물 약간을 모아 이 공사를 경영하여 정자가 이미 낙성되고 鄉約 十二條를 갖추었다. 그 내용인즉 德業을 권장하고 잘못을 서로 바로잡으며 禮俗으로 서로 사귀고 환란에 서로 구원한다고 되었으니 곧 呂氏의 鄉約을 계승한 것이다. 鄉約속에 관계된 일은 크고 작은 것 구분할 것없이 한결같이 都正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 都正은 나이와 德이 높은 분이 아니면 都正이 될 수 없으며 마을에서 현명한 분을 선택하여 副正 두사람을 삼고 또 直月과 司貨라는 명칭을 두어 그 사람의 善行을 기록하여 그 장부를 정

리하여 해마다 2월 15일이면 이 정자에서 술잔을 마시며 契事를 토론한다. 대개 山水의 아름다움과 꽃과 대숲과 새와 고기메들의 즐거워 함은 遠近을 막론하고 모든 名亭과 비유해 볼때 서로 甲乙을 다룰만 하다. 그 정자에서 인자하고 사양하는 학문을 일으켜 풍속을 다지고 폐습을 바로잡으니 가히 세상 교육에 도움을 주며 지키고 있는 것이 또다른 정자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아~ 저 우뚝 솟아난 서까래는 곧 수십개에 불과 하지만 뒷날 이 정자가 완전하고 무너진 것이 온 고을에 흥망 성쇠와 관계가 있으니 돌아보건대 무어라고 설명을 하겠는가 아니 또 한번 생각한다면 이 정자가 어찌 특별히 한고을에만 관계가 있다는 것에 멈출 것인가. 진실로 遠近에서 살고있는 관원과 선비들로 하여금 이 정자를 보고 느끼게하여 각자 거주한 곳에 정자를 세워 이 법칙을 지키게하면 집집마다 이를 지킬 것이다. 지킨다는 효력이 더욱 넓고 지켜가는 길이 더욱 오래오래 같것이니 어찌 사회교육에 도움이 적다고 하겠는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드디어 記文을 쓰노니 이 記文을 듣는다면 이 고을에 선비가 많다는 것을 서로 알것이다.

<癸亥 1864년 한가위에 醉箕 홍재철 엮음>

4) 記

谷城安生秉祐以余再從姪玉果守書來永其永守亭記仍出示其亭圖及契帖曰亭吾鄉諸章甫之所創而春秋暇日約鄉人士講學修契于斯倣藍田鄉約白鹿洞規之遺意焉余見亭在其居之隣不數百武而限以清流蔭以榆柳竦以峙者爲巖坳而亭於其上四望曠然登臨觴詠固其宜也諸君不專以此爲亭之名而永守名之其意寄所重在於講學修契也美矣哉主人之意也後之君子居于斯以講修爲務則其守之永烏可量也亭與吾先祖德陽書院纔隔一岡余或因事南遊祇排于院下將以幅巾杖屨轉登斯亭與諸君子遊有日矣

<癸亥仲秋 東陽 申錫愚撰>

□ 해설

곡성사는 安秉祐군은 나의 再從姪인데 옥과까지 나를 찾아와 그 永守亭記를 부탁하고 인하여 그 정자 도면과 契帖을 꺼내 보이면서 가로되 永守亭은 우리 고을 모든 선비들이 세운 건물인데 봄과 가을 두차례 쉬는날 고을 선비들과 약속을 하고 이 정자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契事를 닦으니 藍田呂氏의 鄉約과 白鹿洞學規가 남긴 뜻을 본받은 것이다. 내가보는 도면에 의하면 정자는 그가 거주한 이웃에 있는데 거리는 수백보에 지나지 않으며 맑은 물이 흐르고 느티나무가 있으며 높다란 언덕에 바위가 깔려있고 그 위에 정자가 있다. 사방을 바라보면 확트여 있으니 정자에 올라 앉아 술잔을 들고 시를 읊기가 매우 좋다. 모든 그대들이 이 풍경을 담아 정자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永守라 이름 하였으니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소중하다는 것은 학문을 강론하며 契事를 닦는다는 것이다. 아름답기만 하다. 主人의 뜻이며 뒷날 선비들이 이 정자를 거쳐하면서 학문을 강론하고 契事를 닦는 것이 힘쓴다면 그 지켜가는 것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어찌 가히 헤아릴 것인가. 永守亭은 우리 선조 德陽書院과 더불어 겨우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내가 혹이나 일이 있어 남쪽을 유람하게 되면 장차 행전을 동여메고 지팡이를 짚으며 이 정자를 올라가 모든 선비들과 더불어 노닐 그날이 있을 것이다.

<癸亥년 한가위에 東陽 申錫愚 엮다>

5) 重修記

浴川縣治東五里許天德山下錦溪之上有亭焉德庵安處士濟遠暨一鄉同志之士趙涇吳章淳柳正模盧錫彥洪有成高光臣安濟學柳廷植吳啓烈諸君子營立乃取虞書身修思永之永鄒傳守身爲大之守合以名之曰永守於是泰酌藍田鄉約及白鹿洞規定爲十二條蓋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十難相恤其大綱也以每歲四仲月講信修睦于斯亭時復遊焉息焉諷誦焉歌詠焉使近者孺染而觀感遠者邀靡而興起此大學所謂一家興一國興載記所謂移風易俗者也亭之作豈尋常臺榭樓觀之此哉余嘗讀鳳凰臺詩如三山半落青天外二水中分白鷺洲岳陽樓吳楚東南坼乾坤日夜浮之

句未嘗不奇其逸才而顧何補於修治之萬兮有一哉不過爲騷人墨客之往來今尋之地而已其可與永守之亭此而同之哉亭之作久而傾頽德庵之胤秉衡又與其鄉人趙昌駟洪在基吳邦烈盧光燁安在國重修之此眞肯構肯堂者也德庵之孫重變跋涉千里謂余記其事

〈統天隆運肇極敦倫聖上十六年己卯三月祈麥實

正憲大夫前行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

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經筵日講官 陽川 許傳 記〉

□ 해설

곡성고을 동쪽 五里 남짓한 곳 天德山 아래 錦溪 윗쪽에 정자가 있는데 德庵 安處士인 濟遠 및 한 고을에 살고있는 同志 선비인 趙涸, 吳章淳, 柳正模, 노석언, 홍유성, 고헩신, 안재학, 유정식, 오계열 등이 세운 것이다. 虞書에 身修舍永이라는 永과 鄒傳에 守身爲大라는 守를 합하여 永守亭이라 이름하였다. 이리하여 藍田呂氏 鄉約과 白鹿洞 規定에 바탕을 두고 十二條를 두었으니 대개 德業으로 서로 권하며 잘못을 서로 바로잡아 줄것, 禮俗으로 서로 사귄것, 환란에 서로 구원한다는 것이 큰 綱領이다. 해마다 사계절 가운데 仲月에는 이 정자에서 학문을 강론하고 契事를 닦으며 노닐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글을 암송하기도 하며 노래를 읊조리기도 하여 가까이 사는 선비들로 하여금 듬뿍 젖어 보고 느끼게 하며 먼곳에 사는 자들은 소문을 듣고 흥기하도록 하니 이는 大學에서 이른바 한 가정이 일어나면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戴記에서 이른바 풍속을 바꾸어 놓은다는 것이니 이 정자를 세우는 것이 어찌 경치만 즐기는 보통 정자와 같다고 하겠는가

내가 일찌기 鳳凰臺 시에서 「三山은 절반이나 푸른하늘 밖으로 솟아났고, 두곳으로 흐르는 물은 白鷺洲에서 나누어진다」 글귀와 岳陽樓 시에서 「吳나라와 楚나라는 동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있다」는 구절을 읽고 일찌기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기지 아니한 적이 없었는데 되돌아 보자면 그 글귀가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도움이 萬分

之一이라도 있었나는 것이다. 騷人墨客들이 무심코 오가며 찾아든 정자에 불과했을 뿐이니 그 정자를 永守亭과 더불어 같다고 하겠는가 정자를 지은 것이 오래였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德庵의 큰 아들 秉衡이 또 그 고을 사람 조창일, 홍재기, 오방렬, 노광엽, 안재국 등과 더불어 다시 수리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조상이 유적을 잘 계승한 것이다. 德庵의 손자 重燮이 천리 길을 달려와 나에게 그 사실을 기록해 주라고 하였다. (以下畧)

<己卯 1879년 3월 藝官吏인 陽川許傳이 기록함>

6) 永守亭重修序 并八景詩

穀城之南錦溪之上有永守亭其邦人安德庵濟遠講修鄉約之所也時則有若趙涇吳章淳柳正模洪有成盧錫彥高光臣安濟學柳廷植吳啓烈諸君子以一鄉善士同聲立契謀所以永修之方此亭之所由作而洛中諸公多以詩文獎誦之蓋湖南一時盛事也歲月稍久檐楹易退德庵之胤秉衡懼其愈久而愈廢也與同志趙昌駟洪在基吳邦烈盧光燁安在國詢謀而重修之制作規模無侈前人不廢後觀其所受於家庭者然也亭有約文簡而有節嚴而有法醇厚儒雅有足以治人化俗蔚△古君子遺風永守名亭之意於此可見而當初創始之規不亦偉乎亭有八景春秋暇日登臨嘯傲匪直爲考槃永失之樂必也約束期會之間清心澄慮優游宣暢以勸其永守之意者歟然而亭之守不守不在亭而在乎鄉約約之永不永不在約而在乎其人則△未知鄉中章甫咸守古規不犯舊約一如先長老在溪山無恙風景不殊而春秋登臨考槃永失之樂亦不減舊時高尚△噫倡之者難而修之者亦難蹄然數楹視爲堂構之法則其意豈徒然哉朝講白鹿之規而夕焉△之夕遂藍田之約而朝焉失之則能使月日而改林易椽固不足爲美所謂亭之八景林慙澗愧而已永守命名之義顧安在哉諸君子其勉之

<釜堂 洪遠植 謹稿>

□ 해설

곡성읍 남쪽 錦溪위에 있는 永守亭은 그 고을 人士인 德庵 安濟遠이 鄉約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이다. 그 당시 趙源, 오장순, 유정모, 홍유성, 노석언, 고광신, 안제학, 유정식, 오계열 등이 같은 고을에 사는 善士로써 소리를 같이하여 契를 설립해 영구히 닦아갈 방향을 생각한 끝에 이 정자를 지은 것이다. 洛中에 모든 선비들이 많은 詩文을 지어 찬미하였으니 그당시 호남에서 훌륭한 일이라고 하였다. 세월이 조금 오래되면서 기둥이 쉽게 물러나자 德庵의 아들 秉衡이 그 정자가 더 오래가면 더욱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同志인 조창일, 홍재기, 오방열, 노광엽, 안재국 등과 더불어 의견을 같이하여 정자를 다시 수리하였다. 그 제작한 규모는 이 앞분이 하는 것보다 사치스러운 것이 없고 뒷사람들이 불만한 것은 빠트리지 않았으니 그것은 가정에서 받아 그러한 것이다. 정자에 鄉約文이 있는데 간략하여 절차가 있고 엄격하여 법도가 있으니 그 내용이 醇厚하고 儒雅하여 죽히 사람을 다스리고 풍속을 변화 할 수 있다. 옛 선비들이 남기신 바람이 능름하여 永守亭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에 가히 느껴볼만 하니 당초 창작할때의 규모가 또한 위대하지 않는가 정자주위에 八景이 있으니 봄과 가을에 쉬는날에는 정자에 올라가 휘파람을 불며 즐거이 놀았다. 이는 곧 은둔하여 山水의 사이를 거닐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고 모인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맑게하여 만족하게 노닐면서 길이 지켜야 한다는 뜻을 권장함인가 싶다. 그러나 정자를 지키고 지키지 못한 것은 정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鄉約에 있으며 鄉約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알 수는 없지만 이 고을 선비들은 모두가 옛 법규를 지켜 옛 鄉約을 犯하지 않아 돌아가신 어른들과 같이 하여야 할것이다. 溪山이 변경된 것이 없고 풍경도 달라지지 않았으니 봄가을에 올라가 거닐며 즐긴다면 또한 옛날 고상한 정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 처음에 창설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수리하는 것도 또한 어렵다. 높다란 두어간의 구조를 살펴보니 그 뜻이 어찌 허무한 것이었을 것인가 아침엔 白鹿洞規를 강론한 것을 저녁에 藍田呂氏의 鄉約을 알았던 것을 아침에 잃어버린다면 계절따라 화초가 바뀌고 서까래를 바꾼다 해도 진실로 아름답

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정자에 八景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니 永守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돌이켜보건대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모든 선비들은 그것에 힘써야 할것이다.

<釜堂 흥원식 삼가짓다>

丁丁樵斧響山阿 知是仙翁舊欄柯 歸路斜陽歌有思 一林松桂白雲多

<屏巖樵歌>

나무꾼의 도끼질 소리 들려오는 산 언덕
알고보니 이곳은 신선이 사는 옛 난간 나무가지였네.
저녁노을 돌아가는 길에 노래 생각이 있더니
소나무와 계수나무에 흰구름 많구나.

(이 시는 屏巖에서 들려온 나무꾼의 노래소리)

取適漁翁傍水居 劇△夜火富春如 蘆花楓葉三更月 隔崖星光點點疎

<鶴江漁火>

때를 만난 물가에 고기잡이
찬란한 등대불 富春과 같구나
갈대꽃 신나무잎에三更달 밝았는데
그 많은 별빛은 차츰차츰 사라져

(이 시는 순자강 고기잡이 등불)

輪臺紅日淡平朝 霞彩濛濛近更遙 只爲幽人共幽睡 似桃如綺未全消

<輪臺朝霞>

輪臺에 붉은 해살이 아침을 밝히는데
안개빛 침침하여 가까웠다가 다시 멀어

다만 出人을 위해 함께 깊이 잠드는 듯
복숭아도 같고 비단도 같아 없어지지 않구나

(이 시는 輪臺에 안침안개)

仙岑宜月月宜能 誰送金輪出海頭△ 使淑雲來點綴 五更人在水邊樓
〈方丈秋月〉

仙岑에는 달이 알맞고 달은 흐르는 물에 알맞아
늑가 보냈나 金輪(달)이 바다위에 솟아나네
맑은 구름 찾아와서 여기저기 얼렸으니
五更밤에 물가 다락에 사람들 있어

(이시는 方丈山 가을달)

溪邊楊柳綠初齊 和雨和風入眼迷 或恐尋春來俗客△ 教烟△ 幕東西
〈錦溪烟柳〉

시냇가에 버드나무 처음으로 푸르러
비바람과 함께 어울려 눈안에 드누나
두려운건 봄경치를 찾아온 나그네가
연기속 버드나무를 東西로 갈라 버릴가 싶어.

(이 시는 錦溪에 연기낀 버드나무)

一雲晴川淨眼花 明沙如雲渺無涯 朝朝曠曠生虛白 失△ 長洲鷺影斜
〈蓼川明沙〉

구름개인 시냇물에 눈시울이 깨끗하니
맑은 모래 구름같아 아득하여 끝이 없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반짝인(虛白之氣:伊川の 제자에 관계된 고사) 기운 생겨날제

아득한 물가에 백로가 가는 길을 잃어버릴는지

(이 시는 蓼川에 밝은 모래)

龍城城外暮雲飛 雲過△歸雨脚△ 江上漁樵△△路 △濛不刻濕人衣
 <龍城歸雨>

龍城 밖엔 구름이 날아가듯

구름은 돌아가고 빗줄기 멈추었어

강위에 돌아가는 길목에 고기잡이와 나무꾼

어둠속에 옷자락 젖은 줄도 모르나봐

(이 시는 龍城으로 돌아가는 비)

幽居雅愛傍禪林 舊暎疎鐘自送音 聞悅雲安曾悟道 淡空何必入山渠
 <林寺暎鐘>

질간 곁에 조용히 살면서 어린 숲을 사랑한건

밤마다 종소리를 저절로 보내줌이야

들으니 雲安스님이 일찌기 道를 쫓았는데

淡空은 어찌 반드시 산속으로만 들어 가려해

(이 시는 道林寺 밤 종소리)

7) 永守亭詩并序

永守亭穀城縣梧枝里鄉約之所縣古無亭縣人安趙盧吳柳高洪諸軍君子創之諸君子隱居行義讀書好古憫縣小而僻陋謠俗日△概然有志於鄉約廼倡里中同志發文士林其目尊經術序齒德殖貨穀助哀慶凡於疾病水火盜賊之患慰籍救恤之方靡不容極井井有條理僉謨既同復鳩合若干財擇山水之勝構一亭於洞近以四仲之月携酒與魚會刊亭上講質所業勸誠善惡賓主獻酬讌飲而罷一鄉風動莫不△礪自修觀感興起焉嗚呼鄉約即

禮教之原而世有陞降節文儀則寄在虛文鮮有真知而力行者雖或有意於行之者亦未嘗有同心而助成之者爲鄉黨自好之士獨善其身而止耳今諸君子乃能於幾百年廢弛之後因文考實治已及人講求退粟兩先生之遺則于以溯呂氏藍田之舊約酌古參今不失勸規交恤之條例將使永永年代守而勿失不賢而能之乎夫子曰觀於鄉而知王道之易易傳曰禮失之求諸野倘今後來之人登斯亭而顧斯名克推修契之本意一遵今日之約束則斯亭之作奚但爲一時登臨之美其有補於風化之原豈小小也哉諸生其勉之惜乎京鄉路遠余不能與鄉中善士進退揖讓於斯亭之間也安君乘祐來遊京師袖示亭楹八韻余雖未見其景概而喜其創始之規井序而與之

□ 해설

永守亭은 곡성고을 오지리에 있는데 鄉約을 시행하는 곳이다. 이전에는 정자가 없었는데 이 고을 人士 가운데 安, 趙, 盧, 吳, 柳, 高, 洪 등 일곱 姓氏 선비들이 은둔생활 하면서 義를 행동하고 글을 읽으며 옛것을 좋아 하였다. 고을이 조그마하고 궁벽하며 풍속이 날로 변질되어간 것을 민망히 여기고 慨然히 鄉約을 제작할 뜻을 두고 이어 같은 마을 同志들과 선비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목적은 經術을 높히 숭상하고 연치와 학덕에 차례를 두고 貨穀을 식리하며 애사와 경사에 서로 협조하고 질병, 수재, 화재, 도적 등의 우환을 겪을때 구원하는 방향에 있어 최고로 협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분명한 條理가 있었다. 모두와 의견을 같이하여 다시 각각씩 제정을 모아 산수좋은 곳을 취택하여 마을 가까운 이곳에 한 정자를 세웠다. 4계절마다 두번째 달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정자위에 모여 학업을 강론하며 善行을 권자하고 惡行은 징계하며 賓主끼리 술잔을 드리고 이야기하며 마시고 모임을 마치니 온 마을 모두가 보고 느껴 자신을 닮고 興起하지 아니한자 없었다.

아~ 鄉約은 곧 예절교육의 근원인데 세상 교육이 상승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때가 있기때문에 예절문화가 文字에 담겨 있을뿐 참으로 알고 힘써 행동하는 자가 적다. 비록 간혹 행동하는데 뜻은 있지만 또한 일찌기 마

음을 같이하여 助成하는 자는 있지 않았고 마을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야 할 선비들이 홀로 자기몸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일에서 멈추었다. 이제 모든 선비들이 예절이 무너진지 몇백년 뒤 능히 文字를 인하여 사실을 상고해 자신을 다스린 다음 남을 다스리고 退溪와 栗谷두분 선생께서 남기신 원칙을 터득하고 藍田呂氏의 옛 鄉約을 되찾아 옛것을 지금에 알맞게하여 권장하는 규약과 交友, 恤貧하는 조례를 잃지 않아 장차 영원한 年代에 지켜가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으니 현명한 생각이 아니면 능히 하겠는가 孔夫子(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鄉約을 보면 王道가 쉽다는 것을 안다고 하셨으며 傳에 가로되 예절을 잃었으면 시골 野人들의 鄉約에서 찾으라고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뒷날 사람들이 이 정자를 올라 이 정자의 이름을 되새기며 능히 契를 닦는 근본뜻을 미루어 한결같이 옛날의 약속을 따른다면 이 정자를 지은것이 어찌 다만 한때 정자에 올라 경치만 아름답다고 하겠는가 그 풍속을 변화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그대들은 그렇게 하는데 힘써야 할것이다. 아시웁게도 서울과 시골까지의 길이 멀기 때문에 내가 능히 곡성고을 善士들과 더불어 이 정자에 올라 進退하며 掛讓하지는 못하였다. 안병호군이 서울에 와서 노닐면서 정자 柱 시 八韻을 보여주었다. 내 비록 그 정자 경치는 보지못하였지만 그 정자를 세운 취지와 규모가 분명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서술하여 주었고 이어 시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閒雲遲鎌謙巖阿 棋能人間已爛柯 兩兩吹橫牛背笛 山花亂落夕陽多
 <屏巖樵歌>

구름도 쉬고 해도 지루한 鎌巖 언덕에
 바둑 끝내기를 보는 인간이 이미 도끼자루 썩었어(爛柯: 王賈과 信安의 고사)
 들들이 짝을지어 소등에서 피리를 부는데,
 산 꽃이 저녁노을에 어지럽게 떨어지구나.

(이 시는 屏巖에서 들려온 樵夫의 노래를 읊음)

一村強半水扉居 夕氣蒙蒙細雨如 政是荻叢魚子上 不聞人語數燈疎
〈鶴江漁火〉

한 마을이 절반은 물을 사립문으로 삼고 사는데
저녁기운 침침하여 가랑비 내린것 같구나.
이때 갈대밭에 고기떼가 올라오니
사람들의 말 들리지 않고 두어개 등불만

(이 시는 순자강에 고기잡이를 읊음)

一痕殘月不分朝 孤起樓今進更遙 着色山腰工澹抹 散成餘綺未全消
〈輪臺朝露〉

쇠잔한 달 흔적이 분명하지 않을제
외로이 일어나 지금은 있지만 가버리면 다시 멀어져
산 허리에 맑은 빛을 공교롭게 발라 놓았는지
흩어놓은 비단자락 온전히 없어지지 않아

(이 시는 輪臺에 아침 이슬을 읊음)

盡情宵月可憐秋 藻荇松篁一檻頭 海上三山何處是 仙人只在水明樓
〈方丈秋月〉

정겨운 밤달 가엾기만 한 가을에
물가에 풀과 솔과 대가 난간 앞에 펼쳐있네
바다 위 어느곳이 삼신산 일까
신선들은 水明樓에서만 살고 있다오.

(이 시는 방장산에 가을 달을 읊음)

黃金散盡舞△齊 啼送流鶯祿影迷 洞裡烟霞春漠漠 東風吹夢錦川西

< 錦溪烟柳 >

황금을 흩어 놓았나 일제히 춤을 추는 버들가지
외꼬리 우는소리 보내는 구나 푸른 그림자 희미한 속에서
마을속에 안개끼어 봄경치 아득한데
동쪽 바람이 봄꿈을 錦川 서쪽까지 불러왔구나.

(이 시는 錦溪에 연기낀 버들을 읊음)

爭如十里海棠花 水蓼花紅水一涯 片片飛來驚歲晚 江聲走八渡頭斜

< 蓼川明沙 >

명사십리 해당화를 시새움 하듯
여뀌꽃이 붉었구나 물 한쪽에서
기러기떼 날아온다 놀랍군 이 해도 늦어가는데
강물소리 들려온다. 건널목을 비껴서
(이 시는 蓼川에 밝은 모래를 읊음)

縱橫將子水禽飛 一擁流雲樹影稀 銀竹萬壑城畔路 何人歸去綠箕衣

< 龍城歸雨 >

새끼를 거느린 물새는 이리저리 날으는데
구름은 흘러가고 나무 그림자는 드물어
소나기(銀竹) 내리는 일만구룡 城 언덕길을
푸른 우장 둘러쓰고 어느 사람이 돌아가는고.

(이 시는 龍城에 돌아가는 비를 읊음)

點點飛鴉向晚林 清霜一杆自來音 誰知城外寒山寺 楚客歸帆暮雨深

〈林寺暮鐘〉

菴石病叟 沈膺泰謹稿

가마귀떼 날아서 가을 숲속으로 향하여
맑은 서리 외로운 난간에 소리가 들려오네
城 밖에 山寺에 있다는 걸 누가 알것인가
손님 돌아가는 돛단배에 밤비만 깊었어.

(이 시는 도림사에 밤 종소리를 읊음)

(菴石病叟 심용태 삼가짓다)

11. 浣溪精舍



근대 유학자인 안훈(1881~1958)이 21세때(1900) 건립한 서당으로 일찌기 관면우선생의 문하생으로 호는 분암 이때부터 민족사상을 고취 시키기 위해 해방후까지 천여명의 제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1년에는 의병장 이석용 추모비를 건립하려다 일경에 피검 전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룬바 있고 창씨개명 단발령에 항거한 유학자임.

12. 忘憂亭

오곡면 오지리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1) 記

德山一髮透邈東來盤旋回凹有十室之里里之西隅有數笏亭子翼如斯飛揭額以忘憂者即故處士忍齋柳公文達結句遊息之所也概公平生天性恬澹寡欲夷曠沈靜與物無競而家常甚貧草食屢空晏然樂之則必不以憂之不忘爲憂而憂之自忘也明矣迺以忘憂揭名而露出何哉憂之於人盤錯不離若人之著骸結束一事一言百千番無非有憂而飄然不改樂於人不堪之中者聖門顏氏是也此必公之爲嫌於偃然自居不若露出之爲安於心之爲愈故也公之所蘊一此可詳矣登臨有溪山之清遠雲鳥之幽閒長松疎竹彷彿乎如復踏古人之跡而時有佳賓談道賦詩賒酒抱琴蕭散遺懷不知日之將夕而亦不知老之將至何憂之有圖忘而忘之者哉抑有一說焉此亭之有公可以忘憂也而亭之無公不爲不忘憂也者幾希矣公之後孫必有憂忘憂之爲不忘憂者作然後堅礎改棟瓦石幻新永年守其亭而居息焉歌詠焉一遵公之遺規則不忘憂是爲忘憂而樂於不堪中者紹述有人勉矣乎哉

<尹種寬>

□ 해설

德山 한 줄기가 구불구불 동쪽으로 돌고 돌면서 조그마한 마을을 두었다. 마을 서쪽에 두어간 정자가 있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인데 이름을 忘憂라 하였으니 곧 處士이신 忍齋 柳文달님이 시구를 지으면서 노닐던 장소이다.

概要를 설명하자면 公께서는 일평생 타고난 성품이 차분하고 담박하여 욕심이 적고 마음이 넓고 고요하여 남들과 더불어 다투는 일이 없었다. 집 살림이 항상 매우 가난하여 끼니를 누차 걸르면서도 평안히 여겨 즐거워하

며 반드시 걱정하며 잊지 않을것을 걱정을 하지 않으니 걱정을 스스로 잊은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까닭에 忘憂로써 이름하여 들어내는 것은 어찌서 일 까 걱정이란 인간에게 일키고 설켜 떠나가지 않아 사람의 삶과 뼈가 결속된 것과 같이 하나의 일과 하나의 말솜에 백천번 걱정 아닌것이 없지만 아랑곳 하지않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가운데 자신의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 분은 孔子제자에 顏淵이 곧 이분이다. 이는 공께서 언제나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이 싫어서 차라리 들어내어 마음을 편안히 한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니 公의 쌓은바 공부를 이 부분에서 상세히 알겠다. 정자를 올라가면 溪山이 말끔하여 깊숙하고 구름과 새가 한가로우며 긴 소나무와 성건 대숲이 있어 옛분들의 유적지를 다시 답사한 것과 방불하다. 이때금 아름다운 손님들이 찾아와 道學을 이야기하고 시구를 읊으며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안고서 회포를 풀고 해가 장차 어두어진 줄도 알지못했으며 또한 늙음이 이르른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잊을 것을 미리 도모하여 잊은 것일가. 아니다 한가지 설명할 것이 있으니 정자가 있기에 공께서 가히 걱정을 잊을 수가 있었고 정자가 없었다면 공께서는 걱정을 잊지 못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公의 후손들은 반드시 忘憂公이 걱정을 잊지 아니하신 것에 걱정을 두어 계획이 선위에 주초를 견고히 하고 기둥과 기와를 새것으로 바꾸어 오랜 세월 그 정자를 지키면서 거처하고 유식하며 노래도 읊을 것이다. 한결같이 공께서 끼친 법규를 따른다면 걱정을 잊지 아니하면서도 이것이 걱정을 잊고 즐거워 하는 것이며 이를 느끼지 못한 가운데 계승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윤종관 지음>

13. 二樂亭

淳昌人 梅窓 趙大成的 別墅로서 곡성군 梧谷面 梧枝里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趙大成은 一齋 李恒에게 종유하였다. 그러므로 정자의 건립은 조선 明 宣祖대(1560~1600)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李恒 및 趙大成的 詩가 전한다.

1)

靜則閒居動則行 一亭新構寄吾生 立之卓爾仁之性 逝者如斯智者情
兩後看來多怠度 原頭活處本澄清 不知所樂爲何事 只在胸中未可名

<主人 梅窓 趙大成>

고요하면 한가롭고 움직이면 가는것
한 정자 새로지어 나의 삶을 부치리라
새운 것이 특이하니 인자한 성품이고
가는 물이 이와같아 智者의 심정일세
비온 뒤 보아오니 예쁜 태도 많고
솟아나는 원천수 본래는 맑았다
무슨일을 즐거워 한지 알 수가 없어
가슴속에 있을뿐 표현 할 수 없구나

2)

晦跡貞居絕時行 一簞蔬食樂平生 高山聳立輸仁術 活水周流證智情
體驗吾身俱是道 方塘一鑑目澄清 幽人格得無窮義 至理瞭然寄齋名

<一齋 李恒>

자취 감추고 곧게 살며 시국과 인연을 끊고서
채소밥 한 그릇으로 평생을 즐겼네
높은산 솟았으니 仁者의 術을 바치는듯
두루 흐르는 活水는 智者의 정을 깨달았어
은둔한 사람의 무궁한 뜻을 터득하니
지극한 이치 분명 정자 이름에 담았구나

14. 白鷺亭

곡성군 梧谷面 鴨綠里에 있었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한다. 『곡성군지』, 『곡성향토지』등에 李景奭의 시가 실려있고, 『浴川續志』(天)에는 洪南立의 4인의 시가 있다.

1)

峽裡煙波一帶橫 琴歌惱殺別離情 如何落日臨岐處 江水還同塞水名
 <白軒 李景奭>

연기빛 가득 깔린 깊은 골짜기 속에서
 거문고 곡조 이별가에 이내 심정 괴롭구나
 어이타 해질무렵 갈림길에 접어드니
 저 강물이 도리어 변방의 물 이름과 같아

2)

峽路寒雲裡 江流暝色中 誰能畫此景 我見一仙翁
 <白軒 李景奭>

골짜기엔 차가운 구름 아득한데
 검푸른 강물은 흘러만 가누나
 이 광경을 누가 능히 그릴손가
 이 내몸 한 신선을 뵈인듯 해

3) 又

簷外雲巒水面橫 六年重對愜幽情 詩成不敢留題壁 却怕傍人記姓名
 <御使 申 鐔>

처마 밖에 구름끼고 물이 비껴 흐르는 곳
6년만에 다시 대하니 쌓인 정 상쾌하다.
지은 쇠구를 벽위에 감히 쓰지 않으려는데
결에 사람이 이름을 기록할까 두렵구나

4)

眼底溶溶一練橫 風烟隨處總多情 當時亞使今巡使 爲問江白可織名
〈觀察使 李玄記〉

눈 밑으로 한줄기 물 도도히 흐르고
가는 곳마다 산천 풍경 참으로 다정해
그때의 亞使가 지금은 巡使란다
물어보자 강산아 이름이나 아느냐

5) 登白鷺亭次李白軒詩

一片孤槎江上橫 誰知相國遠遊情 問津更灑傷時淚 悔向樽前道水名
〈華谷 洪南立〉

백로정에서 이백헌 詩에 次韻을 지음
한조각 뱀목을 타고 강위를 가로지르며
이정승님 노닌 심정 그 누가 알까
나루터를 물어보고 시국을 한탄하는 눈물을 뿌리고서
매양 술동이 앞을 향해 水名을 이야기 했어

6) 登百鷺亭詠涅峯

涅背將軍立水東 翩△旗幟上雲中 帝王遺法今何在 海外飛來化作峯
〈筍塢 趙宗濂〉

백로정에 올라

涅背에 장군봉이 물 동쪽에 서 있으니
 깃발을 필력이며 구름속을 오르는듯
 帝王이 남긴 법이 지금 어디에 있을가
 바다밖에서 날아와 장군봉이 되었나봐

7) 登白鷺亭與昇平倅共和

旅館曾年別 異鄉此夜同 笑看情豈已 喜劇語還窮
 蓬轉龍山北 萍逢鴨水東 乘槎明日路 離恨不堪濃

<廣胖窩 洪以槩>

백로정에 올라 昇平군수와 더불어 함께 읊음
 예전에 여관에서 이별했건만
 타향에서 이밤을 함께 보내누나
 웃으며 보는데 정 어찌 없을손가
 기쁨을 만드는데 말 주변이 모자라
 龍山 북쪽을 떠돌아 다니다가
 압록 동쪽에서 우연히 만났구려
 아침 해 밝아오면 땀목타고 떠나갈 것이니
 떠나는 아쉬움 감당하지 못할거야

8) 白鷺亭上讀法詩

白鷺亭邊水若空 此遊興廢十年中 玉師降掃前秋恸 禮法還看上古風
 叢竹臨江琴韻碧 晚花着雨錦心紅 詠師彷彿孔門事 十數衣冠兼有童

<惺齋 洪鐘協>

백로정위에서 讀法할때 읊음
 백로정가에 물이 텅빈 것 같아서
 이 놀이 십년간에 흥폐가 있었지
 임금님 군사가 이전의 樹을 쓸어버렸고
 禮法을 다시보니 아주 옛날 풍속일세
 강가에 대숲 있으니 거문고 소리도 푸르고
 늦게 핀 꽃에 비 묻으니 비단처럼 붉었어
 읊조린 것이 孔門에 있었던 故事와 방불해
 衣冠가춘 선비 수십명에 童子까지 곁했나보다.

9) 登白鷺亭

奎仙結社趁清區 暇日風和可浴乎 詩帖紅亭人是晉 桑歌綠水俗因吳
 烟波寂莫魚龍窟 雲壁淋漓峽蝶圖 遠友不來茲信宿 故令酒氣作朱愚
 <春潭 柳元默>

백로정에 올라감
 선비들이 모임을 맺고 깨끗한 지경 찾아서
 쉬는 날 바람이 온화해 목욕도 할만해
 紅亭에서 시를 쓰니 晉나라 사람 놀이요
 綠水가에서 노래하니 吳나라 풍속일세
 적막한 물결속 魚龍이 사는 굴이고
 구름기운이 축축하니 나비들의 그림이야
 먼곳 친구 오지않으니 소식이 끊겼어
 잠시 술 기운으로 하여금 朱遇를 지으리라.

15. 一草亭

『곡성향토지』에 의하면 梧谷面 德山里 德陽祠아래에 있었던 順興人 墳庵 安堦의 講道燕息之所로서 그의 門生들이 세웠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同誌에 安堦의 原韻이 실려 있다. 滄江 金澤榮의 記가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安堦은 俛字 郭鍾錫의 門下에서 수업하였으며 학문으로 저명하였다. 그러므로 정자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건립일 것으로 짐작된다.

1) 原韻

四十琴書始有亭 客來枉設好門庭 花間瀑怒跳珠亦 樹罅山多散笏青
傲骨宜營生處壙 尊魂只在舊傳經 此心獨若終無會 不省人吾孰是醒
〈主人 憤庵 安堦〉

사십년간 글 공부하여 비로소 정자를 두었는데
오신 손님이 門庭 좋다고 잘 못 말씀하구나
꽃사이로 폭포는 붉은 구슬이 성내어 튀는듯
나무 틈으로 산은 푸른 흙기를 많이 흩어놓았어
굳은 뼈는 살았던 흙구덩이에 묻은것이 마땅하고
높으신 영혼은 옛 經傳에 있을 뿐이야
고독한 이 마음 마침내 달랠 곳 없어
남과 나를 살피지 못하는데 누가 이를 깰 것인가

16. 梧石亭



삼기면 의암리에 있으며 1957년경 金道鉉·金周鉉씨에 의해 建立.

1) 記

樓亭有記尚矣要暢其義著其功也舍是而區區於眼前風景而已則之文也奚足有天於樓亭哉浴川曾有金梧隱道鉉醒石周鉉二公以從父兄弟之親嘗師事於吾從祖松沙先生及先生沒治任而歸以所學於先生者授鄉子弟一公沒及門諸子不勝安仰之痛而欲不墮其師之傳者修契立約而務以講信又就二公講學之地揭德于石又亭焉顏用吾石蓋不忘二公之義也既而求當世之能文辭者得記於慎庵安翁翁首稱二公澡潔之行中言及門景慕之深未有惓惓勉焉之義不翅其功著矣其義暢矣雖加以西蜀丹青平泉花石不足爲勝於斯矣更何用雕繪而疊牀哉蓋二公學遠行古處貧窮而不

留情於貨利娛書籍而終其身於林泉蔚然爲一鄉之望亦可謂好家數矣篤於內守而其風猷行治之著於外及於遠者不一而足亦非以勉於己者欲貽謨於後昆也乎於休哉在於倫親至情之地而弟兄而兼師友非公家傳來家法乎可以想當日家庭間相得之意矣其高風凜然百世之下猶使人與起焉則爲其仁公子姓者尤當如何哉願益自念念於扁楣之意則吾知其本立而道生也審矣遂書此以寓景仰之私

<戊戌夏四月 日 幸州 奇老章 書>

□ 해설

樓亭에 記文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정자가 담고있는 뜻을 밝히고 그들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언급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 낱낱히 설명하고 만다면 文章일뿐 어찌 족히 樓亭을 밝히는 글이라고 하겠는가.

浴川(곡성의 옛 이름) 고을에 일찌기 金梧隱 道鉉과 金醒石 周鉉등 두분은 종형제간인데 일찌기 내 종조이신 松沙 선생을 스승으로 섬겼다.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여장을 꾸려 돌아와 선생에게 배운 바를 고을 자제들에게 전수하였다. 두분이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스승이 전수한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고 契를 닦고 규약을 세워 講神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 두분께서 학문을 강론 하시던 장소에 그 학덕을 돌에 새기는가하면 또 정자를 지어 梧石亭이라 현판한 것은 두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뒤에 당세에서 문장을 잘한 분을 찾았으니 安墳庵에게 記文을 얻었는데 墳庵께서 첫머리에 두분의 결백한 행실을 칭송하고 중간에서는 門人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글귀마다 권면하는 뜻이 담겨있으니 그들의 공로를 나타내고 그 뜻을 밝히는 것 뿐만 아니었다. 비록 西蜀에 丹青과 平泉에 花石 일지라도 족히 이 梧石亭보다 낫다고 못할 것이니 다시 무슨 말씀을 더 하리요.

대개 두분은 학문이 깊고 옛분의 행동을 하였으며 빈궁에 處하여도 금전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서적을 즐기며 자연과 더불어 일신을 마치셨으니 훌륭하여 온 고을에 望士가 되었고 또한 가히 좋은 가문이라고 이를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데 독실하였기에 그의 풍채와 행동은 밖에 나타나 먼곳까지 미처간 것이 하나가 아니니 또한 족히 자기를 지키는데 힘써 후손에게 얼을 남기고자 함이 아닌가, 아~ 아름답기만 하다. 至親인 종형제의 처지로서 師友를 겸하였으니 公의 가문에서 전해 온 家法이 아니겠는가 가히 그 당시 가정에서 서로 화목한 뜻을 상상하겠다. 그 높으신 얼은 능름하여 百世 뒤 까지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흥기하도록 하니 두분의 자손되는 분들은 더욱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바라옵건데 扁欄에 담긴 뜻을 더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알기로는 그 근본이 확립되고 道가 생기는 것이 분명하다. 드디어 이와같이 써서 공경하는 나의 마음을 담는다.

<戊戌 1958년 4월에 幸州 기노장 쓰다>

2) 記

梧石亭在谷城三岐面栖鳳里臥牛城即梧隱金公道鉉極中及從弟醒石周鉉明新兩門徒寓慕成者也公之先光山人首山齋諱子進后生而魁梧風儀峻挺文行稱鄉黨早立松沙奇公門嘗名讀書室曰聚星齋教族里子弟數十年不受束修於是門人創契曰聚星每年一行詩會樹碑而頌之弟亦才超學夙不求聞達以教訓爲畢生事業從學者亦設契曰如一以三月上巳吟觴兩契員出入兩門无閒焉兩公每省先墳必逍遙於亭址逮公之沒兩門人及兩胤自丙申秋合謀丁酉二月始設隣里聞風奔役不月而用人千餘勞地亭成扁之曰梧石蓋慕梧隱醒石兩師於一亭也若夫亭之境景自有登臨者正評茲不觀縷云

<丁酉五月夏至節 完山 崔乘心 記>

□ 해설

梧石亭은 곡성군 삼기면 서봉리 臥牛城에 있으니 곧 梧隱 김도현 및 그 종제인 醒石 김주현의 두분의 제자들이 존모의 뜻을 담아 이루어진 정자이다. 公의 선조는 光山人으로 首山亭이신 諱子進의 후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큼직하고 풍채가 훌륭하여 고을에서는 문학을 하는 선비로 일컬었다. 일찌기 奇松沙의 門人으로 글읽은 집을 聚星齋라 이름하고 친족과 마을 자제들을 가르치면서 수십년간 학비를 받지 않았다. 이리하여 門人들이 契를 조직하여 가로되 聚星契라 하고 매년 한번씩 詩會를 가졌으며 비석을 세워 학덕을 기렸다. 그 아우 또한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이 성숙되어 현달을 바라지 않았으며 자제 교훈으로써 일생사업을 삼았다. 그를 따라 배운 제자들 역시 契를 창설하여 가로되 如一契라 하고 3월 첫번째 巳일에는 시를 읊고 술을 마신다. 두 契員들이 두분의 門下를 상관없이 드나들었는가 하면 두분께서는 매양 선조 묘소를 성묘하고 반드시 정자터에서 노닐었다. 公께서 돌아가심에 미처 두분의 門人 및 두분의 아들들이 丙申 1956년 가을부터 타협을 하여 丁酉 1957년 2월에 비로소 착공하였다. 이웃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달려와 협력하였기에 한달이 못되어 낙성을 하고 扁額을 하여 가로되 梧石이라고 한것은 대개 梧隱과 醒石 두분 스승을 흠모하는 뜻을 하나의 정자에 담았다. 정자의 아름다운 풍경은 찾아와 관람하신분들 스스로 正評이 있을 것이니 이 記文에서는 날날히 열거하지 않는다.

<丁酉 1957년 5월 夏至節에 完山 崔병심 기록하다>

3) 記

梧可亭石可亭乎蓋亭之爲名不在物而在乎人之所寓慕於可亭也湖南之浴川有金公諱道鉉字極中梧隱其號也其從弟諱周鉉字明新醒石其號也兩公少有大志不求名達教誨鄉隣子弟所居多薰德自後群弟子互相出入於兩門故互稱先生弟子焉於是乎兩門各設一契曰聚星日如一蓋所以盡生三事一之道而年三四月間圓冠方履坐集講信詠觴彬彬意趣津津焉逮其兩公沒之久多少門生與其兩胤追感其尊慕之義遂相協謀乃於丁酉

春就其先岡下所嘗杖屨之處合兩契貲而始營一亭隣里鄉曲聞風奔役不一月而拓地亭成內中房而夾東西廳前堂而扁兩公之號額從役者又各持異方之奇卉瑤草親自于植而曰此將爲兩先生亭下之奇觀妙玩而先表我心者也吁若其西南山水之勝麗森林之盤鬱與夫亭下百卉之俱芳應有以登臨愛惜而至於兩公數十載德業之所薰陶從此觀感而尤亦追慕勉△不已也歟余在髮髮嘗啓蒙於兩門謀亭之顛末莫余爲詳故忘陋略抄以寓景仰之萬一而周旋其營者門人李鎮宇李圭珣宣鎔植白龍善金南斗姜昌鎬具相祐從姪永翊永宜姪永教兩公嗣胤永達永信甫也

〈丁酉閏八月上泮 金州 金炳祐 謹敘〉

□ 해설

오동나무도 정자 이름을 붙힐만 하고 수석도 정자 이름을 붙힐만 하다. 대개 정자에 이름을 붙히는 것은 물건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존모하는 정신을 정자에 담는 것이다.

호남지방 浴川(곡성의 옛이름) 고을에 김도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字는 極中이고 梧隱은 그 아호이다. 그 종제의 이름은 周鉉이고 字는 明新이며 醒石은 그 아호이다. 두분은 젊어서부터 큰 뜻이 있어 현달을 바라지 않고 마을 子弟들을 가르쳤으므로 두분이 거주한 마을에는 많은 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뒤부터 많은 제자들이 서로가 두분의 門下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선생으로 일컬었으며 제자라고 일컬었다. 이리하여 두분의 門인들이 각각 契를 창설하였는데 하나는 聚星 하나는 如一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生三事一의 도리를 다 할것을 다짐하고 해마다 3·4월 사이에 衣冠을 갖춘 契員들이 운집하여 契에 관한 서류를 닦고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것이 아름다웠고 취지가 津津하였다. 그 두분이 죽음에 미쳐 제자 약간명이 그 두분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 두분을 존모하는 뜻을 느끼면서 서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丁酉 1957년봄에 그분들의 선산아래 그윽한 곳으로 일찌기 두분께서 발자취를 남긴곳이다. 두 契의 자산을 합산하여 비로소 하나의 정자를 세우기로 하자 이웃마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달려와 협력한 결과 일

개월이 못되어 터를 다듬고 정자가 완성되었다. 구조를 설명하자면 가운데는 방이고 동쪽과 서쪽에는 마루인데 두분의 아호를 扁額하여 걸었으며 공사에 참여한 분들이 또 각자 다른 지방에서 자생된 꽃나무를 가지고 와서 손수 심으며 가로되 이는 장차 두분 선생님의 정자 아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먼저 나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 그곳 서쪽과 남쪽 산수의 아름다움과 울창한 숲과 정자아래 수백그루 화초등은 올라가 볼수록 사랑스럽기만 하니 두분께서 수십년간 쌓으신 德業과 교육의 효험을 이 사업에서 보고 느끼어 더욱 존모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 내가 일찌기 두분의 門下에서 아이들을 啓蒙하였으므로 정자를 계획할제 있었던 이모저모를 나보다 더 상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나의 고루함을 잊고 대략만을 간추려 萬分之一이라도 존모하는 뜻을 담았다. 이 정자를 세우는 일을 주선 한자는 제자인 李鎭宇, 李圭珣, 宣容植, 白龍善, 金南斗, 姜昌鎬, 具相祐와 從姪인 永翊, 永宣과 조카인 永教와 두분의 아들인 永達, 永信등이다.

<丁酉 1957년 윤8월 초순에 경주 김병호 삼가 기록하다>

4) 記

憶余年將而立已稔聞金梧隱道鉉及其從父弟醒石周鉉二公妙齡行修于松沙奇微君之門退而以其躬行心得者發諸豪之來求而求者日至合不能容殆三十年所而二公俱千古矣日其上足李圭珣金永教諸君方余于德山之還漣如而道之曰吾師以若瞻敏之才使專攻一藝力與呈身舉子以要儻來者未必其不偶而乃一入法門如棄敝 方諸劉靜春之一見晦翁輒梵藁從事可匹美於千載矣平生不事著述要在實踐視世之多丈無行者不翅俳優然爲其徒者不能無私憾於傳後之圖但玩索有暇以教授後徒爲己任每秋冬之際霜廳戒寒築場圃納禾稼則里中子弟皆許卸役車而就學燈深座稠誦聲達于里巷至今口耳相傳曰吾曹之粗其名姓略治四禮二公之賜也因相與發力修契積久蓄租既鐫珉以紀德今又建亭以爲春秋會講之所名之曰梧石惟執事之文以發之用資顧是而追慕焉今日嗚呼自世之淪也士學先弊寄命口耳徃談空妙工纂組累篇牘卒元與於爲己者非直公之所

不能乃其所永歎而不屑爲也以故雖无皎皎之行赫赫之譽而表網裡錦閣然日章人自信服惜乎其局之嵌岩政乎一家從而永其年學不遂志名不副實使後人有疑於栽培之天也第念所隆乎師者以道之所存也今諸君不惟扁之於楣又當銘之于心參前倚衡視於無形聽於无聲則安得不志其志而學其學乎是真不忘乎子之師而師固无恙矣苟或衰歇則學之不傳師不存矣亭於何有諸君曰唯唯所不如是是言者是亭也亦一在彼之息壤也遂次其說而歸之若夫所謂溪山之勝登臨之適俟余一陟而評之

<惟丁酉 月既望 竹溪 安堦 記>

□ 해설

내 나이 사십에 梧隱 金道鉉 및 그 종제인 醒石(이름은 周鉉) 두분께서 젊은 나이에 松沙 奇徵君의 門下에서 학문을 닦았다는 것을 이미 익히 들었다. 스승의 門下를 물러와 몸소 행동하고 마음속으로 터득한 것으로 배우기 위해 찾아온 분들을 開發 해주니 배우려고 찾아온자를 능히 다 수용할 수가 없었던 세월이 거의 3십이며 이제 두분은 천만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수제자인 李圭珣, 金永教 등 諸君들이 德山 깊은 곳까지 나를 찾아와 이야기하여 가로되 우리 스승께서 보고 듣는 것이 민첩한 재주로 한가지 학문에 전공으로 하였으므로 가끔 찾아온자마다 반드시 짝을 지어 오지 아니한 분이 없었고 한번 法門에 들어가면 마치 현 신을 버린것 같이 하였으니 옛날에 劉靜春이 晦翁을 한번 만나보고 문득 晦翁을 따랐다는 것과 천만년 아름다움을 가히 짝할 것이다. 일평생 著述을 일삼지 않았고 실천하는 것에 중요점을 두었으니 세상에 많은 문장을 쌓았지만 행동이 없는자들을 보면 모양만 내는 배우일 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그 門徒들이 능히 후세에 전할 것을 도모하는데 사사로운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다만 서책의 뜻을 탐구하고 틈만 있으면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삼고 해마다 가을과 겨울 즈음에 차가운 서리바람이 불면 場圃를 쌓아 버를 저장하게 되면 마을에 사는 子弟모두가 役車를 사용하여 마치고 학문을 닦기 위해 등불을 밝히고 뻑뻑히 앉아 외우는 글소리가 온 마을에 들려왔다는 것을

지금까지 서로 傳하여 가로되 우리들이 대충 姓名과 四禮를 알게 된것은 두 분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因하여 서로 더불어 힘을내어 오래도록 계금을 축적해 이미 돌에 새겨서 학덕을 그렸는가하면 이제 또 정자를 세워 봄가을에 모여 강론하는 장소로 삼고 이름하여 가로되 梧石亭이라 하였다. 오직 선생님(愼菴)께서 사용된 자산과 오늘날 추모하는 정신을 글로 써 주셨으면 한다고 하였다.

아~ 세상 법도가 무너지면서 부터 선비들의 폐단이 운명을 口耳에 마끼고 기묘한 공부를 이야기하여 여러편 글을 엮어 마침내 자기를 위하는 학자의 계열에 참여하니 곧 公께서 이를 능히 못한것이 아니고 그것을 길이 한탄하여 좋아하지 않았던 바이다. 이르기 까닭에 公에게 비록 결백한 행적과 혁혁한 명예는 없지만 잘못에 가린 비단 속옷이 아른아른 날마다 문체가 보이듯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였다. 애석하게도 깊은산 골짜기 같은 그 국량으로 한 가정만 다스렸는가 하면 따라서 그 享年도 길지 않았고 학문도 이루지 못해 뜻과 명예가 따라주지 않았으니 실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인재를 가꾸는 하늘을 의심하게 한다. 곰곰히 생각하니 스승을 높인다는 것은 道가 있는 바이다. 이제 그대들이 오직 정자에 扁額만 걸것이 아니라 또 마땅히 마음속에 새기고 이리저리 연구하여 형체가 없는것을 보고 소리없는 것을 본다면 어찌 그 스승의 뜻을 뜻한것이 아니며 그 스승의 학문은 배운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참으로 제자가 스승을 잊지 아니한 것이니 스승은 진실로 아무 근심이 없겠다. 어찌다가 존모하는 마음이 쇠퇴하여 멈춘다면 학문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스승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정자가 어찌 보존될 것인가라고 하였다. 諸君들이 가로되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곧 이 정자를 위함이니 또한 저 息壤 땅에서 秦나라 武王과 武將인 甘茂와 약속한 것처럼 약속하겠다고 하자 드디어 그 설명을 서술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산수의 아름다움은 그 정자를 올라가 보아야 하는 것이니 내가 한번 올라가 보고 논평할 그 날을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丁酉 1957년 윤달 16일에 竹溪 안 훈은 기록함>

5) 八景韻

天宇凉如洗 絳河引丹橫 巧賴織阿手 濯磨玉鏡清 <右通明秋丹>

하늘이 시원하게 씻어놓은것 같은데
은하수가 붉은 단풍을 끌어당겼나
공교롭게 달 귀신(織阿) 솜씨를 빌려
玉鏡처럼 말끔하게 씻어놓았네.

徑夕雲呑日 四山釀雨頻 瀟瀟鷄強半 燭細夜愁新 <右鶴山夜雨>

지난 석양에 구름이 해를 삼키드니
사방 산은 비를 만드느라 쩡그리구나
鶴山에 비바람 세차게 내릴제
촛불 희미한 밤중에 수심만 새로워

忽斷轆轤響 驟烟碧掩扇 隔溪聞一犬 知有客人歸 <右嶋洞炊烟>

갑자기 수레소리 끊기더니
새파란 연기가 부채처럼 가리누나
가로막힌 시냇가에 개짖는 소리 들리기에
길손이 있어 찾아 왔다는 것을 알았어

尚網火如暎 沙黃丹吐汀 耿耿迷茫裡 似螢翻似星 <右星川漁火>

훗 비단으로 가린 불빛은 햇별과 같고
모래는 물가에서 붉은빛을 뱉어놓은듯
깜박깜박 희미하고 아득한 가운데
반디불도 같고 별빛도 같구나

西峯日欲盡 長笛劈雲浮 妙響清商似 追懷趙倚樓 <右馬田牧笛>

서쪽산에 해는 저물어 가고자 하는데
피리 소리는 요란하고 구름은 떠있네
신묘한 소리 말끔하게 들려오니
다락에 기대서서 옛날을 회상하구나

崇祖霞引△ 齊落更飛連 山夜虛空立 遠撐步障天 <右牛城朝霞>

아침 안개가 무엇인가를 끌어당겨
가지런히 떨어졌다가 다시 날아 연이어
산은 높이 솟아 허공에 서서
멀리멀리 하늘을 받히고 있는듯

俄着粉榆底 長三李四村 悠揚雲似海 遽失巷門存 <右玉峯歸雲>

느릅나무(고향) 밑에 잠시 정착하고 보니
張三과 李四의 마을 일러라
아득한 구름은 바다와 같아서
마을門이 있는것도 갑자기 잃어버렸네

蒼屏千障首 無數夕曛紅 空眺桑榆江 笑哉齊景公 <右雪山落照>

<己亥之寓月 穀雨節 坡平 尹準寅 題>

푸른 병풍이 천길이나 높은듯 한데
셀수없이 저녁노을 붉었구나
桑榆江을 덧없이 바라보았으니
우습구나 齊나라 景公의 일이

<己亥 1959년 寓月 곡우절에 地平 윤준인>

6) 營建韻

千載重開以老亭 遺風歷歷水山青 楸松望遠雲生岫 義蔚悲淚月到汀
 寅夕耳提頻入夢 行巾于澤忍披經 藐孤多射諸公誼 高景由來不暫停
 <不肖孤 永信 謹呈>

두분 늙은이 정자를 다시 세우니, 남기신 얼 歷歷하고 산수는 푸르구나.
 별송을 바라보니 먼산에 구름 솟아나고, 슬퍼하며 눈물흘리니 달은 물가
 에 이르르네.

조석으로 귀를 당기며 훈계하신 일이 꿈속에 자주 들어오고, 책보마다 손
 때묻었는데 어찌 차마 책을 펼쳐보겠는가.

외로운 이몸 님들께 많은 감사를 느낀것은 공경한 마음 본래부터 잠시도
 멈추지 않음일세.

7) 上梁文

爲先師彈其誠生三之義 於是乎極矣第待天時之稍安招衆工董其役永
 言之思亦可以偉然爰合地祇之攸佑 竊惟梧石二公 學有淵源 家敦孝友
 承襲文肅公之迷緒夙欽家世之巍然 早服松沙翁之訓鞭亦復門庭之昭暫
 何間教授稼翁之迷範尚存 安豐耕耘董生之孝慈是效 團會謝家之郡徒
 曰接孟氏之芳懽 川澤紆其駭觀三傑之迷風尚存 山原△ 其盈視四時之
 麗景元垠 孝友睦姻一家之政爲首 禮樂詩書四時之教是當 肯構肯堂子
 姓之竭力於龜背 乃文乃武門生之彈誠於輦飛 奚處奚居 苟完苟美將食
 △報必有鄧氏之慶休 教育英才何論嚴公之清介 奚停匠氏之手 用賀修
 樑之儀兒郎偉拋樑東 鶴鶴山頭日正紅多士彬彬燕以樂 一新棟宇告成
 功 兒郎偉拋樑西驛馬交馳樹影低 路上行人相指點 何時丹鳳降梧栖
 兒郎偉拋樑南 洙泗迷風講晦庵 大道如天終不滅 武夷山月照寒潭 兒
 郎偉拋樑北 一派源泉流不息 日夜盈科朝海濱 取其有本洗胸臆 兒郎
 偉拋樑上 翠帶群山拱揖像 墨客詩豪日相從 天開形勝盡元忘 兒郎偉

拋樑下 子姓振振也自詫 修契春秋仰彌高 景行行止願无捨 伏願上樑
之後儒風大振 禮義興新 溯泗洙泗之源流互千秋而无斲 薰陶洛閩之旨
訣經百世而不休

<丁酉 二月 日 咸陽 呂圭澈>

□ 해설

돌아가신 스승을 위해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이 生三事一의 정신이요 이렇게 하여야 지극하다 할것이니, 차례대로 天時의 조금 편안함을 기다린 것이요 여러 工人을 불러 그 공사를 맡기는 것이니 영원한 그 생각 또한 가히 위대하다 하여 땅 귀신의 도움인 바이다.

곰곰히 생각하니 梧隱과 醒石두분은 근원이 있는 학문으로 가정은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네.

文肅公의 실마리를 이어받았으니, 대대로 특이하였음을 일찌기 공경하였다.

일찌기 松沙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으니, 또다시 가문이 밝았어.

어느 시간에 가르침을 받았는지 稼翁의 법도가 오히려 남아있고, 밭같이 하고 김을 메었으니 董生의 효도를 본받은거야

謝氏집안 가족처럼 단란히 모이고, 孟氏의 이웃집처럼 날마다 만났다오.

넷물이 그곳을 감고 돌았으니 三傑의 미풍양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겠고 산자락이 그 터를 감쌌으니 아름다운 광경을 사계절 보겠어.

효도하고 우애하며 인척간에 화목하는 것을 한 가문을 다스리는데 우선으로 삼았고, 禮樂과 詩書를 사계절 가르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삼았다.

조상의 유업을 잘 받들어 자손의 힘을 龜背에 다 하였고, 文武를 익힌 제자들이 다한 정성으로 정자의 모습은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았네.

이 정자에서 거처할 것이니, 진실로 완벽하고 아름답구나.

장차 보답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니 반드시 鄧氏와 같은 아름다운 경사가 있을 것이고, 英才를 교육하였으니 嚴公과 같은 깨끗한 마음을 어찌 의논할 것인가

목공들이여 일손을 잠시 멈추고, 들보를 올리는 의식을 축하하게.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밀어보세, 치악산 머리에 햇살이 붉었구나.
많은 선비 씩씩하게 잔치하며 즐기니 새로운 건물 끝났다고 낙성식을 아뢰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밀어보세, 驃馬는 달리는데 나무그림자는 나직하다.
오가는 길손들 서로가 손짓하니, 어느때나 붉은 봉황 오동나무에 찾아들가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밀어보세, 洙泗(공자)의 아름다운 풍속을 晦庵
(주자)께서 강론하네.

큰 道는 하늘과 같아 끝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무이산 밝은 달이 寒潭에
비치구나.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밀어보세, 한줄기 源泉물이 쉬지않고 흐르네.
밤낮으로 웅덩이를 채워 바다로 들어가니 그 근본을 취택하여 가슴을 씻
어간다.

어영차 들보를 윗쪽으로 밀어보세, 새파란 못 산들이 팔장을 낀 형이야
시를 읊은 호걸들이 날마다 서로 따르니 하늘이 펼쳐놓은 명승지를 어이
짓을손가

어영차 들보를 아랫쪽으로 밀어보세, 자손들 번창하여 저절로 으쓱으쓱하
구나.

봄가을에 췌를 닦으며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으니 공경하는 행동거지 버
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엎드려 바라노니 들보를 올린뒤 선비들의 바람이 크게 멀치고 禮義가 새
롭게 일어나며 洙泗의 근원을 거슬러 가는데 천만년 실증이 나지않고, 洛閩
의 학문을 익히며 百世를 경과하면서 쉬지 않았으면 한다.

<丁酉 1957년 2월에 咸陽 여규철 기록함>

17. 清凉亭



곡성군 삼기면 院嶺里에 위치하고 있으며 1928년 2월에 洞中の 父老들이 협력하여 건립하였다. 단층 팔작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청형이다.

1) 次清凉亭韻

依山臨水枕低阡 隱略新亭古巷前 疎雨桑麻平野外 密陰竹樹曲欄邊
美規正似陳留社 清論時開晉代筵 寄與心中多少語 守成只是在青年

산 자락을 의지하고 물가를 臨한 언덕에
새로운 정자가 옛마을 앞에 어린거리네.

평야밖 桑麻에 빗줄기 설 걸히고
구부러진 난간가에 대나무 그늘 뻑뻑해
아름다운 규약은 陳나라때 모임 같은데
고상한 토론은 晉代의 자리를 열어놓은듯 해
마음 가운데 쌓인 말을 적어 불허주노니
정자를 지키는 건 이 청년들에게 있다오.

18. 連海亭



삼기면 괴소리에 위치하고 있다. 1938年 現地居住 강원식씨의 祖父 在日 僑胞 강창희씨께서 宗中齋閣 노월정과 住民의 休息處로 連海亭을 같이 建立함.

19. 映波亭

『浴川續志』(天)에 의하면 곡성군 三岐面 月境里에 鄭亨瀾, 亨舜, 亨錫, 亨圭, 亨九, 鄭基老, 基泰, 基杓, 基玄등 9人이 세운 棲息所였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同誌에 鄭基老와 鄭亨瀾의 詩가 각각 한수씩 실려있고 『곡성군지』와 (곡성향토지)에 간단한 기록이 남아있다.

1)

詩成屋就共謨年 泉石居然有宿緣 曉露看花春似霧 夕陽捲釣水如烟
青襟透脫休林下 白首尋常夢日邊 自此田園深逸趣 更誰招我歸來篇

<主人 進士鄭基老>

詩文과 건물이 자손을 위한 해와 함께 이루어졌으니
泉石과는 어느덧 깊은 인연 있었네
새벽 이슬 꽃에 묻으니 봄빛이 안개빛 같고
저녁노을에 낚시를 거두니 물빛은 연기빛 같아
젊은이들 시원하게 숲 아래서 쉬는데
백발노인 무심상히 햇볕 가에서 꿈을 꾸어
이때부터 田園에서 취미생활 깊었는데
누가 다시 돌아오라고 나를 부른손가

2)

吾亭幽趣屬閒年 適意逍遙忘世緣 六六晴峰高抱月 三三古逕暗披烟
野人載酒招林下 溪老垂綸釣石邊 澹泊生涯歸晚圃 黃花曉露鶴青篇

<鄭亨瀾>

우리 정자 그윽한 취미 한가롭기만해

상쾌하게 거닐며 세상 인연 있었네
3십6개 봉우리는 높이 달을 안은듯
아홉갈래 옛 길에서 어두운 연기 해쳤어
들녘 사람 술가져와 숲아래서 부르는데
늙은이는 돌가에서 낚시줄을 당기누나
포전밭에 늙게 돌아온 이 내 생활 담박해
국화꽃에 새벽 이슬이 靑篇을 젖는구나

20. 萬石亭(詩友亭)



일명 詩友亭이라고도 하는데, 단층 팔작지붕 평기와 건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대청형 구조로 되어있다. 호남고속도로 石谷진입로 반대편 산기슭, 凌波里 마을의 반대쪽에 있다. 1980년 재일교포 崔三洙의 뜻에 의해 儒林들이 세웠다. 韓石嶼의 上韻一首가 懸板으로 남아있다.

1) 萬石亭板上韻

萬石亭高環境清 時時神道自明明 庭前玉樹常春色 檻外江山太古情
床碑光澤先思慕 牲酒香肥祀事成 惟有三洙弘益德 △今世世遺崔聲
〈癸亥 秋 石谷壽星堂長 韓石嶼 稿〉

만석정 높았으니 환경도 말끔해
사시절 神道는 스스로 밝고 밝아

뜰앞 玉樹는 평상시 봄빛이요,
난간밖 江山은 가장 옛 情일세라.
빛나는 床碑는 선조를 사모함이요,
살찐 고기와 향기로운 술에 제사가 이루어졌어.
오직 三洙가 있어 덕망이 크니
지금까지 대대로 崔氏명성 남았구려.

2) 萬石亭

樹樹雲深萬石亭 有時騷客短筇停 世情翻覆多新局 山色呼園摠繡屏

나무마다 구름깊은 萬石亭에
이따금 시인 묵객 지팡이를 멈추누나.
세상 인정은 이다지도 뒤범벅인데
산빛과 평편한 정원은 모두가 병풍일세.

21. 伴鷗亭



석곡면 봉전리에 있으며 仁祖때 金鑑씨가 建立.

1) 記

白鷗江湖之鳥也生於江湖養於江湖飢食江湖之魚渴飲江湖之水游戲自樂長在江湖之間是故人之處江湖者必與白鷗相伴也今有處士性本樂水立亭於江湖名之日伴鷗亭一間茅屋影落白鷗洲也嗚呼伴鷗亭名不虛語也日照清江白鷗搖影可伴者白鷗也風濤花浪白鷗泛泛可伴者白鷗也烟波十里白鷗浮沈可伴者白鷗也夕陽江天白鷗飛鳴可伴者白鷗也然則白鷗無時不可伴也是以主人因白鷗之可伴而伴之既得其伴而占有江湖之至樂生涯寄一葉之舟事業付一竿之釣自以爲江湖之逸士而以白鷗爲江湖之好伴不但伴之而亦以之而名亭遊於此老於此歌之舞之談之笑之

必於此亭而不離於江湖之伴也然則白鷗無心人自伴之人亦無心白鷗自爲之伴是非無心之伴耶嗚呼無心之伴是爲真伴若夫世間之相伴者不能無心心功名而伴之心富貴而伴之其爲伴豈能長久也哉嫌疑生於須臾雲雨作於反覆平生相伴之心一朝反爲仇讐曷若江湖無心之伴伴春秋而伴之伴朝暮而伴之逍遙於相伴之時俯仰於相伴之日百年相伴不踰相伴之盟哉噫以無心伴之則天下之物無非無心伴也豈但白鷗也哉有客問於余曰主人以伴白鷗名亭與白鷗相伴之真趣何哉主人笑而不答徘徊江上詠黃山谷演雅詩卒章曰江南野水碧於天中有白鷗閒似我又吟伴鷗明沙詩曰沙白鷗亦白主人頭亦白相伴盡同類可謂白之白因書此而識之

〈笠澤 金鑑〉

□ 해설

흰 갈매기는 江湖에서 사는 새로 江湖에서 출생하여 江湖에서 자라면서 굶주리면 江湖에 고기를 먹고 목이 마르면 江湖에 물을 마시며 마음대로 노닐면서 즐기고 오래도록 江湖의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르기 까닭에 江湖에서 거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흰갈매기와 더불어 서로 짝을 삼는다.

오늘날 處士가 있으니 성격이 본래 물을 좋아하며 江가에 정자를 세우고 이름하여 가로되 伴鷗라 했는데 떠돌로 덮은 정자의 그림자가 白鷗의 물가에 비치니 아~ 伴鷗亭이라는 그 이름이 허무한 말이 아니다. 태양이 맑은 강물에 비치면 白鷗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니 가히 짝이 될만한 것이 白鷗이고 바람부는 물결위에 白鷗가 둥둥떠 있으니 가히 짝이 될만한 것이 白鷗이다. 연기긴 십리물결에 白鷗가 떴다 잠겼다 하니 가히 짝을 할만한 것은 白鷗이며 저녁노을 강 하늘에 白鷗가 울며 날아가니 가히 짝이 될만한 것이 白鷗이다. 그렇다면 白鷗는 그때 그때마다 가히 짝이 되지 않을때가 없다. 이러므로 정자 주인이 白鷗와 가히 짝이 될만한 것으로 짝을 하니 이미 그 짝을 얻어 江湖의 지극히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다. 주인의 생애를 一葉 편주에 불히고 사업은 하나의 낚시대에 맡기고 스스로 江湖에 逸士가 되어 白鷗로써 江湖에 좋은 짝이 되었으니 다만 짝이 될뿐만 아니라 정자를 伴鷗亭

이라 하고 이 정자에서 놀며 이 정자에서 들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춤도추며 이야기도하고 웃기도 하기를 반드시 이 정자에서 하여 江湖의 짝이 되어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白鷗는 무심한 것인데 주인이 스스로 짝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또한 아무 마음이 없는데 白鷗가 저절로 짝이 되는 것이니 이는 아무 마음없이 짝이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아~ 무심코 짝이되는 것이 진실된 짝인 것이다. 세상에 서로 짝이되는 것이 능히 마음이 없는것이 아니다. 마음은 功名을 짝할 수도 있고 부귀를 짝할 수도 있으니 그 짝을 하는것이 어찌 능히 오래갈 것인가. 혐의하는 마음도 잠깐사이에 생기는 것이며 구름과 비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일평생 서로 짝이 되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도리어 원수가 되는 것이 어찌 江湖에서 무심코 짝이 되는 것으로 봄가을에 짝이 될만한 것을 짝하고 아침 저녁으로 짝할만한 것을 짝하며 서로 짝이 되었을때 어울리고 서로 짝이 되는날 굽어어보기도 하고 우러러보기도 하며 한백년 서로 짝이되어 서로 짝이 되는 맹세를 저버리지 아니한 것과 같겠는가. 아~ 무심한 것으로 짝을 삼은다면 온세상 물건마다 무심한 짝이 아닌것이 없을 것이니 무심한 짝이 어찌 白鷗 뿐이겠는가. 곁에 있던 손님이 나에게 물어 가로되 주인님이 白鷗와 짝을 하려는 마음으로 서 정자 이름을 伴鷗라 하였는데 白鷗와 더불어 서로 짝을 하는 진실한 취지는 무엇이나고 하자, 주인님이 웃으며 답변은 하지않고 강 쪽을 오가며 黃山谷의 詩를 읊는데 그 시 끝자에 가로되 「강 남쪽 들 물빛이 하늘과 같이 푸르는데 그 가운데 白鷗가 있어 나와 같이 한가로워」라고 되었으며 또 읊은 伴鷗明沙詩에 가로되 「모래 회고 갈매기 또한 회며, 주인의 머리도 또한 회다 서로가 같은 것끼리 짝을 하였으니 가히 회고 회다고 이를 것이다」라고 되었다. 因하여 이 내용을 써서 記文으로 기록한다.

<笠澤 김 감>

22. 月峯亭



石谷面 石谷리에 位置하고 있으며 1952年 石谷面長 김용채氏가 部落民을 動員 建立한 유산각으로 당시 愛國靑年團 및 戰鬪警察의 休息處로 使用키 위해 쓰였던 것이 지금은 部落住民의 休息空間으로 使用되고 있으며 1995年 面費로 補修하였음.

23. 相宜亭



석곡면 연반리 연동에 있으며 1958년 봄 丁大睨·丁大瑑 형제분이 建立했다.

1) 記

愛親敬兄秉彝之所固有萬善皆從此而生三綱六行實權輿於是矣昔人之正身蕙行爲萬世法程乃修此者也先王之協和萬邦俾民物各循其情亦修此者也是道也出於天而具於我求無不得往無不到苟能一念靡懈於友友之地食焉而憂昆季之飢衣焉而慮昆季之寒痛切乎己欣戚視自己仁愛之心洽于內翕和之氣達于外則大可以樹風善俗小可以淑身治家利澤所及容有可量哉噫自今綱倫失教至親之愛化爲道人貧窮也而凌侮患難也而不救情乖勢戾有若薰猶冰炭之不相容是誠何心哉丁君大睨悶時俗汚下而既倒之狂瀾無計可挽與其弟大瑑謀立一亭于屋後扁其楣曰相宜

其意蓋出於宜兄宜弟而可以教國人之義也世之立亭者類皆藏修游息爲計而惟君則昆季曰聚乎斯而踟躕焉顧瞻焉怡怡恍和之氣融融於楹戶之間使觀者油然發好德之良心其旨深哉天下之俗俾一人一家之所可化然天下者亦一人一家之積一家善則可以風於鄉里鄉里善則可以風於州郡州郡善則天下亦何難之有惟願塌簾唱和而洽其歡戒勿相猶而全其義翕然湛樂之氣可偶於古人之怡怡則見之者孰不感其性兮之所固有而反省其身哉然則一線微陽或寄此而來復矣遂書此以告天下之兄弟爲誓而今父母愁者焉

〈乙未季春上泮 玉川 趙敏植 記〉

□ 해설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굳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온갖 善 이다 이를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三綱과 六行이 실로 이것에서 말미암은 바이다. 옛 분들이 몸을 닦고 행동을 깨끗이하여 천만세에 본보기가 되는 것은 이를 잘 닦았기 때문이며 先王들께서 온 나라를 평화롭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심정을 펴게하는 것도 또한 이를 닦았기 때문이다. 이 道理가 하늘에서 나와 나에게 구비되었기에 求하면 얻지 못할것이 없고 가려고 하면 이르지 못한 곳이 없으니 진실로 능히 한결같은 생각으로 우애하기를 게을리 아니하여 음식을 먹을때는 형제가 굶주린가를 걱정하고 의복을 입을때엔 형제가 추위에 떠는가를 걱정하며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자기가 기쁨과 슬픔을 확인하여 사랑이 마음속에 흡족하고 화목하는 기운이 행동에 나타나면 크게는 가히 아름다운 풍속을 수립할 것이고 작게는 몸을 깨끗이 하여 가정을 다스릴 것이니 그 혜택의 미친바를 가히 헤아릴 것인가.

아~ 요즈음 三綱과 五倫의 가르침을 잃어 사랑해야 할 至親이 남과 같이 되어 빈궁하면 업신여기고 환란이 있어도 구원하지 않으며 인정과 형세가 무너져 薰蕕과 水炭이 서로 용납될 수 없는것 같으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겠는가

丁大睨군이 시대적 풍속이 오염되어 이미 狂瀾에 거꾸러져 가히 당길수

없다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그 아우 大瑑과 더불어 집뒤에 한 정자를 세우고 그 정자를 이름하여 가로되 相宜亭이라고 하니 대개 형제간에 우애가 가히 온 국민을 가르친다는 데에서 나온것이다. 세상에 정자를 세운자들이 모두가 편안히 거처할 계획을 하는데 오직 그대는 형제간에 이 정자에 모여 머뭇거리며 서로 돌아보기도 하였다. 화평하고 온화한 기운이 가정에 가득 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德化를 좋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하니 그 뜻이 깊다. 세상 풍속이 한사람 한가정으로부터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변화를 보면 역시 한사람 한가정의 아름다움이 쌓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 가정이 善하면 가히 마을 풍속이 좋아진 것이고 온마을 풍속이 좋아지면 가히 온 고을 풍속이 좋아진 것이며 온고을 풍속이 좋아지면 온세상이 좋아지는데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오직 바라건대 墳簾를 서로 화답하면 그 기쁨이 흡족하여 서로가 그 義를 온전히 할 것이며 매우 즐거워하는 기운이 가히 옛분의 화평했던 마음에 짝이 될것이니 그것을 지켜 본자 누가 그 固有 성품에 감동되어 자기의 몸을 반성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의 실을같은 미약한 陽脉이 이 정자를 바탕으로 다시 울만하다. 드디어 이 내용을 써서 온세상 형제간에 원수가 되어 부모로 하여금 수심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한다.

<乙未 1955년 늦봄 초순에 玉川 조민식 기록하다>

2) 原韻

一棟新亭結水東 而人心事太和中 有時并卓茶常設 每夜連衾枕又同
棠棣對華閑砌露 鶴鴿相遂暖原風 愛情老玄尤相切 暮朝孔懷永不窮

<石蓮 鄭大眼>

새로운 정자를 물 동쪽에 세웠으니
두사람 마음이 평화롭기만 하구나.
이따금 탁자를 나란히 하여 차를 항상 마시고
밤마다 이불과 베개를 같이 하였지

棠棣의 꽃잎은 뜰 이슬에 한가롭고
 鶴鶴새는 따스한 언덕 바람을 서로 따랐어.
 애정은 늙어갈수록 서로 더욱 간절하여
 아침 저녁으로 거리니 회포 영원하여 끝이 없네

3)

蓮峯之下小溪東 新築斯亭友愛中 一榻琴書常與樂 百年衾枕好相同
 荊花棠棣佳今日 箕業青氈繼古風 共唱壎箎和悅裡 宜兄宜帝興無窮
 <舍弟 鄭大溶>

석연봉아래 조그마한 시냇물 동쪽에
 이 정자 새로 지었으니 우애하는 마음일세
 한 자리에서 琴書를 항상 더불어 즐거워 했고
 한백년 이불과 베개를 서로 함께 좋아했어
 가시나무 꽃 棠棣는 오늘날에 아름답고
 대대로 지켜온 靑氈은 옛 풍속을 이은거야
 壎箎를 함께 불며 서로 기뻐하니
 형제간에 다진 우애 영원 무궁하리라.

4)

此石蓮丁大覲石峯丁大溶兄弟所築而在石谷面蓮洞里也石蓮先生庚戌國耻切齒腐心斥倭謀議事前發覺被逮拷問百折不屈緘口無言過激拷問氣絕己以倭軍放置于村前畚原撤去後七八時間天祐神助纔得回生隱居于採山齋我東道網傳統思想固守與弟石峯公藏修講學而壎箎秩唱和悅怡怡連衾連枕一生之中知德之士口傳於世而讚揚詩文至數百編而戊戌春晚築相宜亭和樂且湛隱於自適矣

이는 石蓮丁大峴 石峯丁大瑑 형제 두분이 이루어 세웠으니 石谷面 蓮洞里에 자리하고 있다. 石蓮先生께서 庚戌(1910)년 우리나라를 日本에게 합방 당하자 몹시 분노하고 마음이 傷하여 倭敵을 물리치려고 謀議하다가 事前에 발각되어 그들에게 끌려가 拷問을 당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아니하고 緘口無言 하시니 過激한 拷問에 氣絶하셨다. 그러자 倭軍이 마을앞 논 언덕에 버려두고 撤去한 뒤 7·8시간을 지나서야 天佑神助로 겨우 생명을 얻어 採山齋에 隱居하면서 우리나라 법도의 傳統思想을 굳게 지키시고 동생되신 石峯公과 함께 부지런히 聖經을 講論하면서 熏篋를 차례로 하며 마음을 서로 和平하게 달래시었다. 이불과 벼개를 나란히 一生동안 같이 하시니 그 아름다운 德行을 아는 선비 말을 世上에 傳하여 讚揚하는 詩와 文이 數百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戊戌(1958)년 봄에서야 相宜亭을 세워 和平하고도 즐거우며 의지하여 自適하시었다.

24. 敬老亭



석곡면 염곡리에 있으며 1974년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建立.

2) 記

△又定也西南深谷之内白花後麓熊山大脈走之躡止之下處而自來必有二百餘大村也哉有大村而必有群賢老人也哉有老人而必有群賢少年也家家父慈而子孝父之至倫而至于老人亭之作也里名曰孝里矣何哉也熊山之下水邊東 古木新橋三友同 并坐讓前仁化席 侍行徐疾孟家風 去年去許面紅節 來日來招頭白翁 願惜一方孝里楊 能歌能詩入亭窮 費於中地里於東 天上仙樓比 東 前鎮寅川先得月 後通內谷自來風 朝日紅裳暮日嫗 前庭青髮後庭翁 柳深不請鶯先至 花老無禁蝶路窮

<崔同任竹塢自吟自恠>

□ 해설

산 서남쪽 깊은 골짜기 안쪽 白花 뒷산 기슭은 熊山 큰맥이 달려오다가 멈춘 곳인데 옛날부터 2백여호가 살고 있는 큰 마을이다. 큰 마을이 있으면 반드시 현명하신 많은 老人이 있을 것이며 늙은이가 있다면 반드시 현명한 많은 젊은이가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도하였기에 父子의 지극한 倫氣가 결국 老人亭을 세우는데까지 이르렀으니 마을 이름을 孝里라 한것이 어떠한가. 이어 詩 두편을 읊는다.

熊山아래 물가 동쪽 옛 나무
 새로운 다리에 새 벗이 함께 왔네
 아울러 앞을제 앞을 사양하니 仁化한 자리요
 모시고 갈제 천천히 가기도하고
 빨리가기도 함은 孟氏 집안 풍속일세
 거년엔 낮빛 붉은 계절에 떠나가라 했고
 내일에는 머리털 흰 늙은이를 초대했네
 바라노니 孝리에 버드나무를 빌려
 시가를 읊조리며 정자안으로 들어가고파
 산 중간이 아닌 마을 동쪽에 있는 정자
 하늘위에 있는 仙樓와 비교할만 해
 앞에 흐르는 寅川물은 먼저 달을 얻었고
 뒤로 통한 內谷에는 저절로 바람이 오네
 아침에는 紅裳이요 저녁엔 노파인데
 앞뜰에는 청춘이요 뒤뜰엔 늙은일세
 버들이 깊어지니 불청객 꾀꼬리 먼저 오는데
 꽃 늙으니 오지말라 아니해도 나비 오지않아

<최동님 竹塢 스스로 읊음>

2) 敬老亭記并元韻俱成

亭은念谷洞中父老爲業遊息之地而依舊私築也去甲辰에僅構茅亭

이러니因風雨하야覆靡當時에孰不咨嗟所아於是에亭築爲計而洞議齊發하야衆口一悅로或以負材하며或以傾東하고又蒙外益之惠澤하야重復舊址하야建涼榭數間할새是役之也에以率先爲後之心으로用力致意者는金泰允以敬老之心으로特竭誠意하야不顧家事하고△△△△而臨終勞者는孫完杓△議同發者는 金學洙金甲基金洋基金善基金日基金鎮國也리功微訖에微記于不佞하니美哉리新亭을改築洞口處하니村容이自此有顏色이라前流清溪하고後立磐岫하며月松風과野處山翁이與△此耶皆是亭之器物이라此其非樂遊之地乎아△之樂洞△△△△△△에登臨而作賦하고臨流而飛觴은由今視昔에竊云盛乎리하니惟吾諸老가相約續遊하고雅會于是△△△△△하며或以棋博하야送迷益日다가夕陽이在山에各歸安方이면後之視今이安知不謂△事哉아因以敬老로爲名이不愧於是亭也니리述其事하야以爲記

□ 해설

정자는 念谷마을 어른들이 노닐던 땅에 옛 정자에 의해 새로 건축한 것이다. 지나간 甲辰 1964년에 겨우 茅亭을 세웠는데 비바람으로 因하여 전복이 되었으니 뒤 아쉬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때 정자를 세울 계획을 하고 마을에서 일제히 발의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혹은 재목을 부담하는가 하면 또는 외부로부터 혜택을 가져오기도 하여 옛터에 시원한 정자 두어간을 세웠다. 이번 從事에 있어 솔선하여 후손을 위하는 마음으로 힘써 뜻을 다한 자는 金泰允이다. 이는 늙은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특별히 성의를 다하고 자기 가사는 되돌아보지 않았으며 끝까지 수고한자는 孫完杓이고, 마을에서 발의한자는 김학수, 김갑기, 김양기, 김선기, 김일기, 김진국 등이다. 준공하는날 나에게 記文을 부탁하기에 생각해 보았다. 아름답구나 마을 입구에 새로이 정자 건축하니 마을이 이때부터 더 좋아진 것 같다.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봉우리가 서 있으며 밝은 달과 소나무 바람과 산과 들 모두가 이 정자를 위해 펼쳐진 器物이니 이곳이야 말로 즐겁게 노닐만한 지역이 아닌가 즐거운 마음으로 정자에 올라 詩를 읊고 물가에 臨하

여 술잔을 드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성대한 놀이라고 이를 것이다. 오직 우리 늙은이들은 서로 계속하여 즐겁게 놀것을 약속하고 이 정자에 모여 혹은 장기와 바둑을 놓으며 해를 보내다가 저녁노을이 들면 각자 安方으로 돌아간다면 뒷날 사람들이 오늘날 노니는 것을 돌이켜 볼때 어찌 훌륭한 일이라 이르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로 因하여 敬老라는 이름이 이 정자에 부끄럽지 않다. 그 일을 서술하여서 記文을 쓰노라.

3) 原韻

新亭依舊建城△ 老少歡情孰不同 夜受月明星斗色 盡消日永談和風
招來欲結三千容 壇聚△勝六一翁 坐覺衿依心他闊 嚶嚶自得樂無窮
〈西紀1974年甲寅五月 日 金鍾洙 書〉

새 정자를 옛날에 의해 城 동쪽에 세우니
老少간에 기쁜심정 뉘 같이 앓을손가
밤이면 밝은 달과 북두추성 빛을 받았고
화평한 바람에 이야기하며 긴긴날을 보내구나.
삼천여명 손님을 불러오도록 하고싶고
단란하게 모였으니 六一翁의 놀이보다 나아
회포가 늙어짐을 앓아서 깨달으니
닭울음 소리에 무궁한 즐거움을 얻었어.

25. 愛蓮亭



석곡면 연동리에 있으며 1908年頃 石蓮 丁大靛씨와 뜻을 같이 한분들께서 建立했으며 1948年 部落民들이 改築하였음.

1)

石蓮 丁大靛先生憂時憫俗戊申之夏所築而與一二同志雪月良辰酌酒賦詩以洩臺鬱不平之懷而玉川趙泳鉉先生記之而尚今里中管理新建而現原韻附在矣.

石蓮 丁大靛先生께서는 時俗이 걱정되고 민망하여 戊申(1908)년 여름에 亭子를 지어 同志 한두분과 함께 눈내린 달밝은 밤에 술을 마시고 詩를 지어 間或 답답하고 不平한 회포를 發설 하였다. 玉川 趙泳鉉先生께서 記를 지었고 至今까지 마을 사람이 共同으로 管理하며 新築하였고 이제 原韻만이 붙여있다.

2) 原韻

數棟新成小塢東樵兄漁弟四隣同
 春深楊柳千絲綠露浥芙蓉萬朵紅
 已放幽懷遊物外更將餘事付樽中
 愛蓮只是由清趣豈敢自比濂上翁

두간 亭子를 언덕 동쪽에 이루니 老少간에 다같이 하도다
 봄깊은 楊柳는 일천가지 푸르고 이슬에 젖은 芙蓉은 일만 꽃송이 붉도다
 이무 내친 회포는 時俗밖에 놓고 장차 고쳐야 할일은 술동우에 붓었네
 연을 사랑한것은 한갓 청취에 따를 뿐인데 어찌 모두다 濂上翁을 비견할고.

3)

明山共揖鎮吾邦	洞口亭高夏似秋
萃顏鼓舞逢新樂	白首慷歌送古愁
日月久移方可賞	風烟不斷晚登收
萬事浮沈人易老	後生能得幾回遊

<石軒 吳鎮泳>

命山이 우리 마을에 에워싸 주니
 洞口에 높은 亭子 항시 서늘 하도다
 歲月이 변한지 오래되어 구경할만 하고
 瑞氣는 끊이지 않으니 늦게야 올라 올었도다
 절무늬의 북과 춤은 새로이 즐거움을 만났고
 늙은이의 탄식한 노래 옛 수심을 보내도다
 일만일이 浮沈하여 다 늙기 쉬우니
 뒤에 사람 모두 여기에 와서 놀새

26. 凌波亭

곡성군 石谷面 凌波里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申崇謙의 후손 申大年이 嘉靖년간(1522~1566)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浴川續志』 등에 洪樂濬, 申大年등의 시가 수록되어 전한다. 申大年의 본관은 平山, 號는 五老堂이며 조선 明宗 1년(1546)에 弟인 大壽와 함께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

百年湖海三盃酒 萬古乾坤一笛秋
 <主人 申大年>

한 백년 바다구경 날마다 석잔 술
 천만년 乾坤속에 피리부는 가을 이었네

2)

圓拖東麓曲成隈 前有平湖鏡面開 舉目雲烟遲下筆 關心花鳥倦登臺
 蟾誰擘習盈盈步 驪壑時聞隱隱雷 搖落故園三射地 忘羊遊于不知回
 <進士 洪樂濬>

동쪽 산자락이 구비치며 언덕을 이루었는데
 앞에있는 평편한 호수는 거울을 열어놓았어
 雲烟에 눈을 뜨고 붓을 더디 내렸고
 花鳥에 관심있어 게을리 臺에 올랐네
 섬진강 파도는 누가 예쁘게 걸음거리를 익히는듯
 구룡에선 이따금 우뢰소리 은은히 들리구나
 쓸쓸한 옛동산 멀지 않은 지경에서
 한 없이 노닐다가 돌아갈 것을 알지 못했네

27. 茂林亭

『조선후남지』(二)에 의하면 木寺洞面의 峨嵋山下 東山에 趙大變이 세운 정자였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李潤鎔의 記가 있었다고 하나 역시 남아 있지 않고, 『곡성향토지』에 趙大變의 詩 한수가 전한다.

1)

林石叢叢有此臺 雙瞳無際向南開 雲深木寺山容僻 潮落平湖月色來
松菊曾知元亮屋 鶯花誰記謫仙盃 回頭方丈看深遠 却忘浮生白髮催
〈晚翠 趙大變〉

숲과 돌 모인곳에 이 樓臺 있으니
두눈으로 남쪽을 향해 끝없이 바라보았네
木寺에 구름 깊었으니 산 얼굴이 궁벽하고
潮水 떨어진 호수물에 달빛이 오누나
술과 국화 있으니 도연명 집이란 걸 일찌기 알았고
누가 기억할가 鶯花가 이태백의 술잔이란 것을
방장산 돌아보니 깊고도 멀어
이내 인생 백발이 재촉한걸 갑자기 잊었네

28. 金蘭亭



죽곡면 용정리에 있으며 1973년에 同鄉同庚 12人에 의해 建立.

1) 記

浴川之南天德山下寶城江上一區窈窕新築小亭名曰金蘭古云其利斷金其臭如蘭之謂也甲午年春節同鄉同庚十有二人以親睦相輔之意相與結契仁而相守善而相勸每以春三秋九探訪勝地游泳於山水間而吟風玩月一觴一詠樂乎人生不可無桑榆之誼豈不美哉會又一人慨然曰吾輩年今望七頭雪髮相空空然如是度了終無名實則付名頑石築亭片地而爲契之象徵以遺吾人踵跡將圖後誼若何咸曰諾甲辰年夏年秋租收斂累年拮据癸丑年冬經始翌年春節告成是也亭則小拙懼夫江湖諸賢之責然山靜水明之佳境眺望八景之情趣能可以爲吾人暢敘幽情而岩面列名是抑亦若非此後故跡耶否契員諸子孫克念乃翁之理想勤修永續勿傷勿毀勿至

爲人所笑不佞忘拙略記

<檀記四千三百十一年 戊午四月八日 梅軒 吳泰根 記>

□ 해설

浴川고을 남쪽에 위치한 天德山 아래 보성 강상류 그윽한 곳에 조그마한 정자를 새롭게 짓고 이름하여 金蘭이라 하였으니 옛분이 이른바 「其利斷金 其臭如蘭」이라는 글귀에서 인용한 것이다.

지난 甲午 1954년 봄에 같은 고을에서 동갑으로 태어난 12인이 서로 도우며 친목을 다진다는 뜻으로 서로 더불어契를 결성하였다. 사랑을 서로 지키고 善行을 서로 권자하며 해마다 봄에는 3월, 가을에는 9월 명승지를 찾아 山水사이를 거닐며 바람을 읊고 달을 구경하면서 술한잔에 시 한수를 읊는다. 즐거운 우리 人生에 가히 桑榆(늙음)가 없지않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하였다.

친구 한사람이 힘을주어 말하기를 우리들의 나이가 이제 7십을 바라보는 나이로 백발이 성성하여 허무하게 이와같은 세월만 보내어 마침내 명예와 실상이 없을 것이다. 이름을 돌에 새기고 조그마한 땅에 정자를 세우는 것이契의 상징물이 될것ियो 우리들의 혼적으로 남을 것이니 장차 뒷날에 정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떠하느냐고 하자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甲辰 1964년부터 여름에는 보리를 거출하고 가을에는 벼를 거출하여 수년동안 식리하였다. 癸丑 1973년 겨울에 건축을 시작하여 다음해 봄에 완성되었는데 이 정자가 협소하고 웅졸하여 江湖 諸賢들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렵다. 그러나 산은 고요하고 물이 맑은 아름다운 풍경과 바라볼만한 八景의 정취는 우리들의 쌓인 회포를 푸는데 충분하고 바위 正面에는 우리들의 이름을 列書할만 하니 이 또한 이 뒷날에 유적이 되지 않겠는가. 契員들의 모든 자손들도 조상들의 이상을 깊이 생각하고 영원히 계속하여 손질해 손상되지 않게하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부족내(不佞)가 웅졸함을 잊고 대략 기록하노라.

<단기 4311년 戊午(1978) 4월 8일에 梅軒 오태근 기록하다>

29. 永山亭



죽곡면 태평리에 있으며 1942년에 李注容씨에 의해 建立.

1) 記

人之感於所生而切於述先者蓋乘彝由出而今於吾亭之永山亦云爾惟我完山李氏王室之裔也專在始祖司空公迄于國朝中宗大王四男永陽君諱峴字卓爾謚成悼公即我十三代祖也五傳至吾本生八代祖諱泰益松隱公南來谷城之竹谷子姓因居數百年不改其鄉井而至今惟十數戶矣噫吾先考嘗與諸族慨然曰吾姓居此數百年之久桑梓猶爲敬式況敢忘追慕之事乎當立一子亭而相與依瞻擬爲慕先一道未果而終焉不肖常以此寤寐不忘然事鉅力綿不敢着手矣嗟乎遭時不運不得已歲辛巳春果川銅雀里所在永陽君以下憤墓緬裏于長湍郡長道面沙是里其山庄得金爲若干額

矣自京宗中一一俵散亦爲不尠則竊惟永陽君樓神中所自出之重金也蔽一言起一棟於華藏山下太平坊大荒江上扁曰永山表不忘本之義而追慕永陽君也方其經始之日以余之不敏勸勉於宗族欲以永年依瞻諸族勉哉嗣守非雲仍之責歟有時或替不愧於亭乎相與依瞻追慕則隨而敦睦矣朝往暮歸前瞻而後忽日邁月征入孝而出恭則此非追慕之篤行乎于時處處講花樹之厚誼于時語語序天倫之樂事則此非敦睦之好風歟蓋始役於辛巳孟春斷手於小春善居室而警戒相成則庶幾無添於厥祖而繼述先志之萬一乎否

韻曰

棟得靈區是永山 依瞻長在往來間 追思緒業心空折 欲守家風事更艱
華嶂完然冠岳立 大荒恰似漢江還 洋洋如格欽欽席 老少雲仍共對顏
〈作亭之歲小春下浣 十三世孫 注鎔謹記〉

□ 해설

인간이 태어난바 선조에게 느끼는 마음이 있어 선조님의 흔적을 서술하려는 정성이 간절한 것은 대개 뉘뉘한 인간의良心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집안 永山亭 역시 그러한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다.

오직 우리 完山李氏는 王室의 후손으로 시조는 司空公이며 조선왕조 중종대왕의 四男이신 永陽君의 이름은 峴이고, 字는 卓爾며 시호는 成悼公이니 곧 나의 13대조이다. 五世를 내려와 나의 본래 생가집 8대조께서 이름은 泰益이고 아호는 松隱公인데 호남땅 곡성고을 죽곡으로 내려 오셨다. 자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수백년을 옮기지 않아 지금은 수십호이다.

아~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 일찌기 모든 종족들과 더불어 힘을내어 말씀하시기를 우리 姓氏가 이곳에 거주한지 수백년 오래되었다. 때문에 조상들이 손수 심어놓은 桑梓 나무들도 오히려 사랑하며 공경해야 하는데 하물며 조상님을 추모하는 일을 감히 잊을 것인가 한 정자를 세워 서로 더불어 의지하고 우러러 보는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선조를 사모하는 하나의 길이라 하셨건만 이 일을 끝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不肖 내가 항상 이

일로써 지나개나 잊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크고 힘은 부족하여 감히 착수하지 못하였다. 슬프도다 좋지않은 시운을 만나 하는수 없이 辛巳 1941년 봄에 경기도 과천 동작리에 있는 永陽君이하 묘소를 장천군 장도면 사시리로 옮겨야 했고 그땅에서 약간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서울 宗中 으로부터 일일히 찬조를 받은 것이 또한 적지 않았으니 곰곰히 생각하건데 永陽君 묘지에서 나온 돈이 막중한 금액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화장산 아래 태평면(坊) 대황강 윗쪽에 한 정자를 세우기로 하고 扁額하여 永山亭이라 한것은 근본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永陽君을 추모한다는 표적이다. 바야흐로 그 공사를 시작하는날 불민한 내가 종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영원히 의지하고 우러러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니 모든 종친들은 노력하였으면 한다. 정자를 지키는 것은 후손들의 책임이 아닌가 혹시라도 침체되는 일이 있다면 정자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서로 더불어 의지하고 우러러보며 추모한다면 큰 화목을 다지기도 할것이다. 아침에 갔다가 해 저물제 돌아오면서 앞에서 우러러보면 뒤에서는 황홀할 것이고 해가가고 달이 갈제 가정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순한다면 이것이 조상을 추모하는 확실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때에 가는곳마다 종친(花樹)의 두터운 정의를 다짐하고 이때에 말씀마다 天倫의 즐거운 일을 강조한다면 이것이 돈목하는 좋은 풍속이 아니겠는가

대개 이 공사는 辛巳년 첫봄에 착수하여 10월(小春)에 준공을 보았다. 居室까지를 좋게하여 落成되었으니 거의 조상님의 일에 욕됨이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나마 계승하였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어 다음과 같이 시를 읊는다.

영기어린 터를 닦아 세워진 永山亭
 오래도록 오갈때마다 의지하며 우러러 보았네
 조상의 얼 곰곰히 생각하니 마음만 속절없이 미어진듯
 집안 전통 지키려하니 일이 다시 어렵구나
 화장산은 완전히 관악산이 서있는 모습이고
 대황강은 한강수가 돌아온 것과 흡사해
 영혼이 분명 오신듯한 조심스런 자리에

늙고 젊은 자손들이 함께 낮을 對하였어

<정자가 세워진 그해 小春節 하순에 13세손 주용 삼가 기록함>

2) 記

李氏之居浴川竹谷蓋數百年矣其世以中廟第四子永陽君諱峴爲中祖王室懿親榮顯極矣而至松隱公泰益不永名利炳幾時事南遷于此子孫仍而世居簪組之衰而儒素相傳族且未蕃今止十數戶皆貧弱不能自存李君注鎔慨家世不振飭躬讀書凡於述先裕後之事無不力焉歲辛巳永陽君而下憤墓之在銅雀者爲時所迫遷窆于長湍後其山庄所償金若干自京宗中分財一區君歎曰是不可以他爲也吾族居茲久矣無一燕亭寓慕先人而聚族肄業之所今不可復有待矣遂以去歲辛巳春築亭於所居萃藏山下閱數月告訖亭凡數間堂室各具焉既又扁其楹曰永山亭爲其慕永陽君也記有之禮不忘其本樂樂其所自生人孰無本亦孰無所自生也內世之人不惟不知其本甚且斷傷 亡之者滔滔是也今李氏之爲是亭也可謂知本矣亦足以使滔滔者知愧矣雖然詩人之言曰繼序思不忘繼序者謂繼之述事也爲李氏者亦思其祖先之志事何在而勉爲可繼焉而已余與注鎔君相好深今尤欽其能追慕而爲是亭也於是爲之記

<孔夫子誕降貳千四百九十三年壬午仲春 光山金永善謹識>

□ 해설

李氏들이 浴川고을 죽곡에서 거주하신 것이 대개 수백년이 되었다. 그世系를 살펴보면 중종대왕의 넷째아들인 永陽君의 이름은 峴인데 中祖되는 분이니 임금의 친족으로 영화와 현달이 지극하였건만 松隱公이신 泰益에 이르러 명예와 福利를 누리지 못하였으며 시국의 불리한 기미를 분명히 관찰하고 호남 이곳에 은둔하셨다. 자손들이 대대로 살면서 벼슬 운수는 쇠퇴되었고 儒業은 서로 전하여 왔건만 氏族 또한 번창하지 못하여 지금도 겨우 十數戶이고 모두다 빈약하여 능히 自存하지 못하였다.

이주용군이 대대로 집안이 멀치지 못함을 분개히 여기고 몸을 닦고 글을 읽어 선조의 업적을 서술하고 후손을 넉넉하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辛巳 1941년에 永陽君이하 분묘가 작동에 있었는데 시국의 요청에 의해 장천으로 분묘를 옮겨야 했다. 그뒤 山庄 보상금 약간을 서울 宗中으로부터 分財를 받았다. 이군이 감탄하며 이 돈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不可하다. 우리 氏族이 이곳에 거주한지가 오래이전만 잔치를 할만한 정자와 선조를 사모하며 종족들을 모아 학업을 익힐만한 장소가 없으니 이제 다시 누구를 기대한다는 것은 不可하다 하고 드디어 지나간 辛巳 1941년 봄에 그가 거주한 화장산 아래에 정자를 세우는데 두어달을 경과하여 준공을 보았다. 정자의 규모는 2間마다 각각 방을 두었으며 이미 또 그 扁額을 永山亭이라 한것은 永陽君을 사모하기 위한 것이다. 記에 쓰인 내용을 보면 禮란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樂이란 자기가 태어난 바를 즐거워 한다는 것이니 인간이라면 누가 근본이 없으며 또한 누가 자신이 태어난바가 없겠는가 만은 이 세상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근본을 알지못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패가 망신하는 자들도 상당하다. 이제 李氏들이 이 정자를 세웠으니 가히 근본을 안다고 이를것이요 또한 극히 패가 망신 하고도 꺼들거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만하다. 옛날 詩人이 말씀하기를 선조의 일을 계승하고 서술하는 것은 선조를 생각하며 잊지 말자는 것이다 하였으니 繼序라는 것은 계승하고 서술한다는 일을 이룸이다. 李氏들이 그 선조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힘써 계승할 뿐이다. 나는 용주군과 더불어 서로 좋아하는 정분이 깊었는가 하면 이제 더욱 그를 숭배하는 것은 조상님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이 정자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그를 위해 記文을 쓰노라.

<孔子 탄강 2493년(1941) 壬午 2월에 光山 金영선 삼가 기록하다>

3) 記

谷城之竹谷以山水形勝擅于湖堧華藏之山屏障于後大荒之江彎廻于前中蕨爲太平之坊松竹之蔥蒨軒楹之敞楚令人望之依然有桐川盤谷之

想完山李氏桑梓之鄉永陽成棹公爲繼別之祖五傳而松隱公是寓于是坊至于今子孫不改其鄉井禪襲詩禮爲該鄉閭族日李君注鎔慨然告于宗曰吾宗數百年于茲免墜祖先之緒業今也永陽君墓所緬移後山庄得金爲若干額而自京宗中一一俵散然尚有零餘起一亭而紀念施不可已矧我先人有志未卒在者乎不肖尤當如何僉曰唯唯乃招工敦匠創立亭舍於爽塏之所顏之曰永山蓋取其永陽之永完山之山而不忘本之義也介人而請余記余應之曰孝之道莫大於報本亦莫善於肯構而就其幽窳封樹建齋合族團居別置亭榭有力者類能爲之是將校焉己乎抑亦觀美焉己乎介者曰不然李之後進孝睦雅飭感深滄桑志切堂構而有是之役瞻依於斯肄業於斯異乎有力者之爲之也曰然惟是祖先之宅兆不敢忽也屢世之緒業不敢墜也既不敢忘祖先矣則況敢忘祖先之德之行乎是亭也處山水之鄉又遇賢主人豈非幸耶世世無替傾則支之懲則新之如今日之爲則是亭之壽將無有窮己若其工役之始訖間架之如何瞻眺之諸景有非今日所可亟道耳

<歲壬午穀雨節 嘉善大夫掌禮院少卿 原任奎章閣副提學 延安 李炳觀

識>

□ 해설

곡성고을 죽곡은 山水가 좋기로 호남에 알려졌다. 화장산은 병풍처럼 뒤에 펼쳐있고 대항강은 구비치며 앞을 감아돌며 가운데는 넓직하여 太平坊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우거져 있고 마루와 기둥은 넓고도 선명하여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鞞川(唐나라 王維의 별장이 있던 곳)과 盤谷(河南省 濟源현 북쪽에 있는 명승지)을 상상하게 한다.

完山은 李氏들의 고향이고 永陽, 成棹公은 繼別의 조상이 되는 분이며 五世를 傳하여 松隱公이라는 분은 이 지방으로 이거해 오신분이다. 오늘에 이르러 자손들이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대대로 詩와 禮를 익혀온 고을에 알려진 氏族이 되었다. 어느날 이주용군이 慨然한 모습으로 종친들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우리 종족이 수백년을 이 고을에 살면서 선조의 유업을 무너뜨리는 불효는免해야 할 것이다. 이제 永陽君의 묘소를 이장한뒤 그 山地에서 얻어진 약간

금액을 서울 宗中으로부터 —히 나누어 주고도 오히려 남아있으니 이 餘錢으로 정자를 세워 이를 紀念함직 한데 더구나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 정자를 세울 뜻은 있었으나 마치지 못하신 일이니 不肖로서는 더욱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종친들은 어찌 하느냐고 하자 모든 종친들이 좋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工人들을 불러와 쾌적한 곳에 정자를 세우고 이름하여 가로되 永山이라 한것은 대개 永陽君이라는 永字와 完山이라는 山字를 종합한 것으로 근본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記文을 요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면서 효도하는 길은 근본(조상)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큰것이 없고 또한 얼을 계승하여 숲이 우거져 그윽한 곳에 집을 세우고 종족들을 단합한 것보다 더 善한것이 없다. 그런데 별도로 정자를 두는 것은 힘이 있는자들이 능히 할일이다. 이 정자는 장차 기분을 상쾌히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관광지로 아름다워서 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찾아온자가 말하기를 그러하지 않다. 李氏들의 후손들이 효도와 화목으로 몸을 다지고 滄桑의 변천에 느낌이 깊고 조상의 얼을 계승하려는 뜻이 간절하여 이 정자를 세워 이 정자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이 정자에서 학문을 익히니 힘있는자들이 하는 일과는 다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 오직 이는 선조님의 묘소를 감히 경홀히 않는다는 것이며 지켜온 업적을 감히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선조를 잊지 않았으니 더구나 감히 선조의 德行을 잊을 것인가. 이 정자는 山水 좋은 고을에 지어졌고 또 현명한 主人을 만났으니 어찌 다행스럽지 아니한가. 대대로 침체됨이 없이 기울면 받치고 퇴색하면 새롭게 하기를 오늘과 같이 한다면 이 정자의 수명은 장차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정자의 착공과 준공과 구조의 어떠함과 바라보는 경치는 오늘날 이야기하지 않겠다.

<壬午 1942년 穀雨節에 嘉善大夫 掌禮院少卿 原任 奎章閣 副提學인 延安 李 병관 기록하다>

4) 上樑文

考槃飲谷之安宅依依先人菟裘衣荷食木之清居遙遙前王苗裔 何限築底原始保終瞻望新阡而彈血淚尚有第二骨之典型指揮都料而流汗漿如許特

百身之努力 寓諸葵墻而亭閣號用之瓦石而風雨除 乃積成九仞之功亦可
 得八法之畫 永是封君永陽之永山爲原籍完山之山 誰歌黍離世事草昧 遐
 鄉所謂措大家不圭竇則巖穴佳處尋常參同契或別墅與玄關 嗟乃有銅雀庄
 之分財顧相協載昌甫之遺囑 亂中畫廬于太平之野物初發軔於大荒之濱
 磨頭鐵馬往來 宮尚之簞壁上雲烟飛騰龍虎之筆 吹大方之佳作散隣曲之
 鄙萌 異卉芳樾香浮浮於卯色一天月笠風絲影乘乘於鳥頭兩岸 狐兔猶走
 舊窟鷄犬亦識新豐 侍仲尼如在座首書誕降之年呼伯勞乃應門喉喝射覆之
 客 認是桑榆之收晚莫非花樹之敦宗仍舊貫而半爵一夙夜不忘本之頂針避
 新市而橫徑三長時莫逆間之杖東履 方見輪奐之美可無頌禱之辭 兒郎偉
 拋樑東 一派長江萬折東 可愛荒涼紛世裏 德門鳧藻帶溫豐沛 拋樑西 鷄
 豚風味付村西 數弓占得盤旋地 蘆月中間又竹溪 拋樑南 天台奇絕直通
 南 青衿籍籍金聲賦 白叟霏霏五屑談 拋樑北 底事氛祲晦朔北 豐沛之湖
 黃石鄉 依然仙李更生色 拋樑上 三嶂崔嵬萬仞上 藥草水泉清且甘 金丹
 不必願無恙 拋樑下 歷歷漢陽芳樹下 不知何處王孫歸 叔末風流見大雅
 伏願上樑之後 盤根深大 奕葉遠長 斯聚斯寢 尚可無愧漏添生 一嘯一觴
 亦足爲納涼送老

<辛巳三月上泮 高靈 申井植>

□ 해설

은둔하여 골짜기 물을 마시며 편안히 살았으니 분명 先人들의 터전이요
 荷衣를 입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청빈하게 살았지만 먼 옛날 임금님의 자
 손이라네.

이렇게 밑을 다지고 다져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 되는거야.

새 언덕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니 두분의 典型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모든 일을 지휘하느라 땀을 흘리니 못사람의 노력가운데 특별히 훌륭했어
 조상을 추모하는 정신을 담아 정자를 이룸하였고

기와와 돌을 사용한 것은 비바람을 가리기 위함일세

이에 九仞의 공정을 쌓아 이루었고,
 또 가히 八法の 글자 획을 얻었네
 永字는 이 永陽君의 永字요
 山字는 原籍인 完山이라는 山字라네
 누가 箕子의 黍離曲을 노래 하였을가
 세상일이 이다지도 어두움기만 해
 외딴 고을에서 훌륭한 가문이라고 이르니 홀 문으로된 출입구와 바위 구멍이 아니요
 아름다운 곳을 같은 契員으로 평범하게 참여했는데 혹은 별장이고 玄關이었네(佛敎에 들어가는 문)
 슬프도다 동작 山庄의 재물을 나눔이요
 되돌아 보건대 協載 昌甫가 남긴 당부인가봐
 태평의 들가운데 그림같은 집이요
 대황의 물가에 처음으로 세워진 건물일세
 처마머리에 오가는 기차는 宮과 商의 음악소리를 내고
 벽위에 구름과 연기는 龍虎의 붓이 날으는 듯 해
 大方家의 아름다운 작품을 연주하니
 이웃집 구비구비마다 더러운 운을 흠어 버렸네
 특이한 화초 향내는 계란빛 온 하늘까지 뚱뚱 떠있고
 둥근 달 실바람의 그림자는 가마귀 두언덕에서 움직인듯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
 여우와 토끼가 옛 굴속으로 달려간 것같고
 닭과 개는 또한 새 풍년을 아누나
 仲尼을 모시고 자리에 있는듯 하니 첫 머리에 공자 탄생의 년대가 쓰여 있고
 때까치(伯勞)를 부를제 문짝이 호응하니 射覆(석복:물건을 알아 마치는 유희)의 손님을 꾸짖는듯 하다.
 알건데 이는 桑榆(늙음)의 늙은 풍경을 거뭇인가
 친척(花樹)간에 족의를 다지는 일 아닌 것이 없었네

옛 본관과 벼슬을 하나로 짝을 지었으니 밤낮으로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頂針이요

새 市街를 피해 길이 세갈래로 가로 놓였으니 장시간 사이를 거역할 수
없는 지팡이었지

바야흐로 장대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송축하는 사연이 없어야 되겠는가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밀어보세, 한줄기 긴 강물 동쪽으로 흘러만 가네
가히 사랑스럽다. 상막하고 혼란한 세상속에

德이 쌓인 가문에 따스한 바람 불어온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밀어보세, 닭과 돼지 기르는 맛을 서쪽 마을에
불었구나

활을 두번 당길만한 거리에 새 터를 닦았으니

갈대 달과 대숲 시내 그 중간이었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밀어보세, 천태산이 기특하게도 남쪽으로 직통했어
젊은이들 金聲賦 읽은 소리 낭낭하고 백발노인 밤새도록 이야기소리 가득해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밀어보세, 무슨 연유로 요망한 기운이 북쪽까지 침
침하고

전주(豊沛)의 호남 黃石의 고을에 훌륭한 전주이씨 다시 빛을 보는듯 해
어영차 들보를 윗쪽으로 밀어보세, 삼장산 우뚝솟아 만길이나 높았구나
약초도 말끔하고 샘물도 맛이 좋아 金丹이라고 하여 꼭 무병한 건 아니야
어영차 들보를 아랫쪽으로 밀어보세, 천리길 한양이 芳樹아래 분명하다.

알 수 없다 어느곳으로 王孫이 돌아갔을까

풍속은 말세인데 큰 선비를 보았지

엎드려 바라노니 들보를 올린뒤 얼킨뿌리 깊이 내리고, 무성한 잎(자손)
영원하여라. 이곳에 모이고 이곳에 잠을 자니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을만 하고, 햇바람 불며 술잔을 마시니 또한 죽히 서늘한 바람을 받으
며 늙음을 보낼만 하구나

<辛巳 1941년 3월 상순에 高靈 申正식 역음>

30. 蓮花亭



竹谷面 蓮花里에 있다.

1992年度 郡費 70% 住民負擔 30%를 投資하여 부락주민을 위한 유산각
으로 1992年 12月 준공함.

31. 天德亭



竹谷面 龍亭리에 있다.

죽곡면장 韓太允이 在任當時 郡費를 支援받아 1993年 8月 建立함.

32. 秋溪亭



竹谷面 鳳亭里에 位置하고 있다.

심상철(化學博士)氏가 1991年 部落住民을 위해 建立한 것으로 현재는 鳳亭里에 老人堂으로 活用되고 있음.

33. 永矣亭

죽곡면 당동리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1) 記

鵝子江有兩源其南源出自長興郡北折而東經順天谷城至鴨綠津而北源之南原來者合津以上數百里穿峽嶠聚溪澗縈紆複折往往有勝境且沿岸腴沃多可耕素號樂土而其兼而有之者莫如谷城郡之本基村然亭臺館宇之勝則闕焉識者恨之趙君洛見既卜居有年既治其農舍又拓其面起亭三楹而拓窓則江也取江之永矣之詩顏之曰永矣亭屬余記之余嘗信宿亭中時值冬初木落天曠夜稍久月躍波面堆銀洲渚晃耀樹幹可睨而數意豁然爽澈和衣擁欄楯久不能寐既而複于君曰江景儘佳耳然江出兩山間掩鬱阻翳極目力而無十里惡睹所謂永矣者乎雖然天下之理已形者暢言而無味其未形者最堪敷演而深思之今使此江果如岷峨之源奔放千里不見渚涯則永固永矣而亦何與於人哉惟其無江之遠而有江之勝可以漁釣可以揭厲使居民安於江而無慕乎外而君又能占其最勝亭以張之使數百年荒阜廢隩一朝呈露其面目可以供登臨盤旋之樂者將愈久而愈暢則江雖不永而所以永之者人也其爲永矣者顧不在此乎抑余嘗讀圖經至太湖記所云東西洞庭七十二峯出沒鷗波浩洋之中花竹掩映鷄犬相聞未嘗不杳然神往而不能奮飛白髮遽如許又每行路見人家臨江淪猗弄壁則輒欣然如八湖△未嘗不徬徨忘去即欲擇勝買屋以償夙願而亦不可得蓋其慕江居之樂至於如此則今於斯亭也固羨跋之不足而可得以忘言乎但余文拙陋不足以永其傳君之必欲余記者何也

<進士 黃 珪>

□ 해설

순자강 두개의 근원이 있는데 그중 남쪽 근원은 장흥군에서부터 출발되어 북쪽으로 꺾어 흘러 동쪽으로 순천과 곡성을 경유하여 압록에 이르르고 북쪽 근원은 남원에서 흘러와 합한다. 이상 수백리를 흘러오면서 산골짜기 시냇물이 모여 얼키고 얼키며 구비쳐 흘러가면서 군데군데 명승지를 만들어 두었다. 또는 浴岸에 비옥한 땅이 많아 가히 경작할만 하므로 그곳을 본래 樂土라 이름하였는데 그것을 兼有한 곳이 곡성고을에 본기 마을이다. 그러나 자자와 樓臺와 館宇등 좋은 건물이 없었기에 그것을 아는분은 아쉬워하였다. 趙洛見 군이 이미 그곳에 농사집을 짓고 또 그 반대쪽에 터를 닦아 3간 정자를 일으켰는데 창문을 밀치면 강물이 흐르고 있다. 까닭에 江之永矣라는 시구에서 취택하여 이름하여 永矣亭이라 하고 나에게 記文을 당부하였다. 내가 일찌기 정자에서 몇일밤을 유숙하였는데 때는 바야흐로 초 겨울이었다. 나무잎은 모두 떨어져 하늘은 넓직하였고, 밤이 조금 오래되자 달은 물결속에서 튀어오르는 듯 하고 은빛은 물가에 쌓여있는듯 하며 나무 줄기줄기가 황홀하고 환하여 바라보면서 셀만하는가 하면 기분이 상쾌하여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난간을 붙들고 오래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얼마뒤 趙君을 다시 불러 강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강물이 양쪽산 사이에서 흘러 나오는데 울창한 숲이 가로막고 있어 시력을 다해 십리를 바라보아도 실증이 없으니 이른바 永矣亭이라고 한것이 이것인가 싶다. 그러나 이 세상 이치가 이미 형체가 나타난 것은 많은 언급이 있어 의미가 없고 그 이치가 형체로 나타나지 못한것은 알기쉽게 자상히 설명하며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순자강으로 하여금 岷峨산에서 발원된 강과같이 천리를 내 달리는데 그 강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실로 영원한 것이니 또한 어찌 사람과 같다고 할것인가. 오직 그 같은 먼 강물은 없지만 강으로 인한 명승지가 있어 가히 낚시질을 할만도 하고 가히 옷을 걷고 물을 건널만하여

居民들로 하여금 강가에 서 삶을 편안히 하고 바깥 세상살이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 趙君이 또 그 곳에서 가장 좋은 터를 닦아 정자를 세워 수백년 황무지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그 面目을 들어내게 하였다. 가히 그 정자에 올라가 즐기는 것이 장차 오래일수록 더욱 화창하고 아름다우니 강물은 비록 영원하지 않으나 영원한 것은 사람일 것이니 정자 이름을 永矣라 한 것이 이것에 있지 않는가 싶다.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일찌기 圖經을 읽다가 太湖記에 이르렀다. 그 記文에 이르기를 동쪽 서쪽 洞庭에 칠십이봉은 갈매기와 물결이 출렁거리는 가운데 보였다 물헛다 하며 꽃과 대나무에 가려 보이는 않은데 닭울음 소리와 개짓는 소리만 서로 들려오니 일찌기 杳然하여 정신이라도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힘내어 달려가지 못하였고 백발만 갑자기 이처럼 휘날린다 하였다. 또는 매양 길손들이 人家가 강가에 있어 잔잔한 물결이 구슬을 회롱하는 것 같은 것을 보고 문득 기뻐 호수속에 들어간 것같아서 일찌기 배회하고 방황하며 돌아가기를 잊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즉시 勝地를 가려 집을 사서 옛날에 소원을 이루고 싶었지만 또한 가히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대개 그가 강가에 삶의 즐거움을 그리는 것이 이같은 지경에 이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정자는 진실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신발을 벗고 달려 가드라도 부족할 것인데 가히 그대의 당부를 잊을 것인가 다만 나의 글 솜씨가 웅졸하여 족히 그 記文을 영원히 절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대는 하필이면 나에게 記文을 당부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進士 황 현:황매천>

34. 木澗亭

『곡성향토지』에 주인 金潤弼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김윤필의 본관은 慶州, 號는 石湖, 字는 聖範으로서 고종때 承訓郎의 벼슬을 지냈다. 1895년의 乙未義兵, 1905년의 乙巳義兵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勉庵 崔益鉉과 함께 피체되어 전주감옥에서 殉國하였다. 이로 보아 정자는 20세기 초경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原韻

山中何所樂 雲樹數家隣 杜宇啼當戶 於△嘯何人
園疏具趣味 泉石養精神 歸客莫嫌僻 逍遙可避塵

<主人 石湖 金潤弼>

산중에서 무엇을 즐길 것인가.
구름과 숲 그리고 두어집을 이웃했어.
두견새는 문앞에 다가와서 우는데
저 건너 마을에 어느분이 휘파람을 불가
정원에 채소를 가꾸는 취미를 갖었고
泉石을 벗 삼아 정신을 수양했지
돌아오신 손님아 벽지라고 싫어하지 말아
거닐면서 풍진을 피 할만 하다네.

35. 樂水亭



고달면 고달리에 있으며 1890년 하재일씨가 建立.

1) 記

繫舟鷓江之上緣溪向峽裡去溪清石白腥塵不染松蘿纏逕但見四山鬱蒼披雲嵐度林木轉轉行四五里則眼界豁然田野闢而茅茨見曰水月里也土腴泉甘居民鮮小桑麻稻杭不出山而衣食自足城朝遠而洞天幽△居俗肫肫知世間雌黃之爲何等物事矣古人詩所謂腥膻天地別人寰者非此之謂乎在余少時見時事日非而鳥夷猖獗竊欲高飛遠走於荒漠之濱而不可得遂自長浦來居于此耕焉而食蠶焉而衣苟全性命不與蹄跡相混者于茲數十星霜而顧今草木變衰白髮皤如漁樵等事亦皆聽於兒孫爲營數間小亭于靜僻處以爲送老之計子來孫趨不幾月而棟宇已成乃以樂水扁其額

非敢以智以智者自居盖以此亭有山水之樂也不曰樂山而曰樂水者以其舉一隅可反也又欲我子孫庶幾從事于智者之事常於善利之分華夷人獸之判精察而明辨之不自納於暑獲陷穽之中也凡我後承之入此亭者恒思乃祖入山之意與夫名亭之義不以富貴繁華易吾山水之樂嗣守而勿失焉則此亭將與仁山智水同其久遠也

〈歲庚寅三月日 河在一記〉

□ 해설

순자강 위에 배를 매어놓고 시냇길을 향해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니 시냇물은 맑고 돌빛은 희며 속세에 오염되지 않았는가 하면 소나무와 등녕쿨이 길가에 얼키고 설켜 다만 보이는 건 4면 산천에 울창한 것 뿐이다.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나무숲을 헤치며 걷고 걸어四五里정도를 가노라면 앞이 북트여 田野가 벌려있고 초가집이 보이는데 그곳이 水月里라는 마을이다. 토질은 비옥하고 샘물맛은 좋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적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은 산밖을 나가지 아니하여도 의복과 음식은 스스로 만족하다. 도시는 멀리 있고 자연환경은 깊숙하기만 한 이 마을 풍속은 순박하기만 하여 세상에 우왕 좌왕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古人의 詩에서 이른바 「비린내 나는 天地에 유별난 사람이 사는 고을이다」고 읊은 것이 이곳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가 젊었을때 시국이 날로 잘못되어 섬나라 오랑캐가 침범한 것을보고 멀고 먼 荒漠한 물가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수가 없었다. 드디어 長浦로부터 이곳에 와서 거주하며 밭갈이 하여 먹고 누애를 쳐서 의복을 해 입고 나의 天性和 운명을 구차히 보존하면서 짐승같은 인간들과 서로 더불어 혼합하지 아니한 것이 이제 수십 星霜이 흘렀다. 이제 회고해 보건대 草木들도 변하여 쇠퇴하였고 나의 모습도 백발이 성성하니 생활계책등 가사는 모두를 아이들에게 맡겨버렸다. 나는 조그마한 정자를 조용하고 궁벽한 곳에 세워 늙음을 보낼 계획을 하였더니 아들과 손자들이 달려와 협조하므로 몇개월이 못되어 건물은 이미 낙성을 보았다. 이어 樂水로써 그 扁額을 하였으나 감히 나 자신이 智者라는 것은 아니며 대개 이 정자에 山水의 즐거움이

있는데 扁鵲을 樂山이라 아니하고 樂水라고 한것은 한쪽을 들면 한쪽은 저절로 들린다는 이치이다. 또는 내 자손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일에 從事하고 善과 利의 구분과 中華(중국)와 夷狄을 판단을 몇몇이 하여 정밀하게 살피고 분명히 판단하여 스스로 불의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게 하고자 한것이다. 나의 모든 후손들은 이 정자에 들어오면 조상이 산속에 들어온 뜻과 정자 이름에 담긴 뜻을 항상 생각하고 부귀와 변화로써 우리 山水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어 지켜오면서 일을 잃지 않는다면 이 정자는 장차 이 좋은 山水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것이다.

<庚寅 1890년 3월에 河在一은 기록함>

2) 記

谷城之水越里智異之西麓也水越之樂水亭河斯文在一之所成也斯文處大亂之世性之所樂者水則達於事理而如水之活動無滯可知也夫水之大者莫如海故觀於海者難爲水然子之在川上曰逝者如斯夫不舍晝夜鄒聖亦云觀水有術必觀其瀾苟我之智達於事物則有何大小遠近之殊哉以此言之斯文之肚裏春秋亦想可知也吾聞知異三神之一而異常之智者多隱居云而未聞以水爲樂如斯文者後之人聞斯文之風而登斯亭者見行義而論其世則孰敢不肅敬乎

<辛卯嘉排節 月城 崔元植 記>

□ 해설

곡성골에 水月리는 지리산 서쪽 산자락에 있고 水月마을에 樂水亭은 河斯文 在一이 세운 건물이다. 河斯文은 크게 혼란했던 세상을 만나 그 성격에 좋아한 것이 물이었다면 事理에 통달하여 물이 활동한 것 같아서 막힘이 없다는 것을 가히 알겠다.

대범 큰 물은 바다 같음이 없기때문에 바다를 바라보고 물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孔子께서 川上에서 말씀하여 가로되 가는것이 저물과 같아서 낮과 밤으로 쉬지않는다 하였다. 鄒聖 孟子께서 또 이르시기를

물을 바라보는 데는 術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그 물결치는 것을 보라고 하였다. 진실로 나의 지혜가 事物에 통달 하였다면 어찌 大小와 遠近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말씀을 한다면 斯文의 심장속에 春秋大義가 담겨있다는 것을 또한 가히 상상하겠다.

나는 들으니 지리산이 三神山가운데 하나로서 異常한 많은 智者가 은둔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山水를 즐기는 斯文같은 분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뒷날 사람이 斯文의 얼을 듣고 이 정자에 올라와 斯文의 의로운 행적을 살펴보고 그 시대를 의논한다면 누가 감히 엄숙히 삼가하지 않을 것인가.

<辛卯 1891년 8월에 月城崔 元植기록함>

3) 記

沿鶴江而下至古達津山行可熊侯許岡壘回合柿栗掩暎鳴吠相聞於烟雲之中宜隱淪之者△△曰水越里隔里而有亭翼然領一區之勝而扁之以樂水者河君在一之所築外以宣藏修之便而寔以延師友肆子姓冀不墜乎先緒也君遽以今春歿胤子斗鎬介吾少友趙東麟再三問記於余頗溫易可喜而捲捲於其先公者尤足尚也久而諾之則又謂亭之距江雖不里爲山所蔽實不知有水四面環列而停峙者方丈千疊而已彼峽中斷續之線流何足爲待何足爲周流無滯之可樂哉名實似不相符願籍記以明之余曰無傷也天下之物有而有無而無動則動靜則靜者形象也自理而觀之則有未嘗圍有無未嘗局於無動而實未嘗不靜而動固在其中矣有無相爲對待動靜互爲根抵未嘗倚於一偏若夫所見者山而樂不及於所不見之水所不見者山而樂山於所見之水甚而無山若水之可見者則仁智者之心遂無所樂而動靜樂水從而無體效哉然則人之一身目斯足矣任其蔽於物而已奚貴乎見所不見而思則得之之惟心乎哉曰然則單舉樂水不亦偏乎是亦無傷也所不見之水尚樂焉則起居飲食與接之山奚待言而後知姑書此揭諸壁以聽夫舉一而反三者

<惟壬辰仲夏閏月 竹溪 安壘 記>

□ 해설

순자강물 흐름을 거슬러 내려가노라면 고달연이 이르른다. 산길로 화살을 한번 당길만한 지점에 산맥이 감아돌고 감나무와 밤나무가 햇볕을 가리고 있어 닭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연기와 구름속을 뚫고 들려오고 있으니 선비가 은둔하기 마땅하다. 그 마을의 이름은 水越里이며 마을을 등지고 정자가 있는데 높다란하여 그 마을의 승경이라고 할만하며 扁額을 樂水라고 하였으니 河在一畝이 세운 건물이다. 外的으로는 학문을 닦기가 적당한 곳으로써 스승을 맞아 자손들에게 글을 익혀 조상의 얼을 떨어치지 않기를 기대할만 하다.

河君이 금년 봄에 갑자기 죽고 그 아들 斗鎬君이 나의 젊은 친구 趙東麟의 紹介로 나에게 記文을 두 세번이나 당부하기에 나역시 기쁜것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위한 정성이 더욱 가상하기 때문이다. 오랜 뒤에야 허락하였는데 그가 또 이르기를 정자에서 순자강과의 거리는 비록 마을 하나의 거리도 못되지만 山에 가로막혀 진실로 강물이 있다는 것은 알수가 없다. 四面으로 둘러쌓인 산자락은 곧 方丈山이다. 천겁이나 쌓인 저 골짜기가 중간에서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듯하여 흐르는 물줄기를 어찌족히 기대할 것이며 어찌족히 막힘없이 구비구비 흐르는 물줄기를 가히 즐긴다고 하겠는가. 명성과 실지가 서로 부합하지 않으니 자세히 지목하여 밝혀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여 가로되 이상하게 생각할것 없다. 지구촌에 온갖 물건이란 있을때는 있고, 없을때는 없으며 動할때는 動한 것이고, 靜할때는 靜한것이 형상인 것이다. 자연의 이치로써 관찰한다면 있다는 것을 일찌기 있었던 것에 없매일 것이 없고 없다는 것은 일찌기 없었던 것에 구간할 것이 없다. 실로 일찌기 靜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動함은 진실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나, 있고 없는 것은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며, 기다림이 되는 것이고, 動하고 靜함이 서로 根抵가 되어 일찌기 한편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다.

만일 대범 보이는 것이 山이라면 山의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물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山이라면 山을 즐거워 함이 보이는 물보다 더욱 즐거울 것이다. 山과 물을 가히 볼수가 없다면 仁者와 智者의 마음에

드디어 즐거워할 바가 없어 動靜과 樂水도 따라서 연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온 몸에서 눈만 있으면 만족할 것인데 그 눈이 物欲에 가린 것 뿐이니 보이지 아니한 바를 본다는 것을 어찌 귀중하다 하겠는가. 생각하면 얻어지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그렇다면 樂水라고만 열거한다는 것이 역시 치우치지 않을 것인가. 이것 역시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보이지 아니한 물을 오히려 즐거워 한다면 起居할때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더불어 山을 接하게 된다는 것을 어찌 답변을 듣고야 알것인가 이 내용을 써서 벽에 걸고 하나를 들면 세쪽이 들추어 진다는 것을 온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노라.

<壬辰 1892년 4월 竹溪 安塑는 기록함>

4) 記

亭于山之側環亭聳翠皆山也不曰樂山而曰樂水名亭之義抑有其說乎有山必有水一溪一溝無往而非水何必江淮河漢而後爲水哉仁者必有智仁爲體而智爲用仁智非兩人山水無二致不言山而山在其中名斯亭者其殆庶幾乎知道乎作亭者誰河友斗鎬也名之者誰斗鎬大人後龔公其人也公以忠厚愿慤之資謹勤育德于深山之中在家有慈愛之實在鄉有善信之聞不仁而能之乎施經綸於稼穡室無懸磬之憂隱居而求志全其性命於亂時不知而能之乎龔於世而不龔於道淡淡乎聲色臭味之外以寓其樂於山水之間孰謂公之不仁且智者吾則不信也其子又能幹父之蠱經之營之以成此亭使其父頤養有所而安其所樂繼志述事孝之大者也孝又仁之一事矣斗鎬亦可謂仁而樂山歟噫仁知之道不遠在人反而求之人皆可能登斯者苟能顧其名而求其義則尚亦知夫山水之樂也

<歲在壬辰十月既望 玉川 趙東璉 記>

□ 해설

정자가 山 곁에 있으니 정자를 감싸고 있는 푸르름은 모두다 山이다. 그

런데 정자 이름을 樂山亭이라 아니하고 樂水亭이라 하였으니 그 뜻에 대해 설명이 있다. 山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있는 것이니 이 계곡 저 계곡 가는 곳마다 물이 없는것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바다를 찾아간 뒤에야 물이 있다고 할것인가 仁者는 반드시 지혜도 있는 것이니 仁은 體가 되고, 智는 用이 되는 것으로 仁과 智는 두가지가 아니며 山과 물도 두가지가 아니다. 山을 언급하지 아니하여도 山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 정자 이름을 지은 분은 거의 道를 아는 분인가 싶다. 정자를 지은 분은 누구인고 하니 河斗鎬라는 친구이고, 이름을 지은분은 누구인고 하니 斗鎬의 아버지 後豐公이 그분이다.

公은 믿음직하고 성실한 자품으로 삼가하고 근면하여 깊은 산속에서 학덕을 길렀다. 가정에 있을때는 자애로운 진실이 있었고 마을에 있어서는 善信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어진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능통하겠는가 그 經綸을 농사일에 베풀어 가난이라는 걱정이 없었으며 은둔생활을 하면서 義志를 求하고 그 본성과 운명을 혼란기에 온전히 보존하였으니 알지 못하고서야 이렇게 능통하겠는가 세상 일에는 귀가 먹은듯 하였지만 道德에는 귀먹지 않았으며 음악과 女色을 즐기는 취미에는 담담하였고, 山水의 삶에 즐거움을 붙였으니 누가 공을 不仁하고 不智하다고 이르겠는가 나는 믿지 않는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어받아 經營하여 이 정자를 落成하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수양하면서 편안히 그 山水자연을 즐기도록 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사업을 서술하는 것이 효도에서 큰것이니 효도란 仁가운데 일부분일 뿐이다. 斗鎬는 역시 仁者로써 山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아~ 仁者와 智者의 道는 멀리 있는것이 아니고 人間에게 있는 것이니 돌이켜 人間에게서 求한다면 모두다 가능한 것이다. 이 정자를 올라서서 진실로 능히 그 정자의 이름을 되돌아 보면서 그 뜻을 찾는다면 山水의 즐거움을 충분히 알것이다.

<壬辰 1892년 10월 16일에 玉川 趙동연 기록함>

5) 記

後壑河翁隱居行義於方丈之西麓麓斷江流出門無百步江自遠而來穿平野入絕峽峽口即翁所居凡朝暮之交四時之禪雪霜風月雨晴寒暑江之環翁居而爲膝者殆天所設也翁自稱壯以暇日循江上漁樵以侶迨其老也尤不厭於江而就江之游卜地一區築亭三楹中有室四外皆軒檻也其胤子斗鎬君實經紀之以樂水揭其楣請余記余固不文然竊有感於其所以名之義而不能終辭蓋出自地中而行乎地上者無往非水也小而溪澗大而川江尤大而河海濺而爲灘停而爲潭飛而爲瀑涓涓之流也混混之盈也滔滔之奔也寓之目而明得於耳而夾收以懷而闕此皆人人之所同然也非獨翁也翁可得專於水哉抑有取於夫子智者樂水之訓而欲自附焉則翁其以智者自居然蓋夫子有智者樂水之說也然此以智者之達於事理而周流無滯殆類水故云爾然則水之於人同其類者奚止周流無滯而已也如擇焉而無孔不穿純乎一也如追焉而無刻不流示不息也停如鑑面纖塵不着淨乎其無欲也奔若疾風大塊欲傾凜乎其爲勇也淵淵其深浩浩其大灌能惠人潤而澤物水之不相似於君子之德者何其幾希也翁蓋君子人也一於善而不息乎其用心無慕乎世人所汨沒而勇於去邪覃思而守玄汎愛而容衆隣里蒙福流焉仰仁翁之不相似於水者又何其小也然則亭上有翁亭下有水水之揚澄波而往往者非翁之襟懷耶翁之飄白髮而淨淨者非色相耶翁於水迺沕焉相契者而與之爲一矣樂又何足以盡其說哉噫斯亭者其亦知夫翁與水乎

〈玄默執徐劫之中浣 月城 金種嘉 書〉

□ 해설

河後壑님께서 방장산 서쪽산 기슭에서 은둔하여 살면서 義로운 행동을 하였다. 산맥이 끊긴곳에 강물이 흐르는데 門밖을 나와 百步를 걸어보아도 강물은 없다. 그 강물이 먼곳으로 부터 흘러와 平野를 뚫고 잘린 골짜기로 흘러들고 있는가 하면 그 산골짜기 입구는 곧 님께서 거주하신 곳이다. 아

침과 저녁으로 정을 느끼고 사계절 경치가 바꾸워지는데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릴때나 바람이 불고 달이 밝을때나 비가 내리다가 맑게 개일때나 추울때나 더울때나 강물이 넘께서 거처하신 집을 둘러 무릎역활을 하고 있으니 이는 거의 하늘이 설계를 해준 곳이다. 넘께서 자신이 말씀하기를 청년시절부터 한가로운 날이면 강물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漁父들과 나무꾼들과 짝이 되었고, 老年期에 미쳐서는 더욱 강물이 싫지않아 강가에 터를 닦아 三楹으로 정자를 세웠는데 가운데는 방이있고 四面으로 마루가 있다. 그 아들 斗鎬君이 계획을 세워 정자를 지어 현관을 樂水라 걸고 나에게 記文을 요청하기에 내가 진실로 문장력이 부족하지만 그 정자의 이름에 담긴 뜻에 느낀 바가 있어 끝까지 사양하지 않았다.

대개 땅속으로 부터 솟아나서 地上에 흐르고 있으니 가는곳마다 물 아닌 것이 없다. 작은 물은 시냇물이라 하고, 큰물은 시냇물 또는 강물이라고 하며 더욱 큰물은 바다라 한다. 얕은곳은 여울이라 하고, 멈추어 있는곳을 못이라 하여 나르는 것은 폭포수라 하는데 줄줄 흐르기도 하고 세차게 흐르기도 하며 넘실넘실 흘러 달려가기도 한다. 눈으로 보면 명랑한듯 하고 귀로 들으면 상쾌한듯 하며 가슴에 담으면 넓어진듯하니 이는 사람 모두가 같은 느낌이고 넘만이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넘께서 물의 아름다움을 오로지 얻은 것인가 아니면 孔夫子께서 말씀하신 智者樂水라는 가르침에서 취택하여 자신의 뜻을 담았다면 넘께서는 자칭 智者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孔夫子께서 智者樂水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러하다면 이 주인님이 말씀한 智者는 事理에 통달하여 두루두루 막힘이 없는것이 물과 같다고 한다면 물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니 어찌 두루흘러 막힘이 없는데만 멈출 뿐이겠는가. 취택하기 위해 구멍을 뚫었을때 물이 솟아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은 순수함이 한결같기 때문이며 추상하여 時刻으로 흐르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멈추어 있을때에는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묻지 않으니 그는 욕심이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요 疾風처럼 달려 지구를 무너뜨리려 한듯 하니 그 용기가 능름하다는 것이다. 그 깊이는 깊기만 하고 그 크기는 크기만 하여 灌溉의 이로움은 능히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萬物을 윤택하게 하니 물의 혜택이 君子の 덕망과 서로 같지 아니하다는 것

이 거의 없을 것이다. 님은 대개 君子님이다. 善行에 한결같아 그 마음 씀이 멈추지 아니하고 世人들이 골몰한 명예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특한 것을 버리는데 과감하였으며 깊이 생각하고 근본을 지키며 대중을 사랑으로 포용하여 이웃 마을까지도 그 복을 입었다. 어진 주인님의 심덕이 물과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은 매우 小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자위에 님께서 앉아 있고 정자아래는 물이 흐르고 있으니 맑게 흘러가는 물빛은 님의 심덕이 아니겠는가. 나부끼는 님의 백발이 깨끗함은 물의 色相이 아니겠는가. 님의 심덕과 물의 혜택이 서로 더불어 한결같으니 그 즐거움을 또 어찌 족히 말로 다 설명 하겠는가 아~ 이 정자에서 주인님과 물이 하나라는 것을 알겠다.

<壬辰 1952년 閏月중순에 月城 金중가 씀>

6) 記

石泉李淵儀不遠三舍訪余南安山舍要河君樂水亭記而曰君諱在一河之居南原十餘世而谷城實始乎君擇天峙陽一閒地置亭翼然左右之景蓼湖明沙飛騰晴嵐道林曉鍾有不賢賢之莫不道奇絕取智者樂水扁之曰樂水願斯文有以一言之惠以光之也余曰既樂水以揭楣光莫此爲甚願以枿鑿頽乖不能自振坐待入地已久奚暇以文墨先人亭子耶凡事貴有實若以其無有而徒以爲有則板上之名雖在泉壤而有不堪愧懼者矣淵儀曰君有孝友信義鄉里尚今稱嗣胤斗鎬又能繼其志願斯文之不固辭也遂述其答問以歸之云爾

<癸巳秋八月上泮 顧齋病夫 李炳殷 記>

□ 해설

石泉 李淵儀군이 9십리 길을 멀다 아니하고 南安山舍까지 나를 찾아와 河君의 樂水亭記를 당부하여 가로되 君의 이름은 在一이다. 河氏가 남원에 거주한지는 十餘世가 되었고 谷城은 河君이 처음 들어왔다. 河君이 天峙山 남쪽 아늑한 곳에 높다란 정자를 지었다. 左右의 경치를 살펴보면 蓼湖가 있고 明沙가 있으며 안개가 날아다니는가 하면 道林寺에 새벽종이 들려오

고 있으니 賢者들이 그 奇絶을 찬미하지 아니한 자가 없다. 이곳에 智者樂水라는 뜻을 취택하여 扁額을 樂水라 하였다. 바라옵건대 斯文께서 영광스런 記文을 지어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내가 가로되 이미 樂水라는 이름을 걸었으니 이보다 더한 광영은 없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쇠퇴하여 자유로 振作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땅속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린지 이미 오래인데 어느 겨를에 그분의 정자에 記文을 쓸것인가. 무릇 일이란 실상이 있는것을 귀하게 여긴다. 만일 그 없는 것으로써 있는 것같이 하여 있다고 한다면 현판된 이름이 비록 泉壤에 있을 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淵儀가 가로되 河君에게 孝友와 信義가 있어 鄉里에서 지금도 칭송을 하고 있다. 그 아들 斗鎬가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斯文께서는 구지 사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그와 문답하는 내용을 서술하여 주면서 돌아가도록 하였다.

<癸巳 1953년 8월 상순에 顧齋病夫 李병은 기록함>

7) 記

樂水亭在谷城之高達面牧洞屯田山下鴨綠江北水月之陽其主人晉陽河君在一後龔也國朝敬齋文孝公演之後也蓋知者樂水大義固是聖人所訓而朱夫子詳釋之不須更爲敷衍矣後龔主人則余素未知今以金會龜之傳強被李石泉老友之累累勤記雖不敢一向愆然辭却然顧此八耄病夫昏晝日甚其何以發揮抖擻能作文字也耶至若亭之飄酒境景爽落韻趣則惟在登臨者之眺點自會而得亦非可以想像推模強臆爲之說者也幸石泉翁爲我謝之焉

<癸巳秋八月初三日 欽齋 崔秉心 記>

□ 해설

樂水亭은 곡성군 고달면 목동 둔전산 아래 압록강 북쪽 수월마을 남쪽에 있는데 그 주인은 晉陽 河在一君으로 아호는 後龔이며 우리나라(敬齋) 文孝公인 演의 후손이다. 대개 智者樂水의 큰 뜻은 진실로 孔子 聖人께서 가

르쳐주신 말씀이며 朱夫子께서 상세히 해석하였으니 다시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신 後龔은 내가 본래 알지못한 분인데 이제 金會龜의 傳을 읽고 李石泉 늙은 벗에게 장황한 記文을 쓰라는 당부를 억지로 받아들였다. 한결같이 걱정하면서 감히 사양하여 물리치지 못하였다. 돌아보건대 나는 팔십 늙은이로 노망기가 날로 심해가고 있으니 그것을 어찌 조금이라도 사실을 떨어 발휘하여 능히 文字를 지을 것인가. 정자의 깨끗한 경치와 상쾌한 운치는 오직 정자에 登臨한 분들이 느껴보고 저절로 알것이니 상상과 추측으로 억지로 설명할 것이 아니다. 石泉翁이 나를 위해 물러간 것이 다행이겠다.

<癸巳 1953년 8월 초3일에 欽齋 崔병심 기록함>

8) 上樑文

垂釣於桐江之濱子陵高尚人誰知也 風浴乎沂水之上曾點遐想聖其與之 由來達人 蓋多樂水竊惟後鰲河公 溫良其性誠慤其志處己接物多有 謙恭之儀居家立言必循禮義之度 無關名聲之顯晦自甘今世逸民 只切 分事之履行人稱十室忠信 玩物之情老而彌篤樂水之亭脫而始營 溪山 清涼可以遊方寸之昭曠庭宇爽豁足能容七尺 之安閒 鴨鷗驚而溯江風 區區坐念不必遣 而自遣吸烟霞而臥林月陶陶幽興不期來而自來 泛舟 楫而自娛 樂琴書而消憂 講禮論詩斯有地焉 操戈入室果有誰否 耿耿 一念恒切於兒孫之善繼 眷眷深懷實在乎遠朋之濟來 遂多年未違之學 乃肖胤彈誠之功 肆揮三寸之短毫 載唱六偉之善頌 兒郎偉拋樑東 丈 頭明月照丹衷 莫將 時事說翁傍 灑落兜襟遠世風 兒郎偉拋樑西 大野 迷茫黍色齋 泌飲樂飢斯有足 膏梁何必滿盤提 兒郎偉拋樑南 層巒秀 色碧於藍 肺肝耳目爲吾有 其孰能知我夢甘 兒郎偉拋樑北 琴川漁笛 因風落 清冷一聲揚戶入 却疑人世有靈域 兒郎偉拋樑上兜把身心有愧 仰事事對人無不語 知應靜坐善涵養 兒郎偉拋樑下 兜依常念在蕭灑 莫因世亂休吾功 禮失嘗聞求諸野 伏願上樑之後 世木長春 棟宇益固

詩禮今聞傳來世而益彰 亭樓芳名興流峙而長久

<屠維赤奮若 壯月上泮 玉川 趙敏植 撰>

□ 해설

桐江의 물가에서 낚시를 다룬 子陵의 높은 뜻을 그 누가 알며, 沂水의 위에서 바람쏘이고 목욕하자 曾點의 먼 의상을 聖人 孔子께서 칭찬하였다.

옛날부터 말미암아 오에 천달한 사람들, 대부분 물을 즐거워 하였다네.

곰곰히 생각해보니 河後龔님은 따스한 그 성품이요, 성실한 그 바탕이었는데.

자신을 간직하고 남을 접견할제 겸손하고 삼가하는 거동이 많았고, 가정에 거처하면서 남긴 말씀은 반드시 예의와 법도를 따랐어.

명성이 알려지고 묻혀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요즈음 逸民으로 만족을 느끼셨지.

다만 분수에 알맞는 일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이었고, 사람들은 한 마을(十室)에 忠臣信한 분이라고 칭송하였는데.

萬物을 관찰하는 느낌은 늙어서 더욱 독실하였고, 樂水亭은 탈속한 장소에 비로소 경영하였다.

溪山이 맑고 서늘하니 마음을 터놓고 노닐만 하고, 정자가 쾌활하니 능히 이 한몸 편안히 용납할만 해.

갈매기와 친절히 하며 강바람을 쏘이니 조용히 앉아 생각하며 기필코 걱정을 없애지 아니하려도 저절로 없어지고, 안개를 마시며 숲과 달빛속에 누웠으니 즐거운 흥취를 오라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오누나.

배를 띄워놓고 만족하게 즐거워 하며, 거문고와 책을 즐기니 걱정이 사라 지구나.

예절을 강론하고 詩를 이야기 할만한 이곳이 있고, 창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가니 과연 뉘가 있어 잘못이라 할가.

까막까막하며 한결같은 생각은 자손들이 잘 계승하였으면 하는 것이 항상 간절하고, 정답기만 한 깊은 마음은 먼곳에 벼들이 썩씩하게 찾아왔으면 하는데 진실로 있다네.

다년간 미처 착수하지 못했던 일을 암전한 아들이 정성을 다해 완수했어.

三寸정도 되는 짙막한 붓을 들었고, 六偉文을 읽어 칭송하고 싶구려.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밀어보세, 丈頭에 밝은 달이 마음속에 비치누나.

주인님 곁에서 시국애기 하지를 마소, 깨끗한 가슴속에 세상 풍진 멀리갔어.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밀어보세. 아득한 큰 들녘에 기장빛이 가지런해.

마시며 먹는 자리 이만하면 만족한데, 쟁반에 가득찬 고량진이 어찌 필요하겠나.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밀어보세, 뽀족뽀족한 산봉우리빛 쪽물처럼 푸르구나.

오장육부 이목비구가 나를 위해 있는것, 꿈같은 나의 삶의 그누가 알랴.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밀어보세. 蓼川에 漁笛소리 바람타고 들려오네.

말끔한 한 소리 문안으로 들어오니 인간 세상에 靈域이 있는가를 갑자기 의심했어.

어영차 들보를 윗쪽으로 밀어보세. 身心을 움추리고 우러러보아도 부끄럼이 있을손가.

일마다 남을 대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알았지 고요히 앉으면 함양공부 잘한 것을.

어영차 들보를 아랫쪽으로 밀어보세. 마음속에 생각은 언제나 깨끗하다네.

난세로 困하여 나의 功이 없는것 아니야, 일찌기 들으니 잃어버린 禮는 野人에게 求하라고 했지.

엎드려 바라보니 들보를 올린뒤 世木에는 봄빛이 길었으면 하고, 기둥은 더욱 견고했으면 하네.

詩禮를 익힌 좋은 소문은 來世까지 더욱 현창하였으면 하고, 樓亭의 아름다운 이름은 流峙와 더불어 長久하였으면 하오.

<己丑 1949년 2월 상순에 玉川 趙민식 엮음>

36. 橫灘亭



고달면 뇌죽리에 있으며 1887년경에 建立됐다.

1) 記

帶方爲湖南名鄉自古稱文雅之藪而橫灘又爲帶方名勝山水之美甲於東南昔在國祖宣仁之際鄉之賢士十有四人約會于此修契立約如蘭亭藍田古事以每歲之春三秋九相與講道習禮於其間一時傳之爲盛事及諸賢既沒而繼之以兵燹則其跡沈泯而地亦遂以荒廢者至二百有餘年而猶有當時座目之可據則往在高宗丁亥各家後承適追厥蹟續修文會以溯其韻而繼又樹碑紀蹟以傳其事往年又合謀建一屋於其上以寓慕諸賢而且以爲春秋會講之所是爲橫灘亭者也於是諸賢之遺風可傳於久遠而亦足以增山水之光矣夫橫灘之勝以諸賢而益著諸賢之名與橫灘而并傳則是爲人與地之相遇而是地是亭者宜其匹美而有與也抑古人之如諸賢之爲會

者若香山之九老洛社之者英稱以一時之盛者非不多矣而舉數世之後聲沈影消無有能繼之者而獨諸賢之會能繼之於久廢之餘而所以恢張闡發者愈往愈極則可不思其故耶蓋諸賢之遊會於此者非徒貪玩於山水之景物必將有取於清曠之觀之超然於物累者可得沂雲氣象也且其講道習禮者無非所以振起儒風而輔相治化者則是豈香山洛社之所有哉此其所以遺風之不歇於久遠也然則是亭之築也實爲諸賢風韻之所寄而豈直爲後人之寓慕與山水之粧占而已哉後人之會講於斯者苟溯求諸賢之風韻而講其道習其禮以振其既頹之風則是亭者將與橫灘之山水同其悠久而諸賢之風與之俱長矣昔朱夫子聚星亭贊以嗣守之難古今共歎爲言則此豈非後人之取當思而蓋加勉於嗣守者耶余特有感於是故於其後人金榮瓊韓昌淵金鍾灌之請記其亭也忘其耄昏而以是諗之若其十四賢之姓諱事歷則有當日之座目與後來之狀述則有不具列云

〈壬戌早秋 花山 權龍鉉 記〉

□ 해설

帶方고을(남원의 옛 이름) 호남에서 유명한 고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文章이 많았다는 것이요 橫灘을 또 남원고을에 명승지라는 것은 山水가 아름답기로 최고이기 때문이다.

옛날 조선왕조 宣祖와 仁祖시절에 고을에 어진선비 十四人이 이곳 橫灘亭에 모여 契를 닦기 위한 規約을 세웠으니 중국 蘭亭과 藍田의 古事와 같았다. 해마다 春三月과 秋九月에 서로 더불어 이 정자에서 道學을 강론하고 예절을 익히니 한 시대 성대한 행사로 傳해왔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속하여 난리를 겪으면서 그 자취는 사라지고 터 마저 폐허가 된지 2백여년이 되었으며 當時 座目(十四人の 성명)이 유일한 근거로 남아있어 참고해보면 지나간 高宗임금 丁亥년에 각 집안 후손들이 그 유적을 추모하며 계속하여 모아 학문을 닦고 그때의 운치를 상기하면서 또 비석을 세워 사적을 기록하여 그 당시의 사실을 傳하였다. 지나간해에 또 의견을 모아 그 윗쪽에 집 하나를 세워 十四人の 얼을 추모하며 또한 봄 가을에 모아 강론하는 장소로 사용하니 이 건물이 곧 橫灘亭이다. 이제야 十四人の 남긴 얼이 오래도록 傳

하게 되었고, 또한 죽히 써서 山水가 한층 더 빛나게 되었다.

대범 橫灘의 아름다움은 十四人으로 말미암아 더욱 알려졌고, 十四人의 이름은 橫灘亭과 더불어 함께 傳하게 되었으니 이는 사람과 땅이 서로 만난 것이며 이땅과 이 정자가 짝이되어 아름답게 되었다. 古人들 가운데 十四人들과 같이 모임을 가진 것은 香山에 九老와 洛社에 耆英會등이 한때의 盛事로 일컬어져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두어 世代를 지난뒤에는 명성도 묻혀 버리고 그림자조차 없어져 능히 계승된 곳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유독 諸賢들의 모임은 오래도록 폐허가 된것을 계승하여 땅을 더 넓히고 사적을 발전하는 것이 더 더욱 지극히 하였으니 그 까닭을 생각해보지 않을 것인가. 대개 諸賢들이 이 정자에서 모여 노니는 것은 다만 아름다운 山水의 풍경만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장차 맑은 느낌을 取할 것이며 속세의 더러움을 벗어나 가히 沂水의 기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道學을 강론하고 예의를 익히는 것이 儒風을 振起하여 정치적 변화에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香山과 洛社에서 일어졌는가, 이는 十四人이 남긴일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함이다. 그렇다면 이 정자를 신축한 것은 실로 十四人들의 일이 깊은 바이니 어찌 後人들이 추모의 정을 붙이고 山水가 아름답다고만 하겠는가. 뒷날 사람들이 이정자에 모아 학문을 강론하며 諸賢들의 운치를 求하며 그 道學을 강론하여 그 예의를 익혀 이미 무너져간 풍속을 振作할 것이니 이 정자는 장차 橫灘에 山水와 더불어 유구한 생명을 같이 할것이요 諸賢들의 바람도 함께 영원할 것이다. 옛날 朱夫子께서 聚星亭에 글을 쓰시면서 계승하여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니 계승하여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한탄이었나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한다면 이것이 어찌 後人들이 取할것을 생각하여 계승해 지켜가는 것에 더 더욱 노력을 더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특별히 이에 느낌이 있었기 까닭에 그 후손 김영관, 한창연, 김종관이 그 亭記를 요청하기에 자신의 정신이 혼미해진 것을 잊고 이와같이 기록하였다. 그 十四賢의 성명과 이력은 當日의 座目과 오가는 狀述에 기록되어 있으니 具列하지 않는다.

<壬戌 1982년 첫가을에 花山 權龍鉉 기록함>

37. 輔仁亭



고달면 뇌죽리에 있으며 1963년경에 鄉約契員들에 의해 建立됐다.

1) 記

亭以輔仁勉強之意也古訓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蓋人不能無過而朋友有責善之道故人之所以成就其德成者固莫大於師友之功矣自國變以來師道廢友意墜世日降俗益漓責善之道無所施焉琮顯竊恐友道之不振與信齋李秉燁竹軒李俊圭晦堂金瑠爲久敬之餘以講倫之義告諸同志諸同志樂聞而樂與之相應者惟石圃李鼎來小山郭在淳竹浦丁相柯隱梁柱泰隱谷林壽澤梅軒金鑑泰隱山王中鉉後松李起仲同夏林鍾年竹坡林敬澤雲齋朴順圭松庵沈相浩耕隱金照烈東泉禹宣命松汀金參述惺庵林鍾軫又溪安秉權雲谷朴仁圭德川林廣澤柯川吳鶴洙愚軒林昌澤希堂陳

奉楨月川金在桓東湖金完述等十四姓二十八家也以歲庚子之秋七月既望開會于帶方府南古達鄉磊淵鼓巖之上蓋有以先賢之所賞以題品也乃序齒而列座舟中設約立規倣鹿洞藍田兩故事是夕刻石面于輔仁坵越四年癸卯春築江頭于輔仁亭以爲每歲春三秋九講道風詠之所凡同舟而立索者相濟之意也相濟者責善之意也責善則輔仁其中矣蓋相勉施也哉

〈癸卯四月之中泮 南谷散人 黃琮顯 記 竹坡老樵 林敬澤 書〉

□ 해설

정자 이름을 輔仁이라 한것은 학문에 힘쓰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옛 訓戒에 가로되 君子는 文字로써 벗을 모이게 하고 벗으로써 나의 仁을 보충한다고 했으니 대개 인간에게는 허물이 없지 않기때문에 責善하는 길이 있는 것이니 故人들의 학덕을 성취하는데 진실로 師友의 功보다 더큰 것이다.

국가에 변란이 있었던 뒤로부터 師道는 폐지되었고, 友意는 떨어져 세상 인심은 날로 낮아지고 풍속은 더욱 야박하여 責善의 길이 지켜지지 않는다. 琮顯씨가 친구간에 도리가 영원히 들추어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信齋 李秉燁, 竹軒 李俊圭, 晦堂 金瑀등과 삼가 오랫동안 생각한 나머지 人倫을 강론한 뜻으로써 모든 同志들에게 告하니 모든 同志들이 듣고 즐거워하여 더불어 서로 호응한자는 오직 石圃 李鼎來, 小山 郭在淳, 竹浦 丁相, 柯隱 梁柱泰, 隱谷 林壽澤, 梅軒 金鎰泰, 隱山 王中鉉, 後松 李起仲, 同夏 林鍾年, 竹坡 林敬澤, 雲齋 朴順圭, 松庵 沈相浩, 耕隱 金照烈, 東泉 禹宣命, 松汀 金參述, 惺庵 林鍾軫, 又溪 安秉權, 雲谷 朴仁圭, 德川 林廣澤, 柯川 吳鶴洙, 愚軒 林昌澤, 希堂 陳奉楨, 月川 金在桓, 東湖 金完述 등 十四姓, 二十八家이다. 庚子년 가을 7월 16일에 남원 남쪽에 있는 고달면 磊淵 鼓巖의 위에서 모였으니 대개 先賢들이 노니시던 곳이다. 나이의 순서에 따라 舟中에 벌려앉아 規約을 세운것은 중국 白鹿洞 規約과 藍田呂氏 鄉約등 두가지 故事를 본받은 것이다. 이날 밤 石面에 輔仁坵라 새기고 4년뒤 癸卯년봄에 輔仁亭을 강가에 세우고 해마다 봄 3월 가을 9월에 道學을 강론하고 바람을

쏘이며 시를 읊조리는 장소로 삼았으니 무릇 舟中에 같이 앉아 契案을 작성한 것은 서로가 어려웠을때 구제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서로 구제한다는 것은 責善을 의미한 것이며 責善을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仁을 돕자는 것이니 서로가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癸卯 1963년 4월 중순에 南谷散人 황종현 기록하고 竹坡老樵 임경택쓰다.>

2) 記

帶方治南鵝江之濱有石盤錯於江崖之下屹然若砥柱之特立於狂瀾之中鄉之善士二十八人合謀作契刻石而曰輔仁坵坵上築亭顏曰輔仁春朝月夕浴乎風乎而逍遙翔羊於坵右或縱談千古或觴詠暢幽攝以威儀而各輸技能鏘鏘然啞啞然自鳴天機與青山流水同其節簇盡季代罕有之美事且流觴之餘凡例規約一依藍田鄉約而行之嗚乎休矣哉大抵結社同志而遊目憑懷以極視聽之娛者靡不鹿世之清餉然有可勉者必須食焉而思思焉而行心不離道德之要身必立禮義之塗養吾真性樂吾天職物與理會境與神融耳目肺肝卷爲己有而蒼蒼潔潔者適爲吾之所用矣苟或不然而極其玩賞之娛而已則無異春禽雕蟲巧音之過而也吾足道哉黃琮顯林壽澤李俊圭金參述甫以多士之意屬記于不佞噫陵谷變幻人不聞大倫之道久矣今此輔仁二字亦可謂警世之木鐸夫朋友輔仁之道五倫之賴而得全者也五倫之各盡其道者莫非朋友之切嗟琢磨責善輔仁之有以致之也故朱子云朋友者天屬之所賴而取正者也又曰朋友之於仁倫其勢若輕而所關爲甚重其名若小而所職甚大由是言之古昔樹風善俗莫切於明倫而明倫之要莫切於朋友之切偲相勉也契中多士懼夫彝倫之沈淪作契輔仁意實淵冰矣噫道之興廢必有兆漸令諸君欲扶紀植倫於漆漆之夜興斯契於斯時陽復消息安知不基於是契也聞此契名感發于中略叙平日所蘊者矣

<歲癸卯清節 玉川 趙敏植 記>

□ 해설

남원(帶方) 고을 남쪽 순자강의 물가에 반석이 강 언덕에 박혀있는데 높다랗게 마치 砥柱가 狂瀾의 가운데 우뚝 서 있다. 고을 선비 28명이 뜻을 모아 契를 창설하고 그 石面에 輔仁垔라 새겼다. 垔위에 정자를 세워 이름을 輔仁亭이라 하고 봄철 달밝은 밤이면 목욕도 하고 바람도 쏘이며 노닐면서 혹은 옛날 역사를 이야기 하기도 하고 혹은 술을 마시며 그윽한 회포를 읊기도 하며 威儀를 다지면서 각자 技能을 보이는데 왁자지껄 玉이 구르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저절로 하늘까지 울려퍼져 靑山과 流水와 더불어 그 곡조를 같이하고 있으니 지금같은 말세에 보기 드문 아름다운 일이다. 또한 술잔을 돌린 나머지 지켜온 凡例와 規約은 한결같이 藍田呂氏 鄉約에 依해 행동하였으니 아~ 아름답기만 하다.

대부분 모임을 맺은 同志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회포를 달래면서 즐기는 것이 속세에 맑은 소리가 아닌것이 없다. 그러나 노력해야 할것이 있으니 반드시 모름지기 밥을 먹으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여야 한다. 마음은 道德의 중요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 몸은 반드시 禮義의 길목에 세워 나의 참된 성품을 기르고 나의 天職을 즐겨 물건과 이치가 만나고 자연환경과 정신 융화하니 귀와 눈이 肺肝이 자기에 있어 씩씩하고 깨끗하여 적당히 나의 사용물이 된 것이다. 혹 그렇지 않고 자연을 구경하고 즐긴다면 봄날 새와 풀벌레의 교묘한 소리에 다름바 없을 것이니 어찌 족히 이야기나 하겠는가. 황종현, 임수택, 이준규, 김삼술등이 선비들의 뜻으로 나(不佞)에게 記文을 당부하였다.

아~ 세상이 변하여 사람들이 人倫의 道를 듣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이제 이 輔仁이라는 두 글자는 역시 세상을 깨우쳐 주는 木鐸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 朋友는 輔仁하는 道理인 것이니 五倫이 輔仁을 힘입어 온전할 것이며 五倫이 각기 道理를 다 한다는 것은 벗들의 상호간 같고 닦으며 善으로 꾸짖고 仁을 도움에서 이루워진 것이 아닌것이 없다. 때문에 朱子が 이르되 朋友는 자연히 맺어진 것이기에 그 힘을입어 나를 바르게 한다 하였고, 또 가로되 朋友란 人倫에 있어 그 위치가 가벼운 것 같지만 관계가 되는것은

매우 소중하고 그 이름은 사소하지만 직분은 매우 크다. 이를 말미암아 설명하자면 옛날에 착한 풍속을 세우게 되는데 五倫을 밝히는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고 五倫을 밝히는데 중요한 것은 朋友간에 숨김없이 서로 노력을 다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이 없다. 契員 여러분들이 몇몇한 五倫이 침체됨을 두려워하여 輔仁契를 창설하였으니 그 뜻이 실로 어름처럼 깨끗하다. 倫道의 흥망 성쇠가 반드사 조짐이 있어 그대들로 하여금 침침한 밤중에 기강을 붙들고 五倫을 바로 세우고자하여 이때에 輔仁契를 창설하도록 한 것이니 陽氣가 회복하는 소식이 이 輔仁契에 있다는 것을 어찌알지 못하였겠는가. 이契의 이름을 듣고 中心에 느낌이 있어 평일에 쌓아 두었던 바를 대략 서술해 보았다.

<癸卯 1963년 4월에 玉川 조민식 기록함>

38. 翠雲亭



고달면 목동리 목동에 위치하고 있음.
1968年度 建立.

39. 南愚亭

고달면 대사리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다.

1) 記

鵝江滾回數三百里至南原谷城之交則與蓼川合而明沙芳草絢映六十里殊觀異景應接不暇寔南方名勝也沿江上下亭樓臺館之節歷落相望近又有三架四楹之構翼然而起於江之左帶社之里則朴君宗植爲其先大人南愚翁作也帶之爲里距江僅半間而曠如輿如各得其宜但以孔道舟車之所不由故賓客非固有事者往往交臂失之余於朴君亦自紛而始面日訪余請記且曰吾先人自少負才帶性氣若將手經綸而濟屯塞已而見世機日陷無所於爲力則杜門鏗跡留心於軒岐之術深得其妙對證投劑賴活甚衆而少伸未伸之志將別營一築扁之以南愚而娛老焉未果而棄請孤然先人自扁豈偶然哉蓋深懲世之愚而用智者之爲而竊比於韓昌黎之全愚劉真長之佯愚而此勗諸不肖輩也子可申其義而使常目之否辭不獲則爲之說曰古之人自稱必曰愚乃實際而非假借也後人從而稱之則心實自智故爲謙恭此其所以終於愚也故聰明睿智仲尼之所以守之以愚也不遠復無祗晦顏淵之所以不違如愚也邦無道深晦免患寧俞之所以不可及之愚也若夫柳柳州之以己之愚而辱溪山泉石者實自以爲智而託於雖愚而有不愚者之物以泄其不平也何足向哉天下之弊恆生於自智而惟愚可以反之今夫褒衣博帶同視折矩讀聖賢談義理自以爲智也而率梳貌蠟言爲己矣恢拓田地吸納風潮掌列全球之表口給英雄之略自以爲智也而舉羊裘△△爲己矣邇之不能守己遠之通足以禍人國推原其故未不自於自智者殆翁之有見於此而既自救其弊竝貽謀於肯堂肯構之後人也歟況傾昔我邦如金人之愚宋而宋亦自愚以支覆亡而尚不鑑於不遠之轍靡哲不愚卽淪胥夷△而後己天乎人乎噫既不能出而有爲則慮而有守寸作不移之愚痛非不愚之愚歟敢以此效一得之愚云爾

〈惟己丑暮春者 竹溪 安塑 記〉

□ 해설

순자강물이 3백리를 돌아흘러 남원과 곡성접경에 이르르면 蓼川과 합류하는데 明沙와 芳草가 6십리를 펼쳐있어 특이한 경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는 호남지방에 명승지이다. 강물을 따라 오르내리면 樓亭과 臺館이 여기 저기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三架 四楹으로 된 정자가 강물 왼쪽 帶社마을에 우뚝솟았으니 곧 朴宗植 君이 그 아버지 南愚翁을 위해 지은 것이다. 帶社里는 순자강에서 거리가 약간 뒤에 넓적하기도 하고 깊숙하기도 하여 강과 마을과 정자가 각각 좋은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孔道이기때문에 舟車로써 자유로히 오고가지 못하는 까닭에 꼭 일이 있는 손님들이 아니면 오가는 것을 꺼려했으며 오고 갈적에 팔이 부딪히는 실례가 있었다. 나와 朴君역시 각자가 복잡한 생활을 하는데 처음 대면하는날 나를 찾아와 記文을 요청하면서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재주가 있었고 성질도 있어 그 기세는 장차 세상일을 經綸할 것 같았었는데 국운이 비색하여 세상 돌아가는 방향이 날로 함정에 빠져 든것을 목견하시고 지혜와 힘을 쓸곳이 없게되자 가정에 발자취를 멈추고 軒轅氏와 岐伯의 의술에 마음을 쏟았다. 그 깊은 妙方을 얻어 환자의 증세를 살펴보고 투약한 결과 그 약효로 活氣를 얻은자 매우 많았으니 젊어서 퍼지못한 뜻을 조금은 편샘이다. 장차 조금악한 정자를 짓고 헛되이 늙었다는 뜻을 담아 南愚亭이라 扁額하려고 하시다가 끝을 내지못하시고 세상을 버리셨다. 이제 孤子가 요청한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스스로 南愚라 扁額 하신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대개 세상이 지혜있는 자를 등용하는 것이 우매하다는 것을 깊이 징계하시면서 韓昌黎(한퇴지)가 全愚라고 하신 것과 劉眞長이 佯愚하는 것에 살며시 비유하였다. 이는 우리 不肖들을 격려하신 것이니 선생님께서 그 뜻을 펴내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바라보며 읽도록 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 요청을 사양하지 못하고 그대를 위해 설명하여 가로되 「옛날 사람이 자신을 일컬어 가로되 우매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지인 것이요 가식이 아니다. 後人들도 옛분들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우매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진실하면 스스로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겸손하고 공경한 것이니 이는 그분들이 우매한듯 하면서 삶을 마친 것이다. 때문에 총명과睿智를 공자께서는 우매한 듯 하

면서 지켜오셨고 멀지않아 회복하여 후회하는데 이르르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顏淵이 이렇게 하기를 어기지 않는것이 우매한 것 같았다. 나라에 道가 없으면 깊이 은둔생활을 하여 걱정을 免할 것이라는 것은 寧僉之의 우매한 것이니 이는 가히 미쳐 가지 못할 우매함이다. 柳柳州 같은 사람은 자기의 우매함으로써 자연 山水를 더럽혔다고 하였으니 실지는 자기의 지혜로움으로써 비록 우매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우매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 자기의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니 어찌 죽히 따라가겠는가 세상에 폐단은 항상 지혜로운데서 생겨난 것이니 오직 우매한듯 하여야 가히 써 폐단을 없앨 것이다. 요즈음 의복을 갖추고 함께 행동을 보이며 聖賢의 글을 읽고 義理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뜻대같은 모습과 꿀같은 말씀으로 자기를 위한다. 田地를 넓히고 세상 풍조를 받아 들이며 손바닥엔 전 지구의 表를 벌려두고 입으로 영웅들의 계략을 주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자기를 위하는데 가까이는 능히 자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며 멀리는 죽히 써 국민에게 화를 끼치는 것이니 그 까닭을 미루워 본다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南愚翁께서는 이것에서 본것이 있어 이미 스스로 그 폐단을 해결하는 한편 즐거운 마음으로 조상의 업적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정신을 후손에게 깨우쳐준 것이다. 더구나 옛날 우리나라 金人이 宋人을 우매하다 하였고 宋人역시 스스로 우매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렀으니 이는 멀지않는 전철을 밝혀주지 못한 것이다. 명철하지도 않고 우매하지도 않아 곧 오랑캐의 함정에 빠지고 말것이니 이것도 하늘의 이치일가 인간의 잘못일가 아~ 이미 능히 출세하여 해야할 것을 못할바엔 생각하여 마음을 지키며 우매함을 옮기지 아니 한다면 참으로 우매하지 아니한 우매함이 아니겠는가 감히 이 記文에서 한결같은 우매함을 배웠다고 할것이다.

<己丑 1949년 늦봄에 竹溪 安 塹는 기록함>

2) 重修記

南愚亭在帶方府南三十里帶洞之陽直朴聘君南溪翁之繼其先大人南愚公之有志未就之志而肯堂者也蓋亭之所以名而演其義公之自扁及李麟谷安慎庵諸先生之敘述備而盡矣不敢復贅惟亭榭屢經星霜而退圯幾

不可支肖孫變君能以父心爲心一遵父行拮之据之綢之繆之一以新修蓋以陶瓦視舊規無損焉猗歟盛矣南愚公之見世機日下杜門鏟跡深究軒岐之術以廣濟蒼生爲己任賴活者甚衆雖百世之下想像其高風況今其賢子孫皆謹約成風不爲世波所浸染而守成世業此足以驗邦無道而沉晦免患寧武子之所不及之愚也抑亦公之自扁愚而裕後之謨歟余參南溪翁彌甥之列竊有感於中者不能以不文辭變君之請而略敘如右以寓景仰之沈迢次板上韻曰

南國爰居自署愚 恭謙猶恐世知吾 軒岐深究神丹寵 隱約何妨峽裡臺
菊塢題詩仍滴露 石田鋤草也兼奴 烟霞奇癖曾如許 休說人間榮且枯

〈歲庚申暮春 月城 金熙烈 謹記〉

□ 해설

南愚亭은 남원고을(帶方府) 남쪽 3십리 지점에 위치한 帶洞마을 양지바른 곳에 있으니 곧 내 빙장씨(朴聘君) 南溪翁께서 그 아버지 南愚公이 뜻을 두고 시작하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세운 건물이다. 대개 정자의 이름과 그 뜻인즉 公께서 스스로 결정한 扁額과 李麟谷 安愼菴 두분 선생의 서술에서 모두다 밝히고 있으니 감히 다시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정자가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무너져 거의 지탱할 수가 없었다. 男愚公의 肖孫 變君이 그 아버지 南溪公의 마음을 잘 읽고 알아서 한결같이 아버지의 행실을 따라 재물을 拮据하고 저축하여 전체를 새롭게 수리하였으니 기와까지도 옛 규모와 비유해 볼때 조금도 손색이 없으니 참으로 아름답다.

南愚公께서 세상 기미가 날로 잘못 되어간 것을 보고 문을 닫고 은둔생활 하면서 軒轅과 伯岐의 仁術을 깊이 연구하여 억조창생을 넓게 구제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기에 건강을 되찾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비록 수백년 뒤 세상에서도 그 높으신 얼을 상상할 것인데 더구나 이제 그 현명한 자손 모두가 세파에 오염되지 않고 조상의 업적을 잘 지켜나가니 이는 족히 씨나라에 道가 없을때는 은둔하여 걱정을 免하는 寧武子의 미처갈 수 없는 우매함을 징험한 것인가 아니면 公께서 스스로 扁額을 南愚라하여 후손을 풍

요롭게 해주는 가르침이라고 할것인가.

나는 南溪翁과 웅서간이 되는 입장에서 조용히 마음속에 느낌이 있었기에 문장력이 부족하다하여 雙君의 요청을 사양할 수가 없었다. 대략 右와 같이 서술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板上韻을 읊었다.

호남땅에 살면서 자신을 南愚라고 했으니
 겸손하여 세상이 나를 알까 두려워 하심일세
 軒岐의 공부를 깊이 연구 했으니 신기한 의술이고,
 은둔생활을 하는데는 골짜 속이 무방해.
 국화 언덕에서 시를 쓰려고 이슬을 따고
 돌밭에 풀을 호미질 하니 농부 일을 겸하셨네
 기특한 烟霞가 이다지도 좋은것
 인간들의 영고성쇠 행여나 이야기하지 말아

<庚申 1980년 늦봄에 月城 김구열 삼가 기록하다>

3) 原韻

東方肯溺號南愚 自愧無謀濟世吾 白兔留鳴春桂白 青驢出掛阮梅壺
 貯畜江屋 三子 耕稼山田付一奴 是時豈可稱才智 木晦其根也不枯

□ 해설

東方조선에 태어나 南愚라고 불렀으니
 무모하게 세상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부끄러워 함이야.

① 하얀 토끼는 봄 桂白에서 울고 있는데,

② 푸른 노새는 매화 술병을 탐내는 구나.

江가에서 저축하여 三子에게 물려 주었고

山田 벌이 하는 일은 노비에게 맡겼다네.

이때 삶을 어찌 지혜롭다 일컬을 손가

나무잎은 젓지만 뿌리는 마르지 않했다고요.

註. 1과 2는 약가는 기구를 표현함.

40. 鰲戴亭

『浴川續志』(天)·『곡성향토지』등에 의하면 彦陽人 游隱 金季甫가 곡성군 古達面 帶社里 鵝子江頭에 세운 晩年の 逍遙之地였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金季甫는 端宗의 퇴위에 悲嘆하여 南來, 은둔하였다 하므로 정자의 건립은 15세기 중엽경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곡성군지』에 主人 金季甫의 元韻과 申末舟, 宋純, 金麟厚, 鄭澈등의 詩가 한수씩 전하고, 『곡성향토지』에 金秀甫의 詩가 한수 전한다. 또한 『浴川續志』(天)에 작자미상의 「八景」이라는 시와 柳希春, 尹斗壽, 金尙憲, 宋浚吉, 李尙眞, 白光勳, 南九萬, 閔鼎重, 許穆의 詩가 한수씩 전하고 있어 정자는 300여년 가까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有名人士들의 시문이 계속되어 지어졌음은 매우 주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

三朝事節戴三天 解紱南來鰲渚邊 月與申君相送日 鵝江亭上宿風烟
 <主人 金季甫>

세 조정 세 임금을 높이 섬기고서
 印끈을 풀어놓고 鰲수 물가로 내려왔네
 申君과 더불어 서로 전송하는 날
 바람과 연기가 순강정 위에서 잠을자고 있구나

2)

風驅歸雁落平沙 水色波光薄暮多 若使龍眼模此景 其如漁笛數聲何
 <歸來 申末舟>

바람결에 기러기떼 모래위에 앉으니
 파도치는 물빛이 해저물때 많아졌어

만일 龍눈으로 이 경치를 그린다면
저 고기잡이 피리소리를 어이 할수 있을까.

3)

三聖老臣不負天 鰲亭古築碧溪邊 弊衣絕味誰能識 寂寞空庭宿暮烟
〈倭仰亭 宋純〉

세 임금 섬긴 늙은신하 君主를 저버릴 수 없어
검푸른 시냇가에 鰲亭을 세웠네
허술한 옷으로 사는 맛을 누가 능히 알손가
적막한 빈 들에는 연기빛만 자욱하구나.

4)

詳梧仁鳥向南天 樓得鰲亭一枝邊 昭昭忠義誰能說 景仰千秋但暮烟
〈河西 金麟厚〉

인자한 봉황새가 남쪽하늘 향하여
鰲亭앞 오동나무 가지 가에 길들었네
반짝이는 충의정신 누가 능히 설명할까
천년이고 만년이고 우러르며 존경하니

5)

三朝思重一身輕 長往非緣勇退情 鰲戴亭前秋月白 也應仙駕向蓬瀛
〈松江 鄭澈〉

나라님의 은혜로 이 한몸 가벼워져
오랜 인연 아니던가 용감하게 물러났네
오대정 앞에 가을 달 밝으니

마땅히 신선되어 봉래 영주로 향하리.

6)

一枝方丈一區關 那識他年教我游 窓前遠秀千峰列 軒外俯臨百頃流
 琴書瀟灑心猶適 世事蹉跎念已休 伴鷗終老鶴江上 悲此清閒憂不收
 <主人 游隱 金季甫>

방잔산 자락아래 열어놓은 마을 터
 어찌 알라 다른 해에 내가 노닐 것을
 창문앞엔 일천봉우리 멀리 펼쳐있고
 마루밖 내려다 보니 물결치며 흐르구나
 쟁쟁소리 깨끗하니 마음도 편안하고
 세상일 무너졌어 생각조차 말자구나
 순자강 위에서 갈매기 짝이되어 늙어가니
 비통하다 이내심정 걱정 멈추지 않구나

7) 八景

野樹秋雲合 朝橫暮又斜 隔江聞犬吠 知是有人家 <右曳山枕烟>

들 나무에 낀 가을 구름이
 아침에도 비껴가더니 석양에도 또 비껴가구나.
 강물가에 개 짖는 소리 들려오니
 이곳에 人家가 있다는 걸 알았어

落野隨孤鷺 騰空暎赤城 却愁於子入 江漲武陵英 <右鶴江朝霞>

들에 내려앉았던 외로운 따옥이
 공줄을 올라 적성강에 비치누나
 문득 고기잡이가 들어올까 수심한건

넘실거린 강물에 무릉도화가 떠내려 갈까봐.

盡日看草山 山顏忽似頰 應嫌着塵眼 雨洗碧嶙峋 <右鷗山暮雨>

해가 다 하도록 草山을 바라보았더니
산 모습이 문득 쩡그린 것 같구나
속 세사람 눈짓이 웅당 싫었는지
비를 뿌려 깨끗이 씻어버리구나

點點明敲岸 熒熒散暗汀 若無漁唱起 誤認隕天星 <右橫灘漁火>

여기저기 등불이 강 언덕을 밝히니
깜박깜박 물가에 어두움을 흩어버리네
만일 고기잡이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나 오인할번 했어

小檻靜敲枕 青山隱暗雷 名藍在何許 風帶梵音來 <右遠寺疎鐘>

난간에서 베개에 고요히 기댈적에
푸른산은 어두운 우뢰소리에 숨어버렸네
절집이 어느곳에 있는지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

十里沙明岸 千群雁下空 渾如烟浪裏 無數亂帆叢 <右平沙落雁>

저 명사십리 언덕에
기러기 떼를지어 벽공에서 내려앉아
연기빛 물빛이 똑같은 속에
돛대와 갈대밭에 셀수없이 어지럽네.

碩勢參差短 人爭暮渡頭 何時架百尺 用代巨川舟 <右短橋行人>

짧은 돌다리 울퉁불퉁한데
해 저물자 사람들 앞을 다투어 건너가네
어느때가 百尺정도 긴 다리를 설계하여
큰 나룻배를 대신해 사용할가

牛眠兒弄笛 是柳綠烟濃 餘響如含恨 無人門臥龍 <右長是牧笛>

소는 졸고 목동은 피리를 부는데
언덕 버들에 푸른 연기 자욱하구나
아슬아하게 들려온 소리 아쉬움이 담긴듯 한데
臥龍선생을 물어보는 사람 없구려.

8)

孤臣頭戴魯陵天 特築茆亭此水邊 忠節分明公不見 斜陽秋艸但荒煙
<眉巖 柳希春>

단종임금 떠받들다가 쫓겨난 신하가
초가집 정자를 이 물가에 세웠다네
충절이 분명한 님은 보이지 않고
저녁노을 가을 풀에 연기만 끼었구나.

9)

歸來遊隱兩賢公 節義堂堂一代同 胡爲一褒一無褒 景仰天秋高士風
<梧陰 尹斗壽>

돌아와 은둔하신 두분 賢人이시여
 당당하신 절의는 한 시대에 같았네
 어찌된 일인지 한분은 포양되고 한분은 암되었으니
 천만년 높으신 얼 삼가 우러러야 해

10)

解紱南來任率真 三朝遺澤小亭新 家聲世世簪纓族 志業堂堂節義人
 跡混林泉閒臥客 策違廊廟贊襄臣 深懷時與申公語 一代高名獨絕倫
 <清陰 金尚憲>

솔직하게 벼슬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三朝에서 기친 혜택 조그마한 정자 새로웠네
 집안은 대대로 벼슬해 온 氏族이고
 뜻한바가 당당했으니 의로운 인물이지
 자취는 林泉에 들어가 한가로운 손님이었고
 계책은 조정을 도와주는 신하 아니었어
 이따금 申公과 더불어 쌓인 회포를 달래었으니
 당대에 높은 이름 홀로 뛰어나셨네

11)

百年心事一朝明 隱跡不能掩素誠 驚背求仙非本趣 鶴江濯足卽真情
 田園故宅招歸盤 梅月誰家共義聲 烈士平生高蹈意 至今孤鷺影崢嶸
 <同春 宋浚吉>

한백년 마음이 하루 아침에 밝았으니
 은둔한 자취는 본래의 충성을 능히 가리지 못했네
 驚背에서 신선 놀이함은 본래의 취지 아니었고

순자강에서 발을 씻음이 곧 님의 진정이었어.
 반과 정원이 있는 옛집에선 盤谷으로 돌아간 李愿을 부르는듯
 매화와 달 밝은 누구집인가 의로운 목소리를 함께했나
 烈士님의 일평생 고상하신 뜻은
 지금도 의로운 따옥이 그림자 처럼 위험했네.

12)

鰲背亭高古首陽 俊翁遺撰仰遺芳 令名一代簪纓列 素節三朝日月先
 展也仙緣迎鶴駕 居然世慮隔羊腸 遊山隱入非公志 爲掇荒詞恨未詳
 <晚庵 李尚眞>

鰲背에 정자 높았으니 옛 수양산이라고 할만해
 면앙께서 시를 지어 꽃다움을 남기셨네
 어진 명성은 당대에 벼슬줄에 끼었고,
 본래 충절은 三朝에서 日月의 빛이었네.
 신선을 인연하여 학을 맞아 노닐었건만
 어느덧 세상살이 험난한 길이 막힌듯해
 산속에 들어가 은둔한건 님의 뜻 아니었어
 서투른 글 솜씨라 자상히 못한것이 아쉬워.

13)

頭戴莊陵萬古天 心存寧越錦江邊 鰲亭當日昭昭節 秋草鵝溪但夕烟
 <玉峯 白光勳>

천만년 단종임금을 우러러 받들었기에
 마음은 영월땅 금강가를 맴돌았어
 그당시 대오정에 충절을 바랐건만
 순자강에 가을풀과 저녁연기 뿐이었어.

14)

誠以輪君孝以親 簪纓率業率天真 忠爭日月經三朝 跡托江湖老一身
萬古聲名傳有美 九重褒善世無人 亭云鰲戴知其意 況與印公作好隣
〈藥泉 南九萬〉

임금께 충성하며 어버이께 효도했으니
벼슬하여 나라일에 진솔할 뿐이었어
日月같은 충성으로 세 조정을 섬겨왔건만
발자취를 江湖에 의탁해 늙은이 신세였다네
천만년 명성은 아름답게 전해왔는데

15)

六臣一代正郎公 威烈之孫有祖風 退臥南湖全晚節 拜倚北斗供餘忠
當時何志歸來子 後日知心俛仰翁 誰識亭名鰲戴意 三朝大義此間崇
〈老峯 閔鼎重〉

사육신과 한 시대에 正郎벼슬 지내신 님
威烈公의 후손으로 조상의 얼 있었네
호남으로 물러와서 만년 절계 온전했고
북향4배 하면서 못다바친 충성 바쳤다오
그 당시 무슨 뜻으로 돌아온 님이었던가
뒷날에 그 마음을 면양께서 알았소
누가 알것인가 정자 이름 戴鰲라는 뜻을
세 조정 섬긴 큰 뜻을 이 사이에서 숭배해야지.

16)

鰲戴亭高樓隱處 清風懿節尚依依 松篁結契全天分 魚鳥同盟絕世機

水白千年巖子瀨 山青萬古伯夷微 曉看孤鷺晴峰去 猶想烏巾坐翠微
〈眉叟 許穆〉

鰲戴亭^① 높고 높은 그윽한 곳에
맑은 바람 아름다운 충절 아직까지 남아있어
송죽처럼 맺은 절의 임금 위해 온전했고
세상 인연 끊기로 魚鳥들과 맹세했네
수천년 물빛하얀 巖자룡의 물가요
수만년 푸른산은 백이숙재 고사리라네
봉우리를 지나가는 외로운 따옥이를 새벽에 바라보면서
烏巾(隱士가 쓴 거문두건)을 쓰고
푸르름속에 앉아있는 님의 모습 상상했어.

<註①: 큰 자라가 산을 이고진다는 뜻이 임금의 은혜를 이고 진다는 것>

41. 晚翠亭



광산군에서 지주(만석궁)로 행세했던 박달주란 위인이 가세가 기울자 1924년에 곡성군 오산면에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노인들의 문화공간이 없음을 안타까히 여겨 1925년에 현 옥과면 옥과리에 만취정을 건립하였다하며 큰아버지가 손이없어 조카인 박달주를 양자로 삼아 늦게 재산을 얻었다 하여 만취정이라 하였다함.

42. 觀政樓

위치는 알수 없으며 현존하지 않는다. 『곡성군지』에 河西 金麟厚의 시가 전할 뿐이다.

1)

此身初豈爲功名 抱病年來白髮生 舊識南樓曾擅勝 今看東閣更專清
黃堂嘯詠供餘事 白屋謳歌屬太平 檻外最憐波映竹 炎天猶作九秋聲

<金麟厚>

이 몸이 처음부터 어찌 공명을 뜻했으리
병을 앓고 나니 백발이 성성하네
남쪽 다락 좋은 경치 옛부터 알았는데
이제보니 동쪽 집은 더더욱 해맑구나
黃堂(군수 관사)에서 읊조리며 남은시간 보내고
白屋(일반인의 집)의 노래가락 태평성대 아닌가
난간너머 보이는 어여쁜 저 대나무는
한 더위에 오히려 가을소리 내는구나

43. 椅雲樓

玉果 客舍 동쪽에 있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여지도서』(下)·『邑志』(四)·『곡성향토지』등에 간단한 기록이 남아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곡성군지』에 成任의 시가 전한다.

1)

登臨無限景 春盡獨搔頭 虛榻松鳴雨 遙村麥借秋

關山勞北望 身世付東流 日夕愁雲合 歸心爛不收
 <成 任>

끝없는 경치를 올라서서 바라보니
 봄이 다 지나버려 홀로 멀리 걸었네
 산봉우리에 소나무는 비에 젖어 울고
 먼 마을 보리는 가을빛을 빌어왔어
 關山 북쪽을 애타게 바라보니
 이내 신세 방랑객이 틀림없구나
 밤낮없이 저 구름도 시름이 있는듯
 돌아가고 싶은 마음 걸잡을 수 없구려

44. 合江亭

『곡성군지』에 의하면 玉果 동쪽 15리 지점, 二水가 합류하는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草溪人 鄭雲鵬이 丙子胡亂시 의병을 일으켰으나 이미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후, 세상에 뜻이없이 세웠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곡성향토지』에 비슷한 내용과 함께 鄭雲鵬의 시가 한수 전하며 『조선후남지』(2)와 『곡성군지』에도 鄭雲鵬의 동일한 시가 남아있다. 『곡성군지』에는 李沃의 시도 전한다. 그밖에 『玉果縣志』·『浴川續志』(天)에 간단한 기록이 남아있다.

1)

城現之西江水深 紅塵不染白雲深 天低迴野山屏簇 臺壓長湖月古今
 好客閒情滿樽酒 主人清致一張琴 從茲却笑漁舟子 靈境何須後日尋
 <鄭雲鵬>

성(城) 서편에 강물이 흐르니

흰구름 깊은 곳에 紅塵이 일지 않아
하늘과 들은 아득하고 산이 우뚝 솟았는데
대(臺) 아래 호수의 달빛은 예와 지금이 다르지 않구나
한가로운 손님 앞에 술동이 가득하고
주인의 취미는 거문고 한 곡조라네
이날따라 우습구나 고기잡이 친구들아
이 선경이 번거로우니 후일엔 찾지마라.

2)

茅軒一夢繞仙亭 驚罷庭前鶴淚聲 曾得輕船風勢利 不孤秋月滿江明
〈參判 李沃〉

초가집 仙亭에서 단꿈을 꾸다가
앞뜰 학울음 소리에 깜짝 놀라 깨었네
술술부는 바람결 따라 뱃놀이 할제
가을달이 밝혀주니 외롭지 않구나

45. 涵虛亭



1) 沿革

涵虛亭은 옛 玉果縣東쪽으로 二十五里지점 涪湖의 위에 위치하고 있다. 앞에는 큰 江물이 출렁거리고 白砂場은 아득하며 뒤로는 높은 山을 등졌는데 立石이 우뚝 솟아 있고 亭子아래 황소만한 巖石은 그 형상이 마치 거북과 같고 물위로 露出되어 있다. 그 위에 앉아 가히 낚시줄을 드리울만한 까닭에 이름하여 龜巖釣臺라 불리운다. 또한 들하나가 釣臺곁에 있는데 石面이 마치 깎은것 같으며 長廣이三尺남짓 하고 龍字가 거꾸로 쓰여 있는데 글자의 크기는 손바닥보다는 더 크며 이름을 龍岩이라 부르고 신이 썼다는 傳說도 있다. 沈霽湖公 光亨이 비로소 이곳에 亭子를 세워 이름을 涵虛亭이라 부르고 學問을 研究하는 곳으로 삼아왔다. 그의 孝行과 禮學이 嶺湖南에 알려졌으므로 本道伯인 思齋 金正國이 조정에 올린 狀啓에 「孝道는 曾子를 承襲하였고, 學問은 朱子를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霽湖公 再從兄 左

參贊 鈍庵 光彥이 本道伯으로 赴任한 뒤에 이 亭子에 이르러 江山의 勝景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古詩에 三公(영상·좌상·우상)과도 바꾸지 않는다 는 句節이 있는데 아마 이 江山을 가리켜 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 亭子는 公의 六世孫인 通德郎 柱礎에 의하여 重建되었고, 八世孫인 昌鎭과 十二世孫인 雲澤에 의해 重修가 계속되었다. 霽湖亭의 遺集은 壬辰倭亂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지만 정자는 오늘날 네차례에 걸쳐 重修되었고, 九世孫인 永橋 進士 斗永이 詩를 지어 懸板하였고 본고을 縣監崔瑗이 序文을 지었으며 紫霞申緯가 篆字를 썼다.

2) 序

人之能戴大圓履大方鏡大清隱大崇得灑氣之門入神明之舍游心於虛而返性於初者蓋千百年而未一二有亦千百里而未一二遇也余在京師聞湖之南有二名亭一曰合江一曰浩然及莅雪山按縣志斯二亭者俱在縣東一二十里地合江鄭氏亭也浩然沈氏亭也暇日肩輿出遊合江江山之勝真使人飄飄有伊洛間意而亭則墟矣詢于居人鄭氏創亭今三百年屢易主近歸梁氏墟亦已三十年矣地之形勝固不繫乎亭之存不存而亦不能無感於興廢悵然而歸其明年夏因天旱循野省稼至霽湖得一亭而少憇即所謂浩然亭也背峻嶺對平湖右遼林左矗石景概蓋如合江而虛曠明靈較勝之又有龜龍岩者或起或伏各象其形而龜作釣臺龍留神篆亦德觀也試一倚檻而望之宛然登太皇太一臨大廓之宇游無極之野玩天地於掌握之中仍訪舊蹟于主人主人曰吾祖霽湖始南來相宅于茲築一屋構一亭屋至今歌於哭於亭至今息焉游焉亭初在嶺巔扁霽湖以湖名也至龜岩移建于此乃扁浩然龜岩之孫又扁其所居堂曰善養址之形便稍異扁之名義不同而亭則一也自是相傳者今十世亭後建一祠妥忘世亭之龜岩七世四賢之靈而俎豆之今吾沈之散在茲縣者皆霽湖出也余聞而謂然歎曰天地即一蘧廬屋宅亭榭又蘧廬之蘧廬也度信羅合之宅曾易其主王祭崔灑之樓曾閱幾年如李德裕平原之庄誠子孫永世勿驚而之數世已屬他人近世自余所觀聞

如茲縣之合江者在在皆是有洞陰縣有金水亭擅勝國中金氏相傳八世余亦嘗一寓目而艷之近聞其主人遭羅飄零未知金水尚屬金氏乎金水之側亦有金氏四賢之祠乎然則又未可與斯亭比也余於此又有感焉沈氏之祖自浩然善養扁亭而扁堂其所養可之己今其子孫居是堂而登是亭者亦能善養浩然氣如其先祖否乎是有望於沈氏云爾

〈時 壬寅中秋 首陽 崔瑗記〉

□ 해설

사람이 능히 大圓(하늘)을 이고 大方(땅)을 밟고 大淸(바다)를 거울삼고 大崇(높은산)에 處하여 灑氣의 門을 얻어 神明의 집(솨)에 들어가 마음을 비우고 本性으로 돌아간 자는 아마 千百年에 한둘도 있지 않을 것이요 또한 千百里에 한둘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 京師에 있으면서 湖南에 두 이름난 정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合江이요, 하나는 涵虛이다. 마침 雪山(玉果)에 赴任하여 縣誌를 살펴보니 이 두정자가 다 縣의 東쪽 一, 二十里에 있는데 合江은 鄭氏의 亭子요 涵虛는 沈氏의 정자이다. 暇日(休日)에 肩輿(연)로 合江에 나가노니 江山의 勝景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飄然이 날아와서 伊水와 洛水사이에 서있는게 아닌가 하였고, 정자는 빈터였다고 그곳사람 더러 물으니 鄭氏가 처음에 정자를 지은것이 지금 三百年인데 屢次 主人이 바뀌었고 近來에 梁氏에게 돌아가 빈터가 된지 이미 三十年이라 하였다. 이곳의 勝景이야 진정 정자의 存廢에 관계가 없으나 人事의 興廢에 感慨가 없지 아니하여 悵然히 돌아왔다고 그 이듬해 여름 가뭄으로 인하여 들녘을 돌아 농사를 살펴보고 霽湖에 이르러 한 亭子에 들쳐 잠깐 쉬었는데 다름아닌 涵虛亭이었다. 뒤에는 峻嶺이요 平湖를 떠었고 오른쪽은 遼林이요 왼쪽은 巖石이라 景致는 대체로 合江亭과 같으나 앞이 탁트여 시원함은 더 나았다. 또 거북과 용바위가 일어나고 엎드림이 각각 그 形像을 하였는데 거북바위는 釣臺가 되고 龍바위는 神筭이 있어 또한 壯觀이었다. 시험삼아 한번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니 宛然히 太皇(上帝)이 되어 太空을 비기고 太廓의 집에 臨한듯 하고 無極의 들에 놀며 掌中의 天地를 구경한듯

하였다. 이에 주인에게 옛자취를 물으니 주인이 이르기를 「우리 先祖 霽湖公(家乘에는 都正公이 처음 玉果에서 살았다 하였음)께서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셔서 이곳에 터를 잡아 집과 정자를 지었는데 이집에서 지금까지 屢代를 살아왔고 이 정자에서 지금까지 쉬고 즐깁니다. 처음에는 고개마루에 있었고 霽湖라 扁額하였는데(家乘에는 涵虛라 하였음) 湖水 이름을 따른것이요 龜岩公때에 이르러 이곳에 移建하고(家乘에는 龜岩의 孫諱世益의 號가 湖然亭임) 湖然亭이라 扁額하였고 龜岩의孫 世寅이 또 居處하는 집을 善養堂이라 扁額하였다. 터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 扁額의 名義가 같지 않지만 亭子는 하나이며 傳해온지 지금 十世요 정자뒤에 한 祠宇를 세워 忘世亭으로 부터 龜岩에 이르기까지 七世四賢의 위패를 모셔 제향을 받들고 있으며 지금 우리 沈氏가 이 고을에 散在하여 사는 사람은 모두가 霽湖의 後孫들입니다.」하였다. 내 듣고 감탄하여 이르기를 천지가 곧 하나의 집이요 屋宅과 亭榭는 집안에 있는 집이라 하겠는데 庾信과 羅含의 家宅은 主人 몇번이나 바뀌었고 王粲과 崔灝의 樓臺는 몇년이나 지냈는고 李德裕의 平泉別庄도 子孫들에게 警誡하기를 永世토록 팔지 말라 하였건만 數世에 이르러 이미 他人의 것이 되었고 近世에 내가 보고 들은바 이 고을의 合江亭과 깊은 例도 이와 같다 하겠다. 오직 洞陰縣에 金水亭이 있는데 勝景은 國中에서 으뜸이며 金氏가 八世를 相傳하였고 나 또한 일찍 한번보고 부러워 하였는데 近來에 들으니 그 主人이 患難을 만나 飄零하였다 하니 金水亭이 아직도 金氏의 것인지 모르겠고, 金水亭곁에 또한 金氏의 四賢의 祠宇가 있어 그러하거니와 또 이정자와는 比할바가 못되는지라 내 여기에서 또 感懷가 깊었다. 沈氏의 祖上들이 浩然과 善養으로 亭子와 堂에 扁額하였으니 그 修養한 바를 알만 하겠고 지금도 그 子孫들이 이 堂에 살고 이 亭子에 오른자 또한 能히 浩然之氣 善養하기를 그 先祖들과 같이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沈氏에게 바라는 바이다. 憲宗 八年 壬寅(一八四二)仲春에 首陽崔瑗은 序를 하고 紫霞申緯는 篆字를 쓰다.

3) 九世孫 秉橋進士 斗永의 詩句는

野曠天晴古木愁 넓은 들 갠 하늘 古木은 시름하듯

吾家九世一亭留
 長江中屈龍巖山
 大界西虛瑞石浮
 村老投竿呼遠酒
 農人迎客載歸舟
 若爲如此千回構
 流水高山共萬秋

우리집 九世祖 亭子가 여기 있네.
 굽이친 長江에 龍바위 솟았고
 북트인 서쪽에는 瑞石山 떠 있구나
 낚시하는 늙은이 술사오라 소리치고
 농부는 손님맞아 배에태워 돌아보네
 이번같이千번을 술질 한다면
 流水高山과 萬年을 함께 하리

글씨는 李三晩이 쓰다.

4) 判書 閔泳奎가 읊은 시귀에는

鶴子江聲滌萬愁
 一樽領略漫淹留
 長洲曲折蒼龍偃
 大野微茫白鳥浮
 我與光陰俱遇客
 君將臺榭沔虛舟
 文章仙吏先吾得
 不薄風流度幾秋

순자강 물소리에 온갖 시름 씻고서
 들이서 술마시며 부질없이 머물렀네
 굽이친 강줄기 蒼龍이 누운듯
 아득한 큰 들판에 白鳥가 떠있구나
 이내몸 光陰같은 過客이건만
 그대는 정자아래 빈 배만 띄울손가
 文章과 仙吏를 나먼저 얻어
 흥겨운 풍유로 몇해를 지냈는가

5) 都事 心石 宋秉珣이 읊은 시귀는

丈夫何處可消愁
 却向湖然亭上留
 天地東南英氣華
 雲林古今彩輝浮
 引樽豪興凌山嶽
 凭檻閒情勝艫舟

丈夫가 어느곳에 시름을 삭일거나
 어느새 浩然亭에 머물렀구려
 天地는 東南쪽에 英氣가 빛나고
 雲林은古今에 彩色이 떠있구나
 술잔드니 호망한 洪山악을 옹켜 절듯
 난간에 한가한 情船遊보다 나올세라

朗誦一篇鄒聖語
曾襟泚渺濯清秋

孟子的浩然章을 낭낭히 외우니
가슴이 활짝티어 가을하늘 이어라

6) 十二世孫 石田繼澤은 읊기를

亭臺縹緲絕塵愁
涵養乾坤浩氣留
是我祖先曾學問
任他流俗自沉浮
江山不換三公地
樵牧同遵一路舟
願使後孫能守保
承家孝友萬春秋

이亭子 아스름 세상 시름있고
乾坤의 浩氣를 涵養하누나
이곳에 우리선조 학문을 쌓던곳
흐르는 세월속에 榮苦盛衰 겪었다네
三公과 바꿀 수 없는 이 江山
樵童牧 짝을지어 한뼘길 오간다
바라노니 우리 후손 잘지켜 간다면
傳해온 孝友 千萬年 이어가리

46. 杜菴亭



입면 흑석리에 있으며 1600년초에 沈敏謙씨가 建立했다.

1) 記

雪山之鄉金江之谷鳥頭聳蒼而巍然者扁曰杜菴亭此地既有山水之勝以杜菴顏之者何也余嘗叩其實則在昔 昭小敬之世有沈公諱敏謙 莊陵名臣忘世亭諱璿五世孫也忠孝天植事親極孝弱冠值壬辰島夷之亂慨然起義從權元帥運餉不乏而得樹大功南原之戰被創幾危而僅甦明將劉縱歎其忠勇順天之役多樹奇功道臣狀聞而特 除主簿 仁廟甲子逆逆射天奮然起復而倡義至公州賊平而還制本倅與搢紳合疏陳奏而未蒙恩褒莫無有從中猜甚而尼之者歟不然豈有守臣之奏而不見覆盆之照乎逮夫丁卯弘立之變扈從 東宮封章陳弊丙丁建虜之亂又聚義穀轉輸江都

及南漢失守西向痛哭上疏斥和而歸老于此自號杜菴而逍遙徜徉於雲林泉石之間而不復志於進取蓋有深意於春秋之義也此亭即公之候孫樂基就其杖履地所建而慕公之風義而扁以杜菴者也噫今洋風懷襄綱常敦絕禮義土苴人不爲人而惟利是循樂基獨慕先祖感忠孝可謂超乎名利海千丈出其胤魯成君亦不流於世波奔蕩之中力贊其大人做好事可知其世濟忠孝而絕羣之人也孰謂芝醴無根源乎吾願登斯亭者周覽景物而管領風光心曠神怡萬累俱消仍念杜菴之孝於親忠於君而勇退名利場之卓節奮忠孝之心勵廉退之操則斯亭也不但爲覽物暢懷之所而已實爲立懦廉頑之爐鞴矣吾友石坡金君爲余道樂基魯成之事而其意屬余記之余竦然改容曰信乎呂榮公之言喜言無好人三字者可謂自賊者也余常憤時嫉俗往往言世無人琴因沈氏父子而改之矣然則斯亭也一而四美俱杜菴之忠孝復闡於世魯成父子之輕財貴德可砥貪饕登臨者反省而有立廉之化因此而無好人三字將絕於口斯亭也豈以尋常遊賞之臺榭比哉是可爲世勸而記之如右

歲舍壬寅榴花月潭州田鎰健書于光山之景陽潭上客館

□ 해설

雪山 金江 골짜기 鳥頭에 날을듯이 유독한 집을扁額하여 杜菴亭이라 하였으니 이땅에 山水의 勝景이 있는데로 杜菴으로 이름을 한것은 왜인가? 내 그 事蹟을 살펴보면 옛날 朝鮮朝 宣祖時代에 沈公 諱敏謙이 계시니 莊陵(端宗)名臣忘世亭 諱璿의 五世孫이시다. 忠孝를 天性으로 타고나 父母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 스러웠고 弱冠에 壬辰倭亂을 만나 慨然히 義兵을 일으켜 權元帥를 따라 運糧不絶로 大功을 樹立 하였고 南原의 싸움에는 創傷을 입어 幾絶하였다가 겨우 살아나니 明나라 將帥劉綎이 그 忠勇에 感歎하였고, 順天의 싸움에 奇功을 많이 세움에 道伯이 朝廷에 알려 특별히 主簿를 除授하였으며 仁祖甲子 李适의 亂에 奮然히 倡義하여 公州에 이르니 賊이 平定되어 돌아왔다. 본고을 守令과 縉紳이 뜻을모아 上하여 褒賞을 奏請하였으나 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니 從遊中에 猜忌자가 있어서인가? 그렇지 않

고서야 어찌 守令의 奏遠이 있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였겠는가? 丁卯 姜弘立의 變亂에는 東宮을 扈從하여 封章으로 時弊를 陳述하였고, 丙子胡亂을 當하여서는 또 義穀을 모아 江華로 輸送하였고, 南漢山城이 降服함에 이르러 西向痛哭하고 斥和를 主張하여 上疏하고 돌아와 이곳에서 餘生을 보내며 杜菴이라 自號하고 雲林泉石의 사이에서 逍遙徜徉하며 다시는 進取에 뜻을 두지 않았으니 대체로 春秋大意의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이 亭子는 곧 公의 後孫 樂基가 그분의 杖履가 머문곳에 亭子를 세워 公의 風儀를 追慕하여 杜菴으로 扁額한 것이다. 아! 지금 西洋의 風俗을 模倣하여 綱常이 끊어지고 禮義가 땅에 떨어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名利만 다루거늘 樂基홀로 先祖를 追慕하고 忠孝에 感動하였으니 名利의 場을 超越하였다 하겠다. 그 아들 魯成君도 또한 世波의 急流에 휩쓸리지 않고 즐겨 그 大人의 일을 힘껏 도왔으니 대대로 忠孝를 이어온 絶倫한 사람임을 알수 있겠다. 뉘 芝草와 醴泉이 根源이 없다하겠는가? 내 願하노니 이 亭子에 오른자 景物을 두루 觀覽하고 風光에 陶醉되면 마음 탁트이고 神氣가 和悅하여 만가지 愁心이 함께 쓰러질 것이요. 따라서 杜菴의 孝親 忠君과 名利의 場에서 勇退한 卓節을 생각하여 忠孝의 마음을 奮發하고 廉退의 志操를 激勵한다면 이 정자 다만 風物을 觀覽하고 懷抱를 푸는 場所가 아니요 진실로 儒夫를 自立케 하고 頑夫를 清廉케 하는 陶冶의 場이 될것이다. 나의 벗 石坡金君이 나를 爲하여 樂基 魯成의 史實을 일러주면서 그 사람의 뜻으로 나에게 記文을 부탁하기에 송구스러워 容貌를 고치고 이르기를 「呂榮公의 無好人(좋은 사람 없다는 뜻)三字를 즐겨 말하는 것은 自身을 害친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하였다네. 항상 時俗을 분개하고 미워하면서 이따금 세상에 사람 없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深氏父子로 인하여 고치겠다고저 할진데 이 정자 하나에 四美(네가지 좋은점)가 함께 할것이니 杜菴의 忠孝를 다시 世上에 闡揚하고 魯成父子의 輕財貴德은 貧富를 일깨우고 登臨한자 反省하여 儒夫를 서게하고 頑夫를 廉케 하는 教化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無好人三字를 입에서 끊을 것이니 이 정자가 어찌 보통 遊賞하는 臺榭에 비할 것인가? 이는 진정 世上의 勸戒가 될것임으로 右와 같이 記錄한다.

壬寅(一九六二) 五月 日潭州 田鎰健은 光山 景陽 潭上容客館에서 씀

2) 八世孫 樂基의 詩

先祖功勳啓後生	선조님의 功勳이란 後生の 길 활짝 열어주는것
杜翁忠義感天誠	杜菴님의 충의정신 나라님도 감격했지
靑松本節家傳業	靑松의 본래 절계란 가문에 전통이고
黑石幽莊地秘名	黑石의 그윽한 집터 감추어둔 名基라네
志與權公心力盡	權을과 뜻이 같아 心力을 다했고
身呈邦國絕綱明	나라에 몸을 바쳐 기강을 밝히셨네
古庵一念新亭建	옛집을 꾸준한 생각으로 새롭게 세웠기에
活水平沙撥我情	솟는 물 모래필이 나의 심정 펄떡솟게 하누나.

(이 시는 8세손 樂基 지음)

3) 月城 金錫麟의 詩

言及龍蛇義氣生	임진왜란을 이야기 하노라면 의기가 솟아나
後仍寓慕杜翁誠	杜菴님의 충성을 후손들 그린다네
當年立節眞忠膽	그 해에 세운 충절은 진정한 담력이기에
永世流芳是令名	영원한 세상에 어진 이름 남기셨지
國亂如公良相烈	나라가 어지러울땐 公과 같이 맹렬해야 하고
地平有此勝區明	지세가 평편한데 이 명승지가 있었어
雪山自是言言重	雪山은 이때부터 높고도 소중한데
靑松黑石惹人情	靑松과 黑石은 인간의 심정 끌어당기누나

(이 시는 경우 김석린 지음)

47. 寒碧亭



곡성군 입면 서봉리 455-1

학식이 넓고 德望이 높은 간송 崔正漢씨가 1953年 6月 18日 住民들의 글을 깨우치고 老人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각의 형식으로 동네 청년들을 동원하여 건립하였다함.

48. 月巖亭



곡성군 입면 입석리 산 31

錦石 金鼎潤(正祖~純祖)의 녀을 기리기 위해 그 孫子들이 건립하여(建立年代 末詳) 1927년에 重建하였고 다시 1958년에 錦石의 6代孫들이 重建하였다함.

谷城郡 立面 遺蹟學術調査에는 錦石 金鼎潤이 세운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관리인 立石里 212 김동현(61세)씨는 錦石의 녀을 기리기 위해 그 子孫들이 건립하였다함.

49. 學古堂



1) 沿革

玉果 立面 立石里에 位置하고 있다.

學古堂의 姓은申이요, 貫은平山이요, 諱는 夏熙 字大允 又字性湜 又號筠石이다. 始祖는 高麗太師壯節公諱崇謙이요, 派祖는 左議政文僖公 諱槩요, 顯祖는 己卯八賢 貞淸公 諱命仁이다.

- 西紀1854(檀紀4187) 甲寅 12月 16日 本第에서 出生, 自幼로 學問에 專念하여 諸子百家 四子五經等を 博覽하였으며 崔勉庵 益鉉 申農山得求 奇松沙宇萬 諸先生과 從游했다.
- 西紀1901(檀紀4234) 辛丑春에 學古堂을 修築하여 遠近後進을 教導해오다.
- 西紀1908(檀紀4241) 戊申春에 公이 몸소 艮齋先生에 執擘하여 定分하였다.
- 西紀1935(檀紀4268) 乙亥 6月 20日에 享年82세로 逝去하다.
- 西紀1941(檀紀4274) 辛巳秋에 長孫 彥繩이 頽落된 學古堂을 重建하여

遠近後進들을 敎導하면서 6·25庚寅 動亂을 겪었다.

- 西紀1954(檀紀4287) 甲午春에 彦繩이 다시 學古堂을 擴張補修하다.
- 西紀1990(檀紀4323) 庚午春에 曾孫亨澈이 本堂의 崩壞即前임을 慨嘆하여 積置金을 拮据하고 다시 昆季 및 門生들과 合議하여 村前⁽³⁰⁶⁾₍₄₄₆₋₄₎번지에 移建하여 現在에 이른다. 또 筠石先生 遺墟碑 改勉齋公學行碑 石峰先生紀蹟碑도 并豎했다.
- 西紀1992(檀紀4325) 壬申秋에 曾孫亨澈이 長曾孫聖澈과 合議하여 學古堂 題詠集 石峰遺稿 誌狀錄을 刊行했다.

2) 題詠集跋

余與申友亨澈相知多年觀其言行每自意其有所受頃歲來示其曾王考學古堂公事行之錄始知其家政之傳有所本源也蓋學古堂韓末高士也於艮齋田翁年無甚差而甘心師事篤信無疑行己以忠信篤敬爲本御家以孝弟禮讓爲先敎人重經術而後文藝故公所居家而里而鄉而子弟多興於行雖因生丁叔季未克展布所蘊於一時遺化及於久遠斯其爲世道補則大矣公本生于谷城之下竹而中歲來居玉果之立石嘗築一室顏以學古蓋取朱晦翁絕今不爲惟古是學之訓而沒後堂因頽毀旋又重建今由曾孫亨澈倡合家中又重新之可見公德澤之津津而未沫也申友嘗蒐編諸家所次學古堂韻合原韻爲帖子蓋不啻數百首其間固不無琬琰瓦礫之分而要皆出於尊仰學古翁之志則爲其子孫者安得不珍藏而圖壽其傳也方付手民得弁文於尹丈丁鏡氏又要卷尾一言於余余謂弁文已盡之顧何待於贅說之贅陳而申友猶執不捨乃爲之叙所感如此以副其請且以寓區區敬仰之意云

大韓光復四十八年壬申二月 日

星州 李栢淳 跋

□ 해설

내가 申友亨澈로 더불어 서로 알고 지낸지가 여러해가 되었다. 그 言行을

보고 매양 스스로 생각하기를 傳受한바가 있으리라 하였더니 몇년전에 그 曾祖考 學古堂公의 事行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므로 비로소 그 家政의 傳이 本源이 있음을 알았다. 學古堂은 韓末의 高士다. 艮齋田翁과 연치가 심히 차이가 나는것이 아닌데도 甘心하여 師事를 하고 篤信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몸가짐을 忠信篤敬으로 근본을 삼고 집을 다스리기를 孝弟 禮讓으로 우선을 삼았으며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經術을 重하게 여기고 文藝를 後로 하였다. 그래서 公이 居하는바는 집이고 마을이고 고을이고간에 子弟들이 行실을 힘쓴 사람이 많았다. 비록 말세를 당하여 포부를 一시에 破보지는 못했지만 遺化가 오래도록 미처가니 그 世道에 도움을 준바는 크다. 公은 본시 谷城의 下竹에서 壯生을 했는데 中年에 玉果의 立石으로 와서 살면서 일찌기 一室을 짓고 學古라고 액호를 붙였다. 그것은 朱晦翁의 「지금은 끊고 하지 않으며 오직 옛것만 배우겠다」는 教훈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작고한 뒤에 堂이 무너지고 곧 다시 重建을 했는데 이제 曾孫 亨澈이 家中을 倡습하여 또다시 重新을 하였으니 公의 德澤이 進進하여 마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申友가 일찌기 諸家가 學古堂詩를 次韻한 것을 편집하고 原韻과 합쳐 帖子를 만들었는데 數百首가 되었다. 그중에는 琬琰과 瓦礫의 분간이 없지는 않으나 要는 모두가 學古翁을 尊仰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子孫된 자는 어찌 귀중하게 보관하여 오래 전하기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巴야호로 印刷를 맡기려면서 尹丈丁履氏에게 序文을 받고 또 책끝의 一言을 나에게 要求했다. 나는 말하기를 序文이 이미 할말을 다했는데 다시 부족한 사람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지만 申友가 오히려 高집을 하고 宥주지 않아 이에 소감을 이렇게 서술하여 그 請에 응해주고 또 나의 敬仰하는 뜻을 표하는 바이다.

大韓光復四十八年壬申二月 日 星州 李栢淳 跋

3) 原韻 (七言)

先廬修補告竣功日夕登臨戒在躬 毳業勿沉今世學儒宗當守古人風弟

兄湛樂漁樵裡兒侄勤工硯墨中爲頌我家遊賞物春花秋月定無窮

曾孫 彥 繩

先世집을 보수하여 준공을 하고
낮과 밤에 오르면서 자신을 다짐한다
先業을 지켜 당세의 학문에 빠지지 말라
儒宗은 마땅히 古人的 風을 지켜야 한다
弟兄은 고기잡고 나무하며 화락하고
子姪은 벼루 먹 속에 공부를 부지런히 한다.
우리집 遊賞할 물건을 송축하노니
봄의 꽃 가을의 달이 한량이 없다.

50. 雪亭

입면 대장리에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2) 記

雪山之陽鷓岳特異主人翁背鷓爲構而面雪爲索故扁其額曰雪亭蓋不忘本何者雪山之麓自北而南鸞翥鳳翔蜿蜒委蛇東南斗起爲鷓岳霞明石潔往往有霽色之峭雖謂之小雪山可也而又西北向回顧其本祖擺開一洞曰大壯霜峯左揖峙右拱其清淑之氣所種松梅楓栢竹箭之美虎豹麋鹿聲翟之文不能獨當庶幾有隱遁之士遺逸之民在其間者卽主人翁之攸居而此亭所以作也其制不侈不陋軒四隅而室其中十楹九區體河洛圖書之象四壁三牖應四時十二月之數甚妙規也登斯而覽則數郡山川皆在眼下萬壑風烟許盪胸中此真絕勝仙庄也至若禽鳥之吟嘯藤葛之蒙翳疏水之脆曰足以悅耳目而清心肝又如晨霏夕嵐春紅夏綠秋月冬霰無非凡筵間起居拱偉而亭之命名也皆捨是而不取獨取一雪以銘之吾知其不忘本也然主人翁與若者若孫寒棲于此或巖耕而崖採或讀書而講學林風納爽而不絕磻籟發清而無塵雖三伏炎天坐客衿懷飄然灑落若抱冰雪此真雪亭也夫

<心齋 李崑壽>

□ 해설

雪山 남쪽에 초악산이 특이하기 때문에 초악산을 등지고 정자를 지었는데 雪山이 앞에 노여있기 까닭에 그 정자를 扁額하여 雪亭이라 하였으니 이는 대개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雪山의 기슭이 북에서 부터 남으로 내려왔는데 난새와 봉황이 날개를 편듯 하기도 하고 뱀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하며 동남쪽에 초악산에 이르렀다. 안개빛은 밝고 들은

깨끗하여 이따금 달빛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때문에 小雪山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를 것이다. 또 서북쪽을 향하여 그 근본인 雪山을 되돌아보면서 마을 하나가 형성되었으니 이름하여 大壯이다. 霜峯은 왼쪽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오른쪽은 팔장을 끼고 있는듯 하다. 거기에서 풍긴 맑은 기운과 앞뒤에 심어놓은 소나무 매화나무 단풍나무 대나무의 아름다운 운치와 호랑이, 사슴, 꿩 등 문채는 능히 표현할 수가 없다. 아마 그 가운데 은둔한 선비와 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이 살고 있을만 하니 곧 主人께서 이곳에 거주하면서 이 정자를 지었던 것이다. 그 정자의 설계와 제도는 사치스런 것도 아니고 고루하여 협소한 것도 아니다. 마루는 사방으로 둘러있고, 그 중앙에는 방이 있으며 기둥이 열개이니 아홉칸으로 구분이 되었다. 전체는 伏羲氏의 河圖洛書 형상이고 벽은 네군데 봉창은 세군대이니 사계절 열두달의 수(數)를 응용하였으므로 매우 기묘한 설계라고 할것이다. 이 정자를 올라 바라보면 두어고을 山川이 모두다 내려다 보이고 일만 구룡에 풍경이 가슴속을 가득채워 넘친 듯하니 이곳은 참으로 뛰어난 명승지이다. 새들의 노래소리와 다래냉쿨 칙냉쿨이 열키고 설킴과 채소맛과 물맛은 사람들의耳目을 즐겁게 하고 심장부를 말끔히 할만하다. 또 새벽에 내린 이슬 저녁 안개와 봄에는 밝은꽃 여름엔 녹음방초 가을 달과 겨울이면 눈빛등이 主人의 삶을 위하지 아니한 것이 없건만 정자를 命名하면서 이를 다버리고 취택하여 정자의 이름을 지었으니 내가 알기로는 그 근본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主人의 자손들이 이 정자를 거쳐하면서 혹은 바위틈에서 발갈이를 하고 낭떨어지에서 나물을 캐며 혹은 글을 읽고 학문을 강론하며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상쾌히 받아들면서 말끔한 소리 끊이지 않아 속세라는 느낌이 전혀 없다. 비록 심복염천일지라도 정자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가슴이 서늘하여 얼음과 눈을 안은것 같으니 이것이 참다운 雪亭을 의미한 것인가 싶다.

<心齋 이곤수>

51. 松石亭

『곡성군지』와 『곡성향토지』에 의하면 立面 雲峙에 있던 정자로 雲岡 梁鯉煥이 子侄들과 함께 세웠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樓亭記도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兩誌에 梁鯉煥의 동일한 詩가 각각 실려있다.

1)

雲山古澗水縈廻 絶頂疏簾向遠開 風雨爭聲橫短壑 雷霆驅石住層臺
明沙皓皓長江雪 落日蒼蒼下界△ 白首經營渾忘想 倚欄空醉覓時盃

<雲岡 梁鯉煥>

옛 산천 구름속에 시냇물 흐르고
 낭떨어지 성건발은 먼곳 향해 열렸네
 가로놓인 구룡에 비바람 소리 요란하니
 우뢰 소리에 구름 돌이 층대에 멈추었어
 백사장 모래빛은 강가의 흰눈이요
 해 질무렵 푸르름은 이 세상 풍경일세
 백발노인이 하던 일을 잊고서
 덧없이 술에 취해 시구를 찾는구나.

52. 大還亭



이 정자를 세운 沈公 諱塚鎭의 字는 啓先이요 號는 枕溪이며 不倚亭濼의 孫이고, 贈掌樂院正 師益의 아들이다. 氣質이 溫良하고 行義가 超凡하였으며 養親諸節에 誠心이 極盡하여 前後親喪에는 항상 几筵에 엎드려 三年喪을 마쳤다. 經史를 耽讀하고 義理를 研究하였으며 世上의 榮華를 謝絶하고 따라서 七峯山 아래 정자를 짓고 다섯 아들을 가르치면서 벗들과 더불어 그 가운데서 詩를 읊었다. 丙子 講和를 恨歎하면서 淸의 年號를 쓰지 않았고, 明나라 統紀를 썼으며 國忌에는 宴會에도 不參하였다.

玉果 남쪽으로 十里 七峯里 아래 있는데 公의 둘째아들 進士 永橋斗永이 비로소 亭號를 걸고 詩를 지어 이르기를

痴叟生涯無地居
十年行讀晦翁書

늙은이 한平生 살곳이없어
十年을 晦翁(朱熹)의 글만 읽었네

歸來山有三間屋	돌아온 山아래 三間집 있어
閑坐溪臨一帶魚	한가로이 시내에 앉아 고기떼 굽어본다
蒼翠盈庭詩債負	松竹은 뜰가득 詩興을 돋우고
全丹有契世情疎	神仙과 交契있어 世俗의 情 멀었구나
千二百年碁一局	긴긴세월 人生事 바둑 한판인가
樂生長老太平於	生涯를 즐기며 太平하게 늙고지고

判書 金鼎均의 詩에 이르기를

七峯山下上仁居	七峯山 아래 어진분 사시니
翁築溪亭教子書	그 늙은이 정자 짓고 아들 글가르친다
繞屋青山齒者趣	집을 두른 靑山은 어르신네 趣向이요
觸軒流水坐面漁	마룻가에 흐른 물은 앉아 고기잡을 레라
松風四面襟期爽	四面의 솔바람 가슴속 시원하고
蓼月三更世念疎	三更에 뜨는 달은 世上근심 멀게한다
難兄難弟誠孝著	형이며 아우 지극한 효성
文章餘力藝遊於	餘暇에 文章이요 六藝도 즐긴다

53. 天淵亭



玉果南쪽十里쯤 兼面 七峯里 大還亭 왼쪽에 있는데 石圃寢郎 沈公胤澤이 지은 것으로 晩年에 林泉의 즐거움을 얻어 그 아우 雪隱宗澤과 더불어 그곳에서 詩를 지었고 扁額하여 天淵이라 한것은 대체로 中庸의 其天其淵의 뜻을 取함이니 平生 工夫를 이룰보면 족하다 하겠다.

原韻있으니 이르기름

大還亭畔屋新成
只管天淵我性情
磨鏡有年猶晦翳
披雲何日見高明
百家村左難爲閤
一水臺崇未耐清
風月無邊桑梓舊
不妨追述寄餘生

大還亭 언덕에 집 새로 지으니
오로지 天淵만이 나의 性情일세
긴세월 닦아도 거울은 희미한데
구름거친 어느날 高明을 볼거나
마을의 외딴곳 더없이 고요하고
高樓아래 한줄기 물 못내 맑아라
風月이 限이 없는 祖上의 옛터
繼述을 거릴소냐 餘生을 부치리

<進士 宋哲憲이 次韻하고 海觀 尹用求가 懸板의 額字를 썼다>

54. 雪岩亭



곡성군 결면 현정리 2구 38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규형씨의 할아버지께서 봄가을을 따로두고 여름에 공부를(동내 서당겸)위해 따로 지은 정자였다고 하나 6·25당시 본체가 소실되어 현재는 살림집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55. 不倚亭

『곡성군지』에 의하면 靑松人 處士 沈學이 仕宦에 뜻이 없어, 곡성군 兼面 大明里에 정자를 세우고 은거했던 곳이라 하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同誌에 沈學의 詩 한수가 남아있고, 『곡성향토지』에 간단한 기록이 전한다. 不倚亭은 沈學의 호이다.

1)

綴拾聖門糟粕餘 不能於己試於虛 楹如大道千枝散 詹似靈臺一鏡虛
天理元來同物我 人心何處異終初 此真安宅何須曠 知是仁人所可居

< 沈 學 >

聖賢들이 남기신 학문을 또 익혔건만
이 내몸 내 가정에 시험해보지 못했네
기둥은 큰길에 일천가지를 흩어놓은것 같고
처마는 靈臺(마음)의 맑은 거울과 같구나.
하늘의 이치 원래가 너 나에게 같은데
어느 곳 人心이 처음과 끝이 다를손가
여기가 참으로 安宅인데 어찌 꼭 넓어야만 하나
이 건물 仁人이 거처할만 하다는 것을 알았어

56. 翠松亭

『조선후남지』에 翠松 辛衡載의 所建으로 향중의 秀才들이 모여 逍遙하던 곳이라 했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同誌에 詩 한수가 남아 있다.

1)

四圍松樹小溪湄 晚卜幽居境更宜 物色偏多酬傑句 塵愁肯許上顏眉
梅香乍動春風煖 柳影輕籠午景遲 深睡草堂驚夢起 此心曾有臥龍知

< 辛衡載 >

소나무 둘러쌓인 시냇물 가에
만년을 사는데는 幽境이 좋아
풍경은 좋은 글귀를 많이 읊게 하는데,
수심이 어찌하여 낮빛에 나타날손가
매화향기 움직이니 봄바람 따뜻하고
버들 그림자 얼었으니 낮경치 더디구나
잠 깊이든 草堂에서 꿈을 깨어 일어나니
이 마음 일찌기 臥龍선생 있었다는걸 알았어.

57. 三九亭



오산면 선세리 작천에 있으며 1959년에 鄉人들에 의해 建立.

1) 記

三三月九九月亭以三九名誌會同於三九也亭可無時不登而會同必於三九取陽數也陽數不止三九而舉三九則一五七無不在焉三三其一九九其一三九各一一無不在自三至九徒九反三捐三九則五加三九則七三九之該陽數審矣然造化發育奇耦相生陰陽迭運乃獨取陽數焉爲貴何也蓋天地之生萬物一而已聖人之應萬事直而已陽變陰合非一不能靜存動察非直有間一故不己直故無僞其專其坼象之寓也其舒其縮道之生也光明正大疎暢通達陽也幽闇委靡詖淫邪遁陰也聖人觀盛衰道長之機扶陽抑陰參贊化育其志深矣自世教衰賢人在野在野則窮縮憂愁陰之象也以陽

類乃行陰之道安能召天地之和氣同志同力築一亭於鵲山下琴坪溪流陰龍星巒峙鶴幽靚爽朗與曠兼宜望之若窮陰之也陽德照著之象朝夕登臨吟風弄月修契講信要將家詠於斯疎暢堦鬱尋陽界直樂做前人之成規挽鄉風之類網馴致於君子道長小人道消亦未可知不可謂非我輩所與而讓與別人做也始役於己亥秋斷手於庚子肇夏將落之日或難之曰未爲君子而入此亭殆不可曰否欲爲君子此心便是陽類一念之善一事之正何嘗非陽之類乎遂書此以共勗焉

<只書庚子遷月上泮 咸陽呂昌鉉書 屠維大淵獻復之上泮 同契人>

□ 해설

三은 3월을 의미한 것이고 九는 9월을 의미한 것이며 정자 이름을 三九라고 한것은 3월과 9월에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자란 오르지 않을때가 없는 것이지만 3월과 9월에 반드시 모인다는 것은 陽의 숫자를 취택한 것이다. 陽의 숫자가 3과 9뿐만이 아니지만 3과 9를 거론하면 1과 5와 7은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3이라는 3 그것도 곧 하나(一)라는 것이고 9라는 9 그것도 곧 하나(九)라는 것이니 3과 9가 각각 하나(一)일진데 하나(一)라는 숫자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3으로부터 9에 이르고 9에서 다시 3으로 되돌아온 것이니 9에서 3을 빼면 5가 되고 9를 세번(三) 더하면 27(七)이 되는 것으로 3과 9는 모두가 陽의 숫자인 것이니 잘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조화를 부리는 것은 奇(陽·一)와 耦(陰·一一)가 서로 生氣를 주는 것으로 陰과 陽이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陽의 숫자만 취택한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대개 하늘과 땅이 온갖 물건을 성장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뿐이고 聖人이 온갖 일을 대응하는 것은 直일 뿐이니 陽이 변하면 陰이 화합하는 것도 한결같은 一이 아니면 능히 못할 것이며 靜하면 존재하고 動하면 살피는 것이니 直이 아니면 간격이 있는 것이다. 한결같이(一)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고 정직(直)하기 때문에 거짓됨이 없는 것이니 그것이 단결하였다가 그것이 버려지는 것은 象에 담겨있고 그것이 퍼졌다가 그것이 축소되는 것은 道가 生成하는

것이다. 광명하고 정대하며 소통하고 창달함은 陽의 조화인 것이고 음침하고 위약하며 음란하고 사특함은 陰의 조화인 것이니 聖人이 陰과 陽의 성쇠 소장하는 기미를 관찰하여 陽을 붙들고 陰을 억누르며 온갖 물건이 化育하는 일에 참여해 도와주었으니 그 뜻이 깊다. 세상 교육이 쇠퇴하면서부터 현철한 사람들이 초야에 묻혀 있으니 초야에 묻혀있으면 곤궁과 위축과 걱정과 시름이 겹치는 것이니 이는 陰의 형상이다. 君子(陽)들로써 초야의 음지에서 행동하도록 하니 어찌 능히 하늘과 땅의 和氣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같이 하여 鷓山아래 琴坪에 한 정자를 세웠는데 시냇물은 구비쳐 흐르고 산 봉우리는 여기저기 널려있어 깊숙하면서 명랑하여 아늑함과 광활함을 겸하였으니 바라보면 窮陰할것 같지만 陽德이 비쳐주는 형상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올라앉아 바람을 읊조리고 달을 희롱하여 契事를 닦고 믿음을 다짐하는가 하면 이 정자에서 시를 읊어 우울한 회포를 펴니 이것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다운 즐거움이다. 前人들이 이루어 놓은 규약을 본받고 무너져가는 지방 풍속을 붙들어 君子의 道는 성장하게 하며 小人의 道는 소멸되게 하였는지는 또한 가히 알지 못할 것이니 우리들이 더불어 할바가 아니고 別人들이 하여야 한다고 이른것은 不可할 것이다.

이 공사는 己亥 1959년 가을에 시작되어 庚子 1960년 첫 여름에 준공되었는데 장차 落成式을 거행하는날 후자가 어렵게 이야기하기를 君子가 되지 못하여 이 정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다. 내가 답하여 가로되 그것이 아니다 君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니 이 마음은 곧 陽인 것이다. 생각하는 것마다 善하고 하는 일마다 정직하면 어찌 陽(君子)의 類가 아니겠는가 드디어 이 내용을 써서 공조하는 마음을 담는다.

<庚子 1960년 6월 초순에 咸陽 呂창현 짓다>

58. 花樹亭

『곡성향토지』에 의하면 梧山面 劍藏山下 丹士里에 朱仲錫이 세운 敦睦講義之所였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누정총람』 2에 간단한 기록과 함께 朱仲錫의 原韻이 실려있다.

1)

吾家卜築歲周回 花樹滿庭春自閑 說話多情親戚悅 團圓成聚子孫求
每當佳節聊乘興 欲敘雅懷強飲盃 却顧亭名心自在 暫時不忘起徘徊
〈朱仲錫〉

내 집을 세운지가 일주년이 돌아왔어
꽃나무 뜰에 가득하니 봄 빛 저절로 한가로워
말씀마다 다정하니 친척들 기뻐하고
화목을 다지려고 자손들 모아드네
佳節을 당할때마다 애오라지 흥겹고
회포를 풀고파서 억지로 술 마셨지
정자 이름을 문득 되새겨보니 마음이 스스로 있어서
잠시도 잊지않고 일어나 뭇돌았어

□ 谷城 樓亭錄 索引

№	現存 有無	題目	所在地	建立年代	建立者
1	○	東山亭	곡성읍 동산리 동산	1871·1949	金圭泰
2	○	南陽亭	" "	1944	金泰有
3	○	玉壺亭	" 묘천리 19	1895	詩契員
4	○	反求亭	" 학정리 417	1933·1961	鄉人
5	×	景思亭	" 신기리		徐永修
6	×	晚翠亭	" "	1600년경	李賢
7	×	清溪亭	" "		梁大棟
8	×	月華樓	" 객사리		
9	×	晚學亭	" 죽동		徐赫
10	○	永守亭	오곡면 오지7리 당산	1826·1789	安濟遠
11	○	浣溪精舍	" 덕산리	1900	안훈
12	×	忘憂亭	오곡면 오지리	1600	趙大成
13	×	二樂亭	" "		"
14	×	白鷺亭	" 압록리		
15	×	一草亭	" 덕산리	20c초	安堉
16	○	梧石亭	삼기면 의암리 서봉	1957	金道鉉·金周鉉
17	○	清涼亭	" 원동리 원동	1928	洞中父老
18	○	連海亭	" 괴소리	1938	강창희
19	×	映波亭	" 월경리		鄭基老外 8人
20	○	萬石亭(詩友亭)	석곡면 능파리	1980	崔三洙와 儒林
21	○	伴鷗亭	" 봉전리	인조대	金鑑
22	○	月峯亭	" 석곡리	1952	김용채
23	○	相宜亭	석곡면 연반리 연동	1955	丁大暉·丁大瑋
24	○	敬老亭	" 염곡리 염촌	1974	마을주민
25	○	愛蓮亭	" 연동리	1908	丁大暉
26	×	凌波亭	" 능파리	1560	申大年
27	×	茂林亭	목사동면 동암리 동산		趙大燮
28	○	金蘭亭	죽곡면 용정리 북소	1973	同鄉同庚12人
29	○	永山亭	" 태평리 태평	1942	李注銘
30	○	蓮花亭	" 연화리	1992	

№	現存 有無	題目	所在地	建立年代	建立者
31	○	天德亭	죽곡면 용정리	1993	
32	○	秋溪亭	" 봉정리	1991	심상철
33	×	永矣亭	" 당동리		趙性龜
34	×	木澗亭	" "	1900년초	金潤弼
35	○	樂水亭	고달면 고달리 수월	1890	河在一
36	○	橫灘亭	" 뇌죽리 뇌연	1887	
37	○	輔仁亭	" " "	1963	鄕約契
38	○	翠雲亭	" 목동리	1968	
39	×	南愚亭	" 대사리 대골		朴永台
40	×	鰲戴亭	" " "	15c중엽	金季甫
41	○	晚翠亭	옥과면 옥과리		
42	×	觀政樓	" 현남리		
43	×	椅雲樓	" 객사동		
44	×	合江亭	" 합강리	1636후	鄭雲鵬
45	○	涵虛亭	입면 세월리 1016	1543	沈光亨
46	○	杜菴亭	" 흑석리 흑석	1600년초	沈敏謙
47	○	寒碧亭	" 서봉리	1953	崔正漢
48	○	月巖亭	" 입석리 장곡동	1927	金鼎潤
49	○	學古堂	" 입석리	1941	申夏熙
50	×	雪亭	" 대장리 안산		
51	×	松石亭	" 만수2리 운치		梁鯉煥
52	○	大還亭	경면 칠봉리		沈採鎭
53	○	天淵亭	" "		沈胤澤
54	○	雪岩亭	" 현정리		조규형
55	×	不倚亭	" 대명리		沈學
56	×	翠松亭	" 대명산		辛衡載
57	○	三九亭	오산면 선세리 작천	1959	鄕人
58	×	花樹亭	" 단사리 단사		朱仲錫

谷城 樓亭錄

1996年 12月 15日 印刷
1996年 12月 30日 發行

發行處：谷城文化院
發行人：金吉榮
印刷處：清進文化社
☎ (062) 223-4346

<非賣品>

